

국제회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2008

**한국관광공사
코리아컨벤션뷰로**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제 3 절 연구 구성 및 수행체계	8
1. 연구 구성	8
2. 연구체계 구성	9
3. 연구 수행과정	9
제 2 장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	11
제 1 절 국제회의산업 분류 체계	13
1. 국제회의 정의 및 산업 분류	13
2. 관광산업의 분류체계 선행 연구	18
제 2 절 국제회의부문 경제적 파급효과 문헌 연구	22
1. 국내 연구사례	22
2. 해외 연구사례	34
제 3 장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	39
제 1 절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체계	41
1. 산업연관분석 이용	41
2. 산업연관분석 방법	43
3. 국제회의산업의 최종수요(final demand) 추정	46
제 2 절 국제회의산업 분류	49
1. 국제회의산업 분류 체계	49
제 4 장 우리나라 국제회의산업 현황 및 참가자 소비지출액 조사	53
제 1 절 우리나라 국제회의 개최 현황	55
1. 세계 국제회의 시장에서 한국의 성과	55
2. 우리나라국제회의 시장의 현황	61

제 2 절 국제회의 참가자 소비지출액 조사	67
1. 조사 개요	67
2. 조사 대상	68
3. 국제회의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71
4. 2007 국제회의 참가자의 소비지출액 분석	78
 제 5 장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85
제 1 절 국제회의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승수 도출	87
1. 국제회의 관련 산업의 분류	87
2. 생산유발승수	87
3. 소득유발승수	89
4. 고용유발승수	91
5. 부가가치유발승수	92
6. 수입(import)유발승수	94
7. 간접세유발승수	96
제 2 절 2007년 국제회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98
1. 전체 외국인 참가자의 총 지출 규모 추정	98
2. 생산, 고용, 소득 유발효과 분석	99
3. 부가가치·수입·간접세 유발효과 분석	102
제 3 절 국제회의의 유형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05
1. 정부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05
2. 협회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11
3. 학회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17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5
제 1 절 2007년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127
1. 2007년 국내 국제회의산업의 총 수요	127
2. 국제회의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요약	129
3. 분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130
제 2 절 정책적 제언	136
1. 컨벤션 통계센터 설립의 필요성 및 현황	137
2. 컨벤션통계센터 설립·운영 방안	140
 <참고문헌>	143
<부록 1> 2007년 국내개최 국제회의의 현황 목록	149
<부록 2> 연계 논문 발간	163

표 목 차

〈표 2-1〉 2005년 연구의 국제회의산업 분류 체계	16
〈표 2-2〉 2005년 연구의 국제회의산업 및 연관산업 분류 체계	17
〈표 2-3〉 선행연구의 관광산업 분류	20
〈표 2-4〉 국제기구의 관광산업 분류 비교	21
〈표 2-5〉 국제회의 참가자 지출 항목 구성	23
〈표 2-6〉 국제회의 참가자 지출 항목 구성	24
〈표 2-7〉 국제회의 주최자 지출 항목 구성	25
〈표 2-8〉 전시부문의 산업연관표상 지출부문	29
〈표 2-9〉 전시산업의 주요 지출항목과 산업연관표 부문과의 연결	30
〈표 2-10〉 전시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분류 체계	31
〈표 2-11〉 직접지출액 및 최종수요	32
〈표 2-12〉 국제회의 개최관련 지출액 추정	33
〈표 2-13〉 국제회의 개최관련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34
〈표 3-1〉 2007년 본 연구의 국제회의산업 및 연관산업 분류 체계	52
〈표 4-1〉 세계 국제회의의 시장 현황 (2003년~2007년)	55
〈표 4-2〉 국가별 국제회의의 개최건수에 따른 순위 (2003년~2007년)	57
〈표 4-3〉 도시별 국제회의의 개최 건수에 따른 순위 (2003년~2007년)	60
〈표 4-4〉 국내 국제회의의 개최 및 외국인 참가자수 현황 (1998년~2007년)	62
〈표 4-5〉 국내 월별 국제회의의 개최건수 및 참가자수 비교 (2005년~2007년)	63
〈표 4-6〉 국내 지역별 국제회의의 개최 현황 (2005년~2007년)	64
〈표 4-7〉 국제회의의 종류별 개최 비교 (2004년, 2007년)	65
〈표 4-8〉 2007 국제회의의 참가자 소비지출액 조사 대상 회의	69
〈표 4-9〉 지역별 조사 현황	70
〈표 4-10〉 회의 유형별 조사 현황	70
〈표 4-11〉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4
〈표 4-12〉 2007 국내 국제회의의 외국인 참가자의 방한 체류기간	76
〈표 4-13〉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77
〈표 4-14〉 2007년 국내 국제회의의 외국인 참가자의 평균 소비지출액	79
〈표 4-15〉 2007년 국내 정부회의의 외국인 참가자의 평균 소비지출액	80
〈표 4-16〉 2007년 국내 협회회의의 외국인 참가자의 평균 소비지출액	81
〈표 4-17〉 2007년 국내 학회회의의 외국인 참가자의 평균 소비지출액	82
〈표 5-1〉 국제회의산업의 생산유발승수	88
〈표 5-2〉 국제회의산업의 소득유발승수	90
〈표 5-3〉 국제회의산업의 고용유발승수	91

〈표 5-4〉 국제회의산업의 부가가치유발승수	93
〈표 5-5〉 국제회의산업의 수입유발승수	95
〈표 5-6〉 간접세유발승수	96
〈표 5-7〉 전체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 규모 추정	98
〈표 5-8〉 전체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생산·고용·소득유발효과	100
〈표 5-9〉 전체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부가가치·수입·순간접세 유발효과	104
〈표 5-10〉 정부회의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 규모 추정	105
〈표 5-11〉 정부회의 개최에 따른 생산·고용·소득유발효과	108
〈표 5-12〉 정부회의 개최에 따른 부가가치·수입·순간접세 유발효과	110
〈표 5-13〉 협회회의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 규모 추정	112
〈표 5-14〉 협회회의 개최에 따른 생산·고용·소득유발효과	114
〈표 5-15〉 협회회의 개최에 따른 부가가치·수입·순간접세 유발효과	116
〈표 5-16〉 학회회의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 규모 추정	118
〈표 5-17〉 학회회의 개최에 따른 생산·고용·소득유발효과	119
〈표 5-18〉 학회회의 개최에 따른 부가가치·수입·순간접세 유발효과	123
〈표 6-1〉 항목별 국제회의산업의 기초 수요(참가자 1인당 평균 지출) 비교	128
〈표 6-2〉 항목별 국제회의산업의 최종 수요 비교	128
〈표 6-3〉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130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체계 구성	9
[그림 1-2] 연구 수행 체계도	9
[그림 3-1] 산업연관분석 체계도	41
[그림 4-1] 대륙별 세계 국제회의 시장 점유율 변화 (2003년~2007년)	56
[그림 4-2] 1998년~2007년의 국가별 컨벤션 개최 성장률	59
[그림 4-3] 국내 국제회의 개최 및 외국인 참가자수 증감 추이	62
[그림 4-4] 국내 월별 국제회의 개최건수 및 외국인 참가자수 비교 (2005년~2007년)	63
[그림 4-5] 2007년 국제회의 종류별 개최 규모	66
[그림 4-6] 개최 지역별 조사 현황	71
[그림 4-7] 회의 유형별 조사 현황	71
[그림 4-8] 컨벤션 참가자의 성별 비교 (2004년/2007년)	72
[그림 4-9] 컨벤션 참가자의 연령대 비교 (2004년/2007년)	73
[그림 4-10] 컨벤션 참가자의 거주지 비교 (2004년/2007년)	74
[그림 4-11] 컨벤션 참가자의 방한 체류기간 비교 (2004년/2007년)	76
[그림 4-12] 2007년 정부·협회·학회회의 참가자 간 소비지출액 비교	82
[그림 6-1] 국제회의 유형별 참가자 1인당 지출항목별 평균 지출액 비교	131
[그림 6-2] 국제회의 유형별 참가자 지출항목별 총 지출액 비교	131
[그림 6-3] 국제회의 유형별 생산유발효과 비교	133
[그림 6-4] 국제회의 유형별 고용·소득·부가가치유발효과 비교	135

국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PART I

서론

-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연구 대상 및 방법
- 3. 연구 구성 및 수행체계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2006)는 21세기의 부는 고객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적인 지식을 먼저 확보한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지식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공유할수록 그 효용 가치가 더 높아지지만, 새로운 지식이 나올수록 기존의 지식은 금세 무용지식(obsoledge¹⁾)이 되어버리기도 한다고 함
- 이에 따라 토플러는 지식의 공급이 그 유한성을 뛰어넘고 있으며 지식이 상호작용하면서 더 거대하고, 힘 있는 지식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주목함
-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는 정보 및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공의 장이 필요하며 이는 곧 국제회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세계 국제회의 시장 환경은 국제회의 산업의 고부가가치적 측면을 재인식하고 컨벤션센터의 건립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육성 정책이 나오고 있음
- 미국, 캐나다 등에서 75개가 넘는 대형 컨벤션센터를 신·증축하고 있고, 아시아의 주변 경쟁국인 중국,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도 전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여 국제회의 개최지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과감한 투자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1) obsolete와 knowledge의 합성어



- 관광산업 중에서도 가장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제회의 산업은 단순히 국제회의만을 육성하기 위한 업종이 아니고 관광분야는 물론 관련 분야의 모든 업종을 종합화하고 상호간의 시너지(synergy) 효과를 창출하는 메커니즘(mechanism)을 가지고 있음
- 국제회의 산업이 가지고 있는 동태적인 특성과 국제회의가 관광산업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의 수행하고, 타 분야(예, 무역, 금융, IT 등)를 융합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실을 볼 때, 국제회의 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됨
- 2007년 우리나라는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기준으로 268건을 개최하여 세계 순위 15위, 아시아 순위 3위를 차지하여 (싱가포르와 일본이 각각 1위와 2위임), 국제회의산업의 중요성의 부각과 함께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고부가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국제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나, 지속적인 연구의 부재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제회의 산업의 경제적 크기와 파급효과를 일관성이 있게 제시하지 못하는 정책적 한계를 보이고, 자료 부재로 인한 산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런 관점에서 국제회의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국제회의 산업이 국가경제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합의 사항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소비실태 조사와 2007년에 개최된 총 국제회의를 조사하여 산업연관분석 체계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가 소비하는 지출액을 조사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고용, 소득, 부가가치, 수입, 간접세 유발 등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함의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본 연구는 국제회의를 정부회의, 협회회의, 학회회의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의 국제회의가 산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함
- 특히, 본 연구를 통하여 국제회의산업을 국가산업의 성장 동력(growth engine)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특히 국제회의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향후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2007년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소비 지출액을 조사하여 외국인 참가자의 한 해 총 소비규모를 추정하며,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03년 산업연관표를 국제회의산업과 타 산업으로 분류 및 통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함
- 연구범위는 국제회의를 정부, 협회, 학회회의로 세분화하여 국제회의 유형별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함
 - 2007년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소비실태 조사를 통한 총 소비규모 추정
 - 2003년 기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상 국제회의산업 재분류·통합
 - 경제적 파급승수효과 도출 및 파급효과 분석(유형별 비교·분석)
- 본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표 자료인 2003년부터 본 연구의 정책적 유효성을 가질 2009년까지임

2.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방법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문헌연구를 고찰하였으며, 본 연구진이 2005년 수행한, 2004년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를 재분석하여 본 연구의 방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시사점 및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연구 수행에 반영하였음
-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고 본 연구진이 수행한 ‘2007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외국인 참가자의 방한기간 중 소비실태를 조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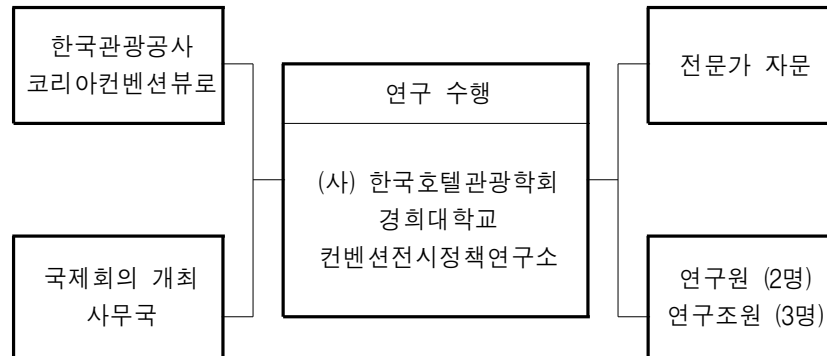
- 소비실태조사에서는 소비액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극단적으로 높은 수치는 전문가의 소견을 바탕으로 일반 참가자의 전반적 소비실태 파악을 위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조사된 소비실태를 바탕으로 참가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을 도출하였고, ‘2007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의 총 외국인 참가자수를 대입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외국인 참가자들의 전체 소비지출규모를 추정하였음
- 국제회의산업의 특성 및 참가자의 소비패턴(항목)과 부합하도록 2003년 기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산업 분류 체계를 재분류·통합하여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국제회의산업 분류 체계를 정립하였음
- 2003년 기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인 input-output model(투입산출 모형)를 통하여 파급승수를 도출하고, 이를 총 지출규모에 적용하여 2007년 국제회의산업의 생산유발효과, 소득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수입대체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간접세 유발효과를 측정함
- 국제회의 개최 유형을 정부, 협회, 학회회의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회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제3절 연구 구성 및 수행체계

1. 연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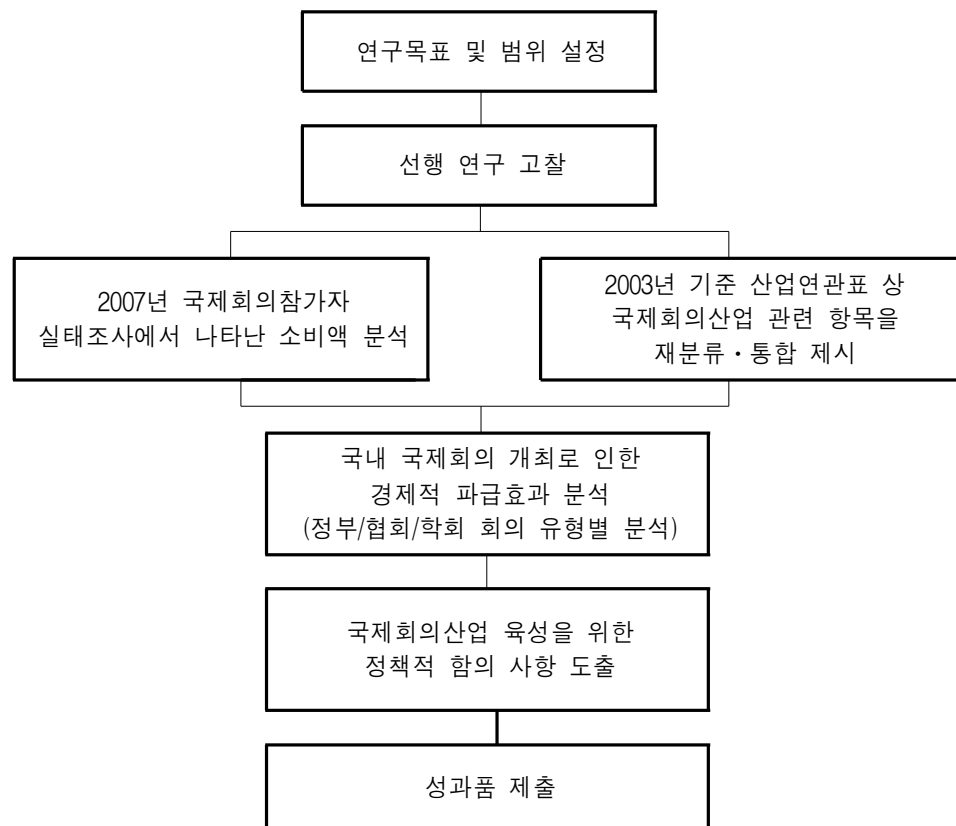
-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법 등을 서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 문헌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국제회의 분류체계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체계를 설정을 위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함
- 제3장은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 체계를 검토하고 분석방법을 제시함. 또한 국제회의산업 분류체계를 설정하여 제시하고, 최종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참가자의 직접소비지출의 개념을 서술하고 분석에 사용될 소비항목을 도출함
- 제4장은 2007년 국제회의산업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국제회의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제 조사된 2007년 국제회의 참가자의 소비실태를 제시함
- 제5장에서는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표를 활용하여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소득창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간접세 유발효과를 회의 유형별(전체, 정부, 협회, 학회회의)로 심층 분석함
-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우리나라 국제회의산업의 수익구조 개선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서술하였음

2. 연구체계 구성



[그림 1-1] 연구체계 구성

3. 연구 수행과정



[그림 1-2] 연구 수행 체계도

국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PART II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

-
-
- 1. 국제회의산업 분류 체계
- 2. 국제회의부문 경제적 파급효과 문헌 연구

제 2 장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

제 1 절 국제회의산업 분류 체계

1. 국제회의의 정의 및 산업 분류

가. 국제회의산업 분류 체계의 중요성

- 국제회의산업의 범위 및 분류체계는 국제회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정해진 범위 및 분류체계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남
-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함에 있어, 관광산업을 산업연관표 상에서 분류 및 통합하고 있음
- 이는 통합방식에 따라 각종 승수효과의 크기에 영향을 주며, 그 결과 총 파급효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컨벤션산업을 산업연관표상에서 어떻게 분류하고 통합하는 체계가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함

나. 국제회의산업 분류의 어려움

-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제회의산업의 분류방식은 연구자들(Mistils & Dwyer, 1999; Braun, 1992; 일본 컨그레스·국제회의부로, 일본관광진흥회, & 국제회의관광도시, 1996; CIC, 1995; 김성섭·이강욱, 2002; 한국관광연구원, 1998; 이충기, 2003; 한국관광공사, 2005, 김철원, 2006)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 분류체계가 상이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선 산업연관표상에 국제회의산업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국제회의산업 자체에서도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국제회의에 대한 개념 및 정의,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임
-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는 국제회의 최종수요를 어떻게 정의하고 추정하는가에 따라 좌우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점이나 연구 환경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산업연관분석에서는 국제회의산업분야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국제회의산업 분류와 산업연관표와 대비할 경우 그 부문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에도 일치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연구의 목적, 연구하는 산업의 특성, 연구하는 산업의 계층구조 및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회의산업을 분류함에 있어 산업연관표상에 나타나는 부문을 선택하는 합리적 과정이 필요함

다. 국제회의산업 분류 체계 선행 연구

- Braun(1992)은 국제회의의 경제적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국제회의 개최로 인한 소비지출을 참가자, 협회, 전시자로 구분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세분화하였으나 산업별로는 구분하지 않았음
- 구체적으로는 참가자의 총 소비지출은 숙박, 음식점, 소매점, 문화오락과 현지 교통으로 세분화하였고, 협회의 국제회의 기간 중 소비지출은 연회/케이터링, 회의장/전시공간/기자재 임차 및 서비스, 직원 인건비, 연사료/엔터테인먼트/동반자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전시자 지출은 판촉식음료서비스, 호텔리조트 운영, 계약서비스, 기타로 세분화하였음

- Mistils and Dwyer(1999)는 국제회의 개최로 인한 총 직접지출액을 숙박, 회의장, 교통(국내선 항공/지상교통), 식당, 쇼핑, 엔터테인먼트, 사업서비스, 기타 등 8개 부문으로 관광산업 분류를 이용해 세분화하였으며, 관광산업 분류이외에 회의장과 사업서비스를 추가하였음
- 김성섭과 이강욱(2002)은 국제회의 관련 산업분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관광기구, OECD, WTTC 등에서 연구 진행하고 있는 관광위성계정(TSA: Tourism Satellite Account)에 의한 관광비의 산출(Tourism ratio)은 관광산업의 분류와 유사한 국제회의 관련 산업의 산업연관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였음
- 또한 국제회의산업의 분류 및 통합에 있어서 국제회의관련 이외의 산업은 산업연관표의 분류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으며, 이는 산업분류 및 통합이 관련 승수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각종 승수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함
- 한국관광공사 (2005)는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에 있어서 국제회의산업 분류를 위해 국제회의산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관광산업의 분류 연구를 적극 응용하고 그 외 국제회의산업의 특이 항목을 추가로 분류·통합하는 형태를 취하였음
- 2005년 연구에서는 국제회의산업을 분류함에 있어, 국제회의 산업은 산업연관표상에서 존재하지 않음으로 관광관련 산업을 ‘국제회의 관련 산업’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음
- 따라서 2000년 기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산업연관표 404부문 중에 국제회의 산업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관광관련 산업을 “국제회의 관련 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음
- 국내외 선행 연구를 통해, 분석의 목적상 국제회의산업의 분류체계는 관광관련 산업의 분류체계와 유사한 것으로 전제하고, UNWTO의

SICTA(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Tourism Activities) 항목 중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분류에 적합한 항목들을 도출하고, 도출 항목과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항목을 조정하여 관광산업을 분류하였음

- 상기의 문헌연구와 ‘2004년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실시한 국제회의 참가자 및 주최자의 소비패턴을 조합하여 최종 국제회의산업을 분류하였음
- 참가자 지출에 의하여 도출된 항목을 관광산업에서 분류에 적용하여 운수 및 보관업, 운수보조, 차량임대, 숙박업, 음식점업, 여행업, 문화공연업, 운동경기업, 오락유흥업, 소매업, 기타 등 11개 부문을 채택하였으며, 여기에 주최자 측에서 지출한 항목과 부합되는 인쇄, 출판 및 복제, 통신 및 방송,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사업 및 기타 서비스 등 4개 부문을 추가하였음

<표 2-1> 2005년 연구의 국제회의산업 분류 체계

산업 구분	세부 산업 구분
관광 산업 관련 부문 (11개)	운수 및 보관
	운수보조
	숙박
	식음료
	차량임대
	여행업
	문화공연
	운동·경기
	오락·유흥
	소매업
	기타
관광산업 관련 외 부문 (4개)	인쇄, 출판 및 복제
	통신 및 방송
	부동산 및 임대사업 서비스
	사업 및 기타 서비스

- 이를 한국은행의 전국 산업연관표 상에서 국제회의산업으로 인한 경제활동에 연관성이 있는 22개 기본산업을 포함하여 최종 37개 산업

을 도출하고 각 산업의 전국투입계수를 이용하여 생산·소득·고용·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등을 도출하여 국제회의 관련 지출액을 산업연관분석에 적용하여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표 2-2> 2005년 연구의 국제회의산업 및 연관산업 분류 체계

산업 구분	세부 산업 구분	
기본 산업 분류	농림수산물	일반기계
	광산물	정밀기기
	음식료품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전력, 가스 및 수도
	목재 및 종이제품	건설
	석유 및 석탄제품	도소매
	화학제품	여객운송
	비금속광물제품	금융 및 보험
	제1차 금속	공공행정 및 국방
	금속제품	교육 및 보건
수출산업	전기 및 전자기기 (반도체)	수송장비 (승용차)
국제회의 관련산업	인쇄, 출판 및 복제	운수보조
	운수 및 보관	차량임대
	통신 및 방송	여행업
	부동산 및 임대사업 서비스	문화공연
	사업 및 기타 서비스	운동·경기
	기타	오락·유흥
	숙박	소매업
	식음료	

라. 분류체계 검토에 따른 시사점

- 종합적으로 볼 때,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관광산업 분류에 기초하여 국제회의산업을 분류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주최자의 경비지출 항목에 부합되는 분류를 추가로 채택하였음
-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관광공사 주관 하에 이루어진 2000년, 2005년 연구와의 연속선상에 있으므로 기존 연구와 시계열적 연구를 이루기 위한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나아가 기존 연구에서 분류한 국제회의산업에 대한 재 고찰을 통해 보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함

2. 관광산업의 분류체계 선행 연구

- 국제회의산업 분류를 위해 국제회의산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관광산업의 분류 연구를 적극 응용하고 그 외 국제회의산업의 특이 항목을 추가로 분류·통합하는 형태를 취하였음
- 관광산업 분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관광산업 역시 그 산업적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관광관련 국제기구(예, UNWTO나 WTTC 등) 및 각국 정부는 관광과 관련이 높은 산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광산업을 정의한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을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리고 관광사업을 여행업(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종합관광호텔업, 일반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토속주판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으로 세분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통계청은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 표준 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의 관광산업 분류 권고안을 참고하여 한국 표준 산업분류(KSIC: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체계 내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특수 분류를 제시하고 있음

- “관광관련 산업분류표”에서 분류된 산업은 비록 관광산업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관광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산업들로서 이들 산업 중에서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산업항목을 취사·선택하여 관광산업을 분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특수 분류에 의한 관광산업에는 건설업, 자동차 판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의 세부산업들이 포함됨
- 관광산업의 분류방식은 국가나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관광산업을 숙박업, 음식점업, 교통업, 유흥 및 레크레이션업, 도매/소매업,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Ruiz, 1985; Smith, 1988; Heng & Low, 1990; Hurley et al., 1994)하고 있음
-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을 숙박업, 음식점업, 교통통신업(관광교통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소매업으로 분류(이충기, 1999, 2003; 한국관광공사, 1993; 한국관광연구원, 1997; Lee, 1992, 2001, 2002)하고 있음
- 특히 이충기(2003)는 월드컵 외국인방문객의 실제 관광지출액 추정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에서 관광산업을 분류함에 있어서 숙박업, 음식점업, 그리고 쇼핑업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으나, 관광교통업과 문화오락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음
- 첫째, 관광·교통업 중 화물부문을 모두 제외하고 여객부문만을 관광산업에 포함시켰으며, 둘째, 외항운송업과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업은 전체 매출액 중 여객운송의 비중이 매우 작으므로 관광산업으로 포함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어 관광산업분류에서 제외하였으며, 셋째, 기타 운수관련서비스업에는 여행사가, 기타오락서비스업에는 카지노업이

각각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관광산업에 포함하였으며, 넷째, 월드컵 목적 외래관광객의 지출항목을 추정하기 위해 운동경기 관련 부문을 문화오락서비스업에 포함하였음

○ 상기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관광산업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2-3> 선행연구의 관광산업 분류

연구자	관광산업 분류
Ruiz(1985)	숙박업, 교통업, 무역·통상, 유흥·레크레이션
Smith(1988)	숙박업, 교통업, 여행서비스업, 음식점업, 레크레이션·오락, 소매점
Heng&Low(1990)	숙박업, 음식점업, 유흥·레크레이션, 도소매, 교통통신, 기타 서비스
UN(1990)	숙박업, 음식점업, 유흥업, 쇼핑업, 국내교통업, 국제교통업
Lee(1992)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문화오락서비스업, 도로교통, 기타 서비스
교통개발연구원(1992)	숙박업, 음식점업, 교통통신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쇼핑업(소매업)
한국관광공사(1993)	숙박업, 음식점업, 교통통신업, 오락문화서비스업, 쇼핑업(소매업)
권경상(1994)	숙박업, 음식점업, 교통통신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쇼핑업(소매업)
Hurley et al(1994)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교통업, 기타서비스업
Lee&Kwon(1995)	호텔, 레스토랑, 교통통신, 쇼핑, 유흥(문화오락서비스)
이충기·박창규(1996)	호텔, 음식점, 교통통신, 쇼핑(소매업), 문화오락서비스, 카지노
Lee&Kwon(1997)	호텔, 레스토랑, 교통통신업, 쇼핑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카지노업
한국관광연구원(1997)	숙박·음식점업, 교통업, 기타운수관련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소매업
한국개발연구원(1998)	도소매, 음식, 숙박
이충기(2003)	쇼핑업, 음식점업, 숙박업, 관광교통, 문화오락

자료 : 이충기(1999), 2002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 모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관광기구(WTO) 등 국제기구는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 작성과 관련하여 관광산업을 분류하였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관광산업 및 상품을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와 상품·서비스 분류(CPC: The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에 입각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세계관광기구(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 현재는 UNWTO로 개칭되었음)에서는 관광산업 분류를 위한 표준산업분류(SICT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Tourism Activities)와 관광상품 분류를 위한 관광상품코드(TCP: Tourism Product Code)를 제시하였음(한국관광연구원, 2000)

○ 이러한 국제기구의 관광산업 및 상품 분류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2-4> 국제기구의 관광산업 분류 비교

OECD	WTO
1. 관광핵심산업 • 숙박업 • 식·음료 서비스업 • 여객운송서비스업 • 렌터카서비스업 • 스키장업 • 휴양온천업 • 크루즈업 • 단일용도내구재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오락,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업	1. 관광산업 • 숙박업 • 식·음료 서비스업 • 여객운송서비스업 • 운수장비대여업 • 문화서비스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레크레이션 및 오락 서비스업
2. 기타 관광산업 • 유통마진 • 재화 • 서비스 • 단일용도내구재	2. 관광관련산업
3. 기타	3. 관광주변산업

자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3), 관광산업의 지방경제 기여효과 분석

제 2절 국제회의부문 경제적 파급효과 문헌 연구

-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또는 경제적 기여도 측정과 관련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함
-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함

1. 국내 연구사례

가. 한국관광공사의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2005)

-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우리나라 국제회의산업의 생산, 고용, 소득, 부가가치, 수입, 세수 등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경제 및 국제회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함의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2004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참가자의 소비실태와 주최자의 지출액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우리나라 국제회의산업의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2004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의 국내 국제회의 개최횟수와 외국인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의 소비실태, 국제회의 주최자의 지출 금액 및 수입금액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 기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을 토대로 input-output model(투입산출 모형)을 통하여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산하였음
- 동 연구에서는 경제효과 분석의 기초 자료로 한국은행의 ‘2000년 기준 산업연관표’ 중에서 개방모형,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분하여 작성한 비경쟁수입형표를 활용하였음. 국제회의산업의 산업연관분석을 실시

하기 위해 연구 목적에 적합한 국제회의관련 산업을 분류하였음. 일차적으로 한국은행의 전국 산업연관표를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높은 관광산업 포함 37개 산업으로 재분류·통합하고, 그 중 15개의 산업을 직접적인 국제회의산업으로 분류하였음

○ 국제회의 개최 관련 산업분류는 다음과 같음

<표 2-5> 국제회의 참가자 지출 항목 구성

산업 구분	세부 산업 구분	
기본 산업 분류	농림수산물	일반기계
	광산물	정밀기기
	음식료품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전력, 가스 및 수도
	목재 및 종이제품	건설
	석유 및 석탄제품	도소매
	화학제품	여객운송
	비금속광물제품	금융 및 보험
	제1차 금속	공공행정 및 국방
	금속제품	교육 및 보건
수출산업	전기 및 전자기기 (반도체)	수송장비 (승용차)
국제회의 관련산업	인쇄, 출판 및 복제	운수보조
	운수 및 보관	차량임대
	통신 및 방송	여행업
	부동산 및 임대사업 서비스	문화공연
	사업 및 기타 서비스	운동·경기
	기타	오락·유흥
	숙박	소매업
	식음료	

○ 2004년 집계한 한국관광공사 기준(3개국 이상으로부터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이상인 국제회의)의 국제회의 총 개최횟수는 305건으로 그중 외국인 참가자 수는 39,669명이었음. 이중 UIA(Union of Association)의 국제회의 개최기준(전체 참가자수가 300명 이상, 참가자중 외국인이 40% 이상, 참가국수 5개국 이상, 회의기간이 3일 이상인 회의)에 부합하는 22건의 국제회의를 분석 표본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함

- 참가자의 지출 조사를 위해서는 국제회의 참가자가 실제로 국제회의에서 지출하는 소비액과 방한 기간 동안 관광 관련 지출하는 소비액의 형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가능한 한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체계와 동일하게 국제회의 참가자의 지출항목을 도출하였음
- 도출된 국제회의 참가자 지출 항목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표 2-6> 국제회의 참가자 지출 항목 구성

구 분	내 용
국제회의 비용	- 국제회의에서 지출한 금액 등
숙박비	- 호텔, 여관, 민박, 펜션 등
식음료비	- 음식비, 음료비
교통비	- 육상, 해상, 국내선 항공비
카렌트	- 자동차 임대 등
여행사 지불금액	- 여행사 지불 및 관련 정보비용
문화서비스업	- 입장료 등
운동 및 경기	- 골프 스키 수영 스포츠 등 비용
오락서비스	- 유흥, 놀이 공원 국제회의 등 기타 유흥비
소매업 (기념품 및 쇼핑비용)	- 농산물, 기념품 등
기타 비용	- 여행보험 수상스키, 스키 등 임대 - 회의 참가비 (등록비)

- 조사된 국제회의 참가자의 평균 총 지출경비는 미화 3,592달러이며, 이중 항공료를 포함하지 않은 개별 참가자의 평균 소비액의 경우 2,366달러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같은 해 방한한 일반 개별 관광객이 소비한 984달러와 비교하면 약 2.4배로서 국제회의산업이 관광산업 중에서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음
- 구체적 지출 항목으로는 등록비 371달러, 숙박료 836달러, 식음료 283달러, 현지교통비 96달러, 관광활동비 210달러, 문화활동비 114.9달러, 스포츠활동비 38.3달러, 레크레이션 활동비 19.15달러, 쇼핑비 266달러, 기타 132달러로 나타났음. 참가자의 형태에 따라 등록비가 면제되는 경우는 전체의 약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개최된 회의의 1인당 평균 등록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주최자의 순 수입 직접 소비지출은 해외 수입원(source of revenue)에 의한 것만 계상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외 참가자의 국제회의 참가비(등록비), 해외 후원업체 및 기관의 기금, 해외 전시참가업체의 전시회 참가비와 국제기구의 개최경비 분담금 및 광고비 등 기타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를 파악하기 위해 1차적으로는 행사 보고서 등 자료를 수집하였고, 2차적으로는 국제회의 주최자 및 담당 기획업체와의 면담을 통한 추가적 세부자료를 수집하였음. 그러나 대부분의 국제회의 수입 세부항목별 금액 파악이 곤란하여 해외 기업체의 후원금, 전시참가비 등에 대한 파악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음
- 도출된 국제회의 주최자 지출 항목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표 2-7> 국제회의 주최자 지출 항목 구성

구 분	내 용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회의 운영
숙박업	연사 초청
항공운송업	연사 초청
출판업 / 인쇄업 / 복제업	출판/인쇄
음식점업	연회 행사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	연회 행사
도로여객운송	기타 행사
전기통신공사업	주문 제작 / 장치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시청각 기자재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회의장 임차
사업시설유지 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현장 진행
사업서비스	홍보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PCO기획
기타	기타(본부납입금 등)

- 결과적으로 도출된 22건의 국제회의 주최자의 평균 총 소비지출은 6억4천8백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2004년 개최된 305건의 국제회의 중 300인 이상이 참석한 124건의 회의에만 대입하여 전체 주최자 소비 지출액을 추산하였음
- 추산된 총 소비 지출액은 648백만원이었으며, 세부항목별로는 회의운영 7,060백만원, 연사초청 4,458백만원, 항공운송 4,458백만원, 출판인쇄

6,165백만원, 연회행사 19,053백만원, 문화공연 2,177백만원, 기타행사 1,646백만원, 주문 제작/장치 5,124백만원, 회의장 임차 6,976백만원, 시청각기자재 5,315백만원, 현장진행 2,599백만원, 홍보 3,257백만원, PCO기획 10,016백만원, 기타(본부납입금 등) 2,116백만원으로 나타났음

- 상기 도출된 참가자 및 주최자의 지출액을 최종 수요로 하여 이를 통해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을 위해 분류된 산업의 생산, 고용, 소득, 부가가치, 수입, 간접세 유발 승수를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2004년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를 정부, 협회 그리고 학술회의로 구분하여 각 회의유형별 경제적 파급효과와 전체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분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하나는 국제회의 참가자와 주최자의 지출액을 모두 포함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임
- 첫 번째 분석에 이용된 총 참가자 수는 외국인 참가자 수에 총 내국인참가자 수의 15%를 가산하여 결정하였음. 그 이유는 해당 국제회의가 외국에서 개최되었을 경우 내국인 참가자가 해외로 나가는 비율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약 15%~20%로 조사되었고, 한국관광연구원(1999) 연구에 의하면 국내참가자의 지출액은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액에 1/4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입대체 효과라는 측면에서 국내참가자의 15%를 외국인 평균지출액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 참가자(외국인 및 내국인 15% 포함) 및 주최자 지출에 의한 투입·산출 분석

- 2004년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정부, 학회, 협회회의 포함)의 참가자와 주최자 지출을 합한 총 지출규모는 236,671.0백만 원으로 추정되었음. 도출된 승수효과에 의하여 이를 산업연관분석에서 국제회의 전체 산업의 최종수요(final demand)로 대입하여 유발효과를 산출하였음

- 국제회의 전체 지출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유발시킨 총 생산파급효과는 약 440,786.2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고용파급효과는 8,039명, 총 소득 파급효과는 88,653.4백만 원으로 나타났음
- 부가가치부문의 총 효과는 201,408.7백만 원으로 나타났고, 총 수입유발효과는 35,262.3백만 원, 총 간접세 파급효과는 18,036.5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37개 분류의 전 산업 파급효과 중 국제회의산업 분류 내 15개 산업의 직접파급효과와 국제회의산업 분류 외 간접파급효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들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국제회의를 정부회의와 협회회의, 그리고 학술회의로 구분하여 회의 유형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결과 학술회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크고, 다음 정부회의, 협회회의 순으로 분석되었음²⁾

2) 외국인 참가자 지출에 의한 투입·산출 분석

- 2004년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정부, 학회, 협회회의 포함) 외국인 참가자의 총 지출규모는 186,791.5백만 원으로 추정되었음. 도출된 승수효과에 의하여 이를 산업연관분석에서 국제회의 전체산업의 최종수요(final demand)로 대입하여 유발효과를 산출하였음
-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총 지출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유발시킨 총 생산파급효과는 약 349,082.0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고용파급효과는 6,288명 총 소득 파급효과는 69,106.6백만 원으로 나타났음
- 부가가치부문의 총 효과는 158,970.6백만 원으로 나타났고, 총 수입유발효과는 27,821.1백만 원, 총 간접세 파급효과는 14,323.3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세부 결과는 한국관광공사(2005),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

- 전체 국제회의를 정부회의와 협회회의, 그리고 학술회의로 구분하여 회의 유형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그 결과 학술회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크고, 다음 정부회의, 협회회의 순으로 분석되었음³⁾

나.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내 전시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05)

- 동 연구는 전시통계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통계자료를 통하여 각 주체별 전시회 관련 지출액을 추정한 후, 한국은행의 ‘2000년 기준 산업연관표’ 중에 개방모형,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분하여 작성한 비경쟁수입형표를 활용하여 2004년에서 2005년에 걸쳐 개최된 무역 전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였음
- 전시산업은 산업연관표상에서 하나의 경제부문으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에 전시산업 부문을 정의하고, 각 부문별 지출패턴(지출항목)을 토대로 전시부문을 분류하였음
- 전시산업은 크게 전시주최자(Organizer), 참가업체(Exhibitor), 그리고 참관객(Buyer or Visitor)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전시산업의 승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시산업의 구성 요소들이 산업연관표상 어느 경제부문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함
- 일반적으로는 지출패턴(항목)을 토대로 산업연관표상 경제부문과 매치(Match)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각 전시부문들이 산업연관표상 어느 부문에 주로 지출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임
- 전시주최자와 참가업체의 주요 지출부문은 전시장 임대료(산업연관부문: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전시 장치비(건설업), 광고비(통신 및 방송), 인쇄비(인쇄/출판/복제), 영상/음향/통신기기(전기/전자기기)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참가업체와 참관객의 주요 지출부문은 숙박비, 식음료비, 관광교통비, 문화오락서비스 부문임

3) 세부 결과는 한국관광공사(2005),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

- 특히, 외국인 방문자의 경우에는 숙박비와 식음료비 및 관광교통비(항공료 포함)의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됨

<표 2-8> 전시부문의 산업연관표상 지출부문

산업연관표 경제부문		전 시 산 업		
		전시주최자	참가업체	참관객
I-O Sector		지출부문	지출부문	지출부문
농림수산물				
광산물				
음식료품				
섬유/가죽제품				
목재/종이제품		○	○	
인쇄/출판/복제		●	●	
석유/석탄제품				
화학제품		○	○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	●	
정밀기기				
수송장비				
가구/기타제조업제품		㉠	●	
전력가스수도		㉠		
건설		●	●	
도매				
관광부문	소매(쇼핑)		㉠	㉠
	음식점	○	●	●
	숙박	○	●	●
	관광교통업		●	●
	문화오락서비스		㉠	㉠
운수/보관		㉠	㉠	
통신/방송		㉠	㉠	
금융/보험				
부동산/사업서비스		●	●	
공공행정/국방				
교육/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		㉠	㉠	
기타(사무/가계외)		○	○	

●: 지출부문(大) ㉠: 지출부문(中), ○: 지출부문(小)

- 다음의 표에서는 전시산업의 주요 지출항목을 산업연관표의 대분류 및 세분류와 연계하여 나타내었음
- 전시산업 관련 정확한 승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의 404 기본부문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령, 전시주최자의 전시장 임대료는 산업연관표 대분류의 경우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이지만, 세분류할 경우 부동산 임대업과 연계됨
- 또한, 광고선전비를 세분류할 경우 산업연관표상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그리고 광고와 연계될 수 있으며, 참관객의 경우에는 산업연관표상 숙박, 식음료, 관광교통, 문화오락서비스와 연계됨

<표 2-9> 전시산업의 주요 지출항목과 산업연관표 부문과의 연결

전시부문	주요 지출항목	산업연관표(I-O)	
		대분류(28부문)	세분류(404부문)
전시장 및 전시주최자	전시장 임대료	부동산/사업서비스(24)	부동산임대(359)
	전시장 설치비	건설(18)	철근철골조 비주택(314), 기타 비주택(315), 건축보수(316)
		섬유 및 가죽제품(04)	합성섬유직물(99), 기타섬유제품(110)
		목재 및 종이제품(05)	재생 및 강화목재(120), 인쇄용지(126), 종이문구 및 사무용지(130)
		가구 및 기타제조업(16)	목재가구(295), 금속가구(296), 악기(300), 문방구(301), 귀금속 및 보석(302), 모형 및 장식용품(303), 기타제조업제품(304)
	광고선전비	통신/방송(22)	지상파방송(350), 유선방송(351)
		부동산/사업서비스(24)	광고(367)
	인쇄비	인쇄/출판/복제(6)	출판(134), 인쇄(135), 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136)
	영업비	부동산/사업서비스(24)	소프트웨어개발공급(364), 컴퓨터관련서비스(365),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366), 광고(367), 정보제공서비스(368), 기타사업서비스(371)
	전기/전자기기	전기기계/장치(48)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249), 전선 및 케이블(250), 전구램프/조명장치(252), 기타전기장치(253)
		영상/음향/통신기기(50)	TV(262), VTR(263), 음향기기(264), 기타영상음향기기(265), 유선통신기기(266), 무선통신기기/방송장비(267)
		컴퓨터/사무기기(51)	컴퓨터/주변기기(268), 사무용기기(269)

전시 참가업체	부스임차료	부동산/사업서비스(24)	부동산임대(359)
	전기/전자기기	컴퓨터/사무기기(51)	컴퓨터/주변기기(268), 사무용기기(269)
	운수보관	운수/보관(65)	철도(333-334), 도로(335-336), 하역(343), 보관 및 창고(344)
	수송장비	수송장비(15)	화물자동차(283), 특장차(284)
전시 참가업체 및 참관객	숙박비	음식점/숙박(20)	숙박(332)
	식음료비	음식점/숙박(20)	음식점(331)
	관광교통비	운수/보관(21)	철도여객(333), 도로여객(335), 항공운송(339), 기타운수관련 서비스(345)
	쇼핑비	도소매(19)	소매(330)
	문화오락서비스	사회/기타서비스(27)	기타문화서비스(389), 영화(390), 연극/연극/예술(391), 기타오락서비스(393)

- 전시산업의 산업연관분석을 위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한 산업분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전국 산업연관표의 전시산업 분류를 별도로 분리하여 하나의 산업군으로 재분류·통합하였으며, 결국 전체 산업들을 28개 산업의 최종 산업군으로 분류하였음

<표 2-10> 전시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분류 체계

구 분	산 업 분 류
1. 농림수산물	0001 벼 ~ 0030 내수면 양식어종
2. 광산물	0031 무연탄 ~ 0045 기타 비금속광물
3. 음식료품	0046 도축육 ~ 0086 담배
4. 섬유 및 가죽제품	0087 견사 ~ 0117 기타 가죽제품
5. 목재 및 종이제품	0118 제재목 ~ 0132 기타 종이제품
6. 인쇄, 출판 및 복제	0133 신문 ~ 0136 기록 매체 출판 및 복제
7. 섬유 및 석탄제품	0137 연탄 ~ 0147 기타 석유 정제품
8. 화학제품	0148 석유화학기초제품 ~ 0177 기타고무제품
9. 비금속광물제품	0178 판유리 및 1차유리 ~ 0193 기타 토석제품
10. 제1차 금속	0194 선철 ~ 0214 기타비철금속 1차제품
11. 금속제품	0215 건물용 금속제품 ~ 0225 기타 금속제품
12. 일반기계	0226 내연기관 및 터빈 ~ 0245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13. 전기 및 전자기기	0246 발전기 및 전동기 ~ 0274 기타 가정용 전자기기
14. 정밀기기	0275 의료기기 ~ 0280 시계
15. 수송장비	0281 승용차 ~ 0294 자전거 및 기타 운수장비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295 목재가구 ~ 0304 기타 제조업 제품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305 수력 ~ 0311 수도
18. 건설	0312 철근철골조주택 ~ 0328 기타건설
19. 도소매	0329 도매
20. 운수 및 보관	0334 철도화물운송, 0336 도로화물운송, 0343 하역 ~ 0344 보관 및 창고
21. 통신 및 방송	0346 우편 ~ 0351 유선방송
22. 금융 및 보험	0352 중앙은행 및 은행예금취급기관 ~ 035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358 주택 소유 ~ 0365 컴퓨터 관련 서비스, 0367 광고 ~ 0371 기타사업서비스
24. 공공행정 및 국방	0372 중앙정부 ~ 0373 지방정부
25. 교육 및 보건	0374 교육기관 (국공립) ~ 0387 위생서비스 (산업)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395 기타 사회서비스 ~ 0400 가사 서비스
27. 기타	0402 사무용품, 0404 분류불명
28. 전시산업	0331 음식점, 0332 숙박 전체 및 404 각 산업분류 중 <표 2-11>에 의거한 생산액의 비율에 따른 추출

- 전시산업의 직접 소비지출은 일반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별로 광범위하게 세분화될 수 있으나, 동 연구에서는 전시주최자와 참가업체, 참관객 지출을 소수의 주요 산업별로 세분화하였으며, 총 직접 지출액은 지출원으로 구분하여 주최자는 자국내, 참가업체는 해외 및 국내, 참관객은 해외 및 국내로 세분화하였음
- 따라서 전시주최자에 의해 개최되는 국내 110개 전시회(한국전시산업진흥회 2005년 8월 집계) 참가업체는 국내 11,329개(전시산업 1개당 평균 103개), 해외 4,945개(전시산업 1개당 평균 45개), 참관객은 국내 3,704,204명(전시산업 1개당 34,002명), 해외 257,280명(전시산업 1개당 2,339명) 등 5개 주체로 분류하였음
- 전시주최자, 참가업체(국내/해외), 참관객(국내/해외) 지출액을 설문조사 하여 1개 또는 1명 당 평균 지출액을 산출하였음
- 실제 최종 수요 투입은 이미 연관 산업을 전시산업 항목으로 추출하여 합산하였기 때문에 평균 총 지출액에 업체 및 참관객수를 곱하여 추정하였음

<표 2-11> 직접지출액 및 최종수요

구분	직접지출액 평균(천원)	추정단위	최종수요추정(억원)	비고
전시주최자	991,205	110개	1,090	
참가업체	국내	11,684	11,329업체	1,324
	해외	5,659	4,945업체	251
참관객	국내	38	3,740,204명	1,260
	해외	1,801	257,280명	3,248

- 상기에서 도출된 전시산업의 최종수요와 경제효과 유발승수에 의해 전시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종 분석한 결과, 생산 유발효과 약 1조 3천5백억 원, 고용 유발효과 약 9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5천 8백억 원, 소득 유발효과 약 2천 3백억 원, 수입 유발효과 약 2천 1백억 원, 간접세유발효과 약 505억 원 수준 추정되었음

다. 한국관광연구원의 국제회의산업에 의한 경제효과 추정 (1998)

- 한국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가 전체적으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포함하는 국제회의산업에 의한 지출액은 2001년 13,279억 원, 2003년 14,972억 원, 2005년 16,730억 원으로 추정하였음
- 동 연구에서는 참가자 지출과 주최측 지출을 나누어 향후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예측치를 제시하였음

<표 2-12> 국제회의 개최관련 지출액 추정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3년	2005년
국제회의	참가자지출	2,418	2,789	3,160
	주최측지출	1,036	1,195	1,354
전시회	참가자지출	9,521	10,648	11,838
	주최측지출	304	340	378
계		13,279	14,972	16,730

주: 한국관광연구원(1998),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안)」의 내용을 재구성

-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지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국제회의 개최로 인해 2005년 동안 6,048억 원의 생산유발, 1,128억 원의 소득창출, 151억 원의 조세증대, 7,676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음. 한편 전시회 개최로 인해서는 2005년 동안 16,369억 원의 생산유발, 4,092억 원의 소득창출, 4091억 원의 조세증대, 20,775명의 고용 창출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음



<표 2-13> 국제회의 개최관련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억원, 명)

구 분		2001년	2003년	2005년
국제회의	생산유발효과	4,628	5,338	6,048
	소득창출효과	863	996	1,128
	세수증대효과	116	133	151
	고용창출효과	5,874	6,775	7,676
전시회	생산유발효과	13,165	14,724	16,369
	소득창출효과	3,291	3,681	4,092
	세수증대효과	329	368	409
	고용창출효과	16,708	18,687	20,775

주: 한국관광연구원(1998),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안)」의 내용을 재구성

- 동 연구는 국제회의 산업육성을 위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한 연구로, 수요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 예측된 경제적 파급효과의 신뢰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2. 해외 연구사례⁴⁾

가. 미국 CIC(Convention Industry Council)의 연구 (1995)

- 미국 CIC(Convention Industry Council)는 1995년 미국의 컨벤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발표하였음
- 여기서 컨벤션이라 함은 국제회의, 전시, 회의, 인센티브관광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제회의는 국제기구나 단체의 모든 회원에게 참가 기회가 주어지는 회의라 정의하였으며, 전시회는 특정부분의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라고 규정하였고, 회의(meetings)는 국제회의 이외의 회의로 단체나 기업이 사무실 밖의 회의장에서 1일 이상 개최하는 집회, 행사, 회의로 구분하고, 인센티브관광(Incentive Travels)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한 직원이나 대리점에 대해 보상으로 제공하는 여행 프로그램이라 규정하였음

4) 본 해외 연구사례는 한국관광공사(2005)가 발간한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회의, 전시회, 회의 및 인센티브여행 참가자, 단체, 전시자, 기업의 직접소비지출은 미화 828억 달러로 산업부문별 순위에서 22위를 차지하였음. 그리고 직접소비액에 의해 15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직접 세수효과는 미화 123억 달러로 나타났음
- 직접소비지출은 주최자, 참가자, 전시자로 구분되지 않고, 호텔 및 회의장업, 항공업, 식당업, 육상교통업, 소매업, 사업서비스업, 문화/오락업, 장비임대업, 유람선업, 판촉업, 광고업, 부대경비, 기타로 세분화하였음

나. Braun의 국제회의 산업이 가지는 경제적 기여도 분석 (1992)

- Braun은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미국 Florida주 Orlando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소비지출의 형태를 참가자, 협회, 전시자로 구분하였으며, 참가자의 총 소비지출을 숙박, 음식점, 소매점, 문화오락과 현지교통으로 세분화하였고, 협회의 소비지출은 연회/케이터링, 회의장/전시공간/기자재 임차 및 서비스, 직원 인건비, 연사료/엔터테인먼트/동반자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전시자 지출은 판촉식음료 서비스, 호스피탈리티 룸 운영, 계약서비스, 기타로 분류하였음
- 국제회의 소비지출은 미화12억 달러로 65,000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이외에도 4.6억불 소득, 23억불 생산, 88백만불 지방세 및 15백만불 주세의 경제적 기여도를 확인하였음. 그러나 올랜도 지역의 특성상 국제회의 지출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건강서비스, 수리서비스,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총 경제적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은행, 법률서비스, 보험, 운송 및 창고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32개 부분을 고려함으로써 경제 효과가 과다 평가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Kim, Chon and Chung, 2003)



다. 일본의 국제회의 경제효과 측정 연구 (1996)

- 일본 컨그레스·국제회의부로, 일본관광진흥회, 국제회의관광도시가 1996년 공동으로 발표한 국제회의에 의한 경제효과 측정에 따르면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게 시설 건설 효과와 회의 개최 효과로 구분되고 있음
- 즉 국제회의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대형시설로서 건설 공사발주 그 자체가 지역경제를 윤택하게 함. 도시권에서 백억 엔(¥)이 투자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생산유발액은 216억 8천만 엔, 고용 창출효과는 전국적으로 2150명, 현(縣) 차원에서는 1,570명, 세수 효과는 국세 5억 2천만 엔, 시세 7억 3천만 엔 등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국제회의 개최 효과 측정에서는 국제회의 개최에 관련된 경비와 참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비로 구분하였음

라. Mistils & Dwyer의 연구 (1999)

- Mistils와 Dwyer는 MICE산업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와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에서 국제회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모형(framework for regional economic impact assessment)을 개발하고, 호주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음
- 먼저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측정모형은 총직접지출, 총직접고용, 지출원별 총직접지출, 순주입직접지출(지역내), 직접고용(지역내), 경제승수, 총부가가치, 총고용 등 부문으로 구성하였음

- 총 직접지출액(gross direct expenditure)은 방문객과 주최자/전시자로 구분하고, 산업부문별로 숙박, 회의장, 국내선 항공, 기타 지상교통, 식당, 쇼핑, 엔터테인먼트, 사업서비스, 기타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또한 총 직접지출액을 지출원(origin of expenditure)에 따라 지역, 자국 내 타 지역, 해외로 세분하였음. 특히 방문객의 경우는 지역 내에서 지출된 금액과 지역 밖에서 지출된 금액을 구별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전/후와 기간 중 지출 구별하였음
- Mistils와 Dwyer는 지역 내 순 주입 직접소비지출(net injected direct expenditure within region)의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는 국제회의 관련 지출에 의해 발생하는 지역 내 경제활동에 대한 순 추가분임
- 지역으로의 수입에 대한 지출은 새로운 산출로 타 지역에 수입(income)을 발생시키므로 수입 누수(leakage of income)로 간주하며, 국세의 경우 세금을 지역에서 소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누수로 간주하였음
- 한편 또 다른 호주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사례연구에서는 각 주의 도시 등 관광관문 도시와 외곽도시 간 방문객 체재일수와 총 직접지출액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기반자료는 호주 관광조사국(Bureau of Tourism Research)의 국내관광 조사(Domestic Tourism Monitor, 1994-1995)와 국제방문객 설문조사(International Visitor Survey, 1995) 결과를 활용하였음
- 국내관광 조사는 호주 전국에 걸쳐 65,0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설문조사 결과이며, 국제방문객 설문조사는 호주의 주요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12,000명의 국제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 따라서 동 연구의 국제회의 방문객은 방문의 주목적이 국제회의 참가이거나 여행 중 국제회의에 직접 참가하거나 동반하였다고 응답한 자로 정의하였음



- 분석결과 호주의 관문도시(gateways)와 비관문도시(non-gateways)간 방문객 체재일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특히 외래 국제회의 참가자는 국내 국제회의 참가자에 비해 비관문도시에서의 체재일수가 적으며, 외래 국제회의 방문객의 관문도시에서의 체재일수는 비관문도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국내와 해외의 국제회의 참가자는 일반 방문객보다 관문도시에서의 체재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방문객 지출 측면에서는 국내 국제회의 참가자의 총 직접 소비지출이 외래 국제회의 참가자보다 많으며, 호주의 관문도시에서의 국제회의 관련 총 직접 소비지출은 비관문도시보다 많았음
- 국내 국제회의 참가자의 소비지출은 관문도시나 비관문도시에 상관하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외래 국제회의 참가자 소비지출 경우에는 관문도시에서 비관문도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제회의관련 소비지출의 60%인 12억 호주달러가 국제회의 개최지 외부로부터 창출된 것으로, 호주 내 다른 지역으로부터 8억9천 호주달러, 그리고 해외로부터 3억 5천 호주달러가 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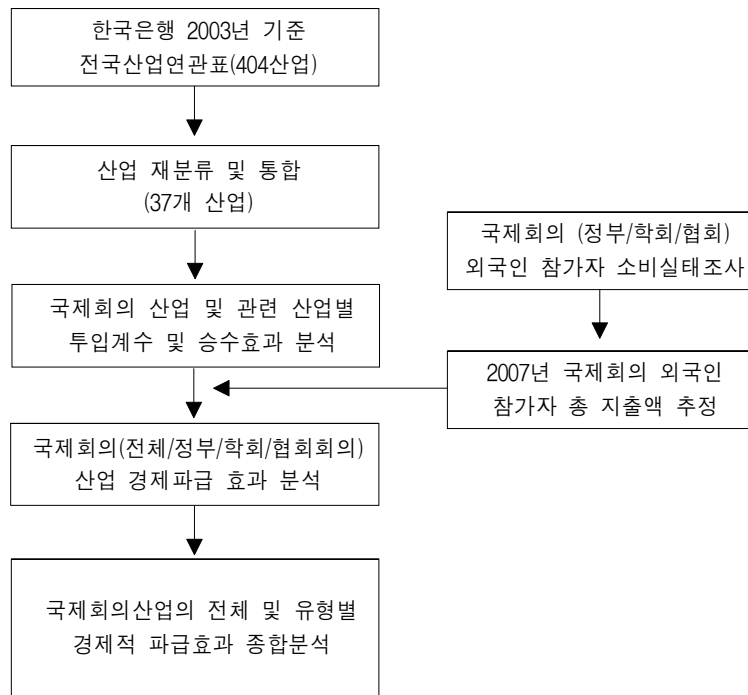
PART III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

-
-
- 1.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체계
- 2. 국제회의산업 분류

제 3장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

제 1절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체계



[그림 3-1] 산업연관분석 체계도

1. 산업연관분석 이용

-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경제기반모델, 수입-지출모델, 그리고 산업연관모델이 있음. 전자의 두 모델은 주로 소규모 지역경제 분석에 이용되지만,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기법임(Fletcher, 1989)
- 국제회의산업과 관련한 지출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투입액에 따른 경제파급의 승수효과 분석이 널리 쓰이는데, 산업연관분석이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임

- 산업연관분석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바실리 레온티예프(Wassily Leontief) 교수에 의해 1930년대에 개발된 계량경제 분석기법으로서 1951년 미국에서 “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1919-1939 2nd edition revised”가 발표된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한국에서도 1960년 이후 한국은행에서 산업연관표를 작성·발표해 오고 있음
- 산업별 생산활동은 최종수요의 상품구성은 물론 각 산업의 생산기술구조와 그에 따른 각 산업 간의 직·간접적인 상호연관관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산업과 산업 간의 관계를 산업연관표로 작성하여 수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분석방법이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Analysis)임
- 산업연관분석은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 분석기법으로 최종수요가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음
-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은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어 경제계획의 수립과 예측 그리고 산업구조정책방향 설정이나 조정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07)
-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국제회의산업의 경제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의 기초자료로 한국은행이 발간한 ‘2003년 기준 산업연관표’ 중에 개방모형,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분하여 작성한 비경쟁수입형표를 사용하였음⁵⁾

5) 외국과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방경제를 대상으로 산업연관표를 작성할 경우, 수입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표의 형태도 달라지는데 크게 경쟁수입형표와 비경쟁수입형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쟁수입형표는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가 같으면 그것이 국내생산품인지 또는 수입품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각 수요부문에 일괄 기록(배분)하여 작성하는 표를 말하는 반면 비경쟁수입형표는 동종의 재화일지라도 국산품과 수입품을 (계속→

- [그림 3-1]은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과 타 산업간 경제파급효과 분석의 체계임

2. 산업연관분석 방법

- 산업연관분석은 일국의 경제구조분석, 경제정책의 파급효과 측정과 더불어 경제계획수립의 기초자료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관광산업과 관련이 높은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등의 경제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도 적용되고 있음
- 산업연관모델은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래 관광수입을 포함한 수출이나 민간소비지출과 같은 최종수요의 증가로 전체 산업에 파급시킨 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는 데는 몇 가지 가정이 있음. 이는 ① 투입(기술)계수 불변의 가정, ②투입요소의 완전탄력적 공급 가정, ③ 비결합생산의 가정(어떤 특정산업은 특정생산물만을 산출)임(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07)
- 여기서 투입계수는 한 산업부문이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함에 따라 파급되는 직접효과를 나타내며, 산업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하는데 기초가 되며, 생산유발계수는 산업 간의 연쇄파급으로 인한 직간접효과 또는 직간접 및 유발효과를 나타냄
- 산업연관분석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기록한 산업연관표로부터 투입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도출되는 생산유발승수 등 각종 분석

구분하여 작성한 표를 말함. 경쟁수입형표와 비경쟁수입형표의 이용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경쟁수입형표에서는 최종수요의 변동에 따른 생산파급효과 중 수입에 의해 해외로 누출되는 부분(수입유발효과)을 가려내기 곤란한 반면, 비경쟁수입형표에서는 각 산업부문별 수입품 투입구조가 파악되므로 수입유발효과의 측정이 가능하게 됨. 따라서 비경쟁수입형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생산파급효과를 국내생산유발(파급)효과와 수입유발효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음(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07)

승수를 이용한 경제 분석 방법으로써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유발승수들은 최종수요로부터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승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 케인즈의 투자승수와 구별하여 다부문승수 (multi-sector multiplier) 혹은 레온티에프 승수(Leontief multiplier)라 하는데, 각 산업부문의 원재료 투입구성비를 나타내는 투입계수의 산출로부터 산업연관분석이 시작되며 그 투입구조가 일정기간 안정적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고, 생산유발승수는 최종수요의 변동에 따른 각 부문의 직·간접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산업연관분석에서 중심적 역할을 함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1987)
-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학적인 방법인 역행렬을 이용해 구한다 하여 역행렬계수라고도 함 (이강욱·류광훈, 1999). 생산유발계수 도출과정을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으며, 수식에서의 $(I-A)^{-1}$ 행렬이 생산유발계수 행렬임

$$AX+Y-M=X$$

$$X-AX=Y-M$$

$$(I-A)X=Y-M$$

$$X=(I-A)^{-1}(Y-M)$$

단, A: 투입계수행렬, X: 총산출액 벡터, Y: 최종수요 벡터, M: 수입액 벡터, I : 항등행렬, $(I-A)^{-1}$: 생산유발계수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다음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이때, $\hat{A}^V (I-A^d)^{-1}$ 이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임

$$\hat{A}^V X = V$$

$$(I-A^d)^{-1} Y^d = X \text{ 를 대입,}$$

$$\hat{A}^V (I-A^d)^{-1} Y^d = V$$

단, $\hat{A}^V$ 는 부가가치합계 대각행렬, V 부가가치합계의 벡터

- 노동유발계수 또는 고용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경우 각 산업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인 노동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도출함
- 이때 노동유발계수에서 노동계수를 제한 나머지가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간접노동유발을 의미하며, 노동계수는 1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며, 노동계수식은 다음과 같음

$$l = \frac{L}{X}$$

단, l 은 노동계수, L 은 투입노동량, X 는 총산출액

- 앞에서의 노동계수를 생산유발계수에 대입하여 노동유발계수를 도출하였고, 식은 다음과 같으며, $\hat{l}(I - A^d)^{-1}$ 가 노동유발계수 행렬임

$$l = \frac{L}{X} \text{ 을 풀면 } L = l \cdot X \text{ 가 되며, 여기에}$$

$$X = (I - A^d)^{-1} Y^d \text{ 를 대입하여 풀면}$$

$$L = \hat{l}(I - A^d)^{-1} Y^d$$

- 국제회의 참가자의 관련 지출액을 국제회의산업의 최종수요로 보고 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된 유발계수행렬에 적용함으로써 타 산업에 파급되는 경제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⁶⁾
- 국제회의산업 부문의 관련 지출에 의하여 유발된 생산유발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제회의 관련 지출액을 최종수요에 대입한 후 타산업의 최종수요를 “0”으로 처리하여 생산유발계수행렬에 최종수요의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 국제회의산업의 지출액에 의한 생산유발액을 계산할 수 있음(이강욱, 1997)

6)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은행(2007)에서 출간한 ‘산업연관분석 해설’을 참조.

-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I-A)^{-1} \times C = O$$

- 단, $(I-A)^{-1}$: 생산유발계수행렬
 C : 국제회의 관련 지출액의 열행렬
 O : 생산유발효과의 열행렬

- 유사한 방법으로서, 고용효과·소득효과·부가가치 효과도 위의 식에 고용유발계수, 소득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등을 적용하면 국제회의 산업에 의한 타 산업으로서 이들 분야의 경제파급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

3. 국제회의산업의 최종수요(final demand) 추정

가. 직접 소비지출

1) 총 직접 소비지출(gross direct expenditure)

- 직접소비지출은 총 직접 소비지출(gross direct expenditure)과 순 주입 직접소비지출(net injected direct expenditure)로 구분될 수 있음
- 직접소비지출은 일반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별로 광범위하게 세분화될 수 있으나, 본 연구 목적상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은 소수의 주요 산업별로 세분화함
- 총 직접 지출액은 지출원(origin of expenditure)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 경제효과 측정의 경우 참가자를 지역내, 자국내 타지역, 해외로 세분화할 수 있으나,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하는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를 국내와 해외로 세분화하였음

- 도시지역 경제효과 측정의 경우, 자국 내 타지역과 해외로부터의 방문객 소비지출은 지역 내에서 지출된 금액과 지역 외에서 지출된 금액을 구별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전·중·후 지출로 구분하고 국제회의 참가자가 방문한 장소를 조사해야 함
- 그러나 본 연구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국제회의 전·중·후 지출을 구분하지 않았음

2) 순 투입 직접소비지출(net injected direct expenditure)

- 본 연구의 목적 상 지역 경제에 대한 투입은 지역 국제회의 참가자의 지출에서 기인한 것임
- 국내거주자의 국제회의관련 지출은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부터 전환된 것이므로 국내에 거주하는 참가자에 의한 지출은 순 투입 직접소비지출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국제회의 참가자와 동반자에 의한 지출만을 계상함
- 순 투입 직접소비지출은 또한 국제회의가 다른 지역에서 개최될 경우에도 소비지출을 할 개인이나 기업에 의한 유보지출(retained expenditure)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보지출은 국내 국제회의 참가자에 해당되며,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의 수입대체(import replacement) 기능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 국내 국제회의 참가자 중 국제회의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개최되더라도 참가할 참가자 수와 그 지출액 정도는 파악⁷⁾이 곤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계상하지 않았음

7) 우리나라 참가자가 해외로 국제회의에 참가하였을 경우의 소비지출 내역 및 규모는 국제회의의 유형 및 참가 유형에 따라 다르며, 국제회의 개최지의 서비스 및 상품 구조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해외 개최 시 국내 참가자의 유보지출 규모는 파악에 현실적 한계가 크다고 판단함



- 한편 지역 경제로부터의 주요 누출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혹은 연방 정부) 및 지자체 (혹은 주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그리고 지역 외에서 생산된 수입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불금에 의해 발생됨
-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지역거주자에게로의 수입이나 지역 내에서만 재 소비될 수 없기 때문에 수입 누출로 간주할 수 있으며, 지역으로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다른 지역에 새로운 산출과 수입(income)을 발생시키므로 국제회의 개최지역으로 부터의 수입 누출(leakage of income)이 될 수 있음

제 2절 국제회의산업 분류

1. 국제회의산업 분류 체계

- 본 연구는 기존 연구⁸⁾와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시계열적 연구의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후속연구로서의 발전된 연구결과 도출을 하기 위해 기존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제회의산업 분류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침
- 수정·보완된 첫 번째 사항은 국제회의산업의 최종 수요분석에 있어서 주최자 지출액을 제외하였고, 두 번째 사항은 최종 수요분석에서 항공요금을 포함한 교통 관련 지출을 제외하였음

가. 최종 수요 추정에서 주최자 지출 분석 제외

- Burgan과 Mules(1992)는 이벤트 개최에 따른 정확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개최되지 않았더라면 발생되지 않았을 수요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음
- 이는 만일 이벤트와 무관한 수요를 경제효과 분석에 투입한다면 그로 인한 산출이 본래 이벤트로 발생된 순수 경제효과보다 과대평가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임
- 산업연관분석에 투입될 국제회의산업의 최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회의산업에서 지출된 항목에 대한 지출원(origin of expenditure)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중 지출원이 지역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해외 지출원에 의한 것만 계상해야만 함

8) 여기서 기존 연구라 함은 한국관광공사(2005).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를 말함

- 따라서 지역 내 수입원(source of revenue)에 기초한 주최자와 전시참가업체의 지출은 다른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부터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여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만일 최종 수요에 지역 내 수입원이 존재하게 되면 분석결과는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연구에서 분석된 경제적 파급효과 중 한 해 124건⁹⁾의 국제회의 주최자 총 지출액을 추정하여 최종 분석에 주입한 것은 국제회의산업의 최종 수요에 대한 이중계산(double counting)과 분석된 경제효과의 과대추정이라는 문제점을 인지하여 주최자 지출액을 제외하였음
- 이는 컨벤션 주최자의 수입-지출구조 및 그 특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파악에 의해 나타났음. 기존 연구에서는 ‘주최자의 해외 수입원은 해외 참가자의 국제회의 참가 등록비, 해외 후원업체 및 기관의 기금, 해외 전시참가업체의 전시회 참가비와 국제기구의 개최경비 분담금 및 광고비 등 기타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참가자의 등록비와 후원 기금, 전시회 참가비 등 주최자의 수입은 대부분 국제회의의 개최 경비로 충당되므로 주최자의 해외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입 총액을 순 투입 직접 지출로 계상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음
- 그러나 주최자의 해외 수입원으로 계상된 해외 참가자의 국제회의 참가 등록비와 연관된 사항으로 국제회의의 외국인 참가자의 소비 지출액을 조사하여 최종수요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상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고 있음
- 등록비를 제외한 나머지 해외수입원에 대한 지출 규모 추정도 많은 현실적 제약을 가지며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9) 2004년 총 국제회의의 개최건수는 305건으로 집계되었으나 국제회의의 소비실태조사가 이루어진 22개의 국제회의는 UIA의 국제회의 통계 기준에 부합하는 회의를 조사한 것으로 도출된 회의 1건당 평균 주최자 지출액을 한국관광공사의 국제회의 통계 기준으로 집계한 305개의 모든 회의에 대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305건 중 UIA기준에 부합하는 145개의 회의만을 1건당 평균 주최자 지출액에 계상하였음. 이는 정확한 총 주최자 지출 규모를 추산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연구 목적 상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2005),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를 참고

- 기존 연구에서는 2차례에 걸쳐 국제회의 주최자 지출 자료를 수집하고
자 노력하였으나, 대부분 국제회의의 수입 세부항목별 금액 파악이 곤
란하여 해외기업체의 후원금, 전시참가비 등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외에도 해외 기업 및 기관의 국제회의 개최와 연계한 행사 실시예
따른 소비지출도 순 투입 직접지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상과 같
이 전시참가업체 및 해외 기업/기관의 국제회의 연계 소비 지출현황
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주최자 및 담당 국제회의기획업체 등과
자료 수집을 논의하였으나 행사가 이미 수개월 전에 완료되어 관련
지출현황은 파악될 수 없어 국제회의산업 지출 중 주최자의 정확한
지출원을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이에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국제회의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15개 산
업분류에서 주최자 지출과 관련된 인쇄, 출판 및 복제, 통신 및 방송,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사업 및 기타 서비스 등 4개 부문을 제외하였음

나. 국제회의산업 분류에서 교통(항공, 항만, 철도 등) 부문 제외

- 기존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소비지출항목에 항공료를 포함하였으며, 이
를 최종수요에 포함하여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그러나 항공료의 경우 외국인 참가자가 국내항공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그 지출액이 국내 경제로 유입되지 않고 해외에서 사용되기 때문
에 국내 경제효과를 일으키는 최종 수요로 포함될 수 없음
- 또한 국내 여행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파악이 어렵고 그 수요가 많지
않아 국제회의산업의 분류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미
미하므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외국인 참가자가 국제회의 참가 전·후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
우 주로 여행상품을 구매함에 따라 개별적인 국내항공 지출 또는 육상

교통 지출 파악이 어렵고 그 수요가 미약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제회의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분류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보다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반면에 차량대여업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참가자가 지출한 경우 확실한 해외 지출원으로 간주하여 국내 경제효과를 일으키는 최종 수요로 포함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국제회의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15개 산업분류에서 운수 및 보관업, 운수보조 등 2개 부문을 제외하였음

다. 본 연구의 국제회의산업 분류 체계

- 상기의 두 가지 사항을 제고하여 기존 2005년 연구의 국제회의산업 분류 체계를 다음 표와 같이 수정·보완하였음

<표 3-1> 2007년 본 연구의 국제회의산업 및 연관산업 분류 체계

산업 구분	세부 산업 구분	
국제회의 간접 연관 산업	농림수산물	일반기계
	광산물	정밀기기
	음식료품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전력, 가스 및 수도
	목재 및 종이제품	건설
	석유 및 석탄제품	도소매
	화학제품	여객운송
	비금속광물제품	금융 및 보험
	제1차 금속	공공행정 및 국방
	금속제품	교육 및 보건
	전기 및 전자기기 (반도체)	수송장비 (승용차)
	인쇄, 출판 및 복제	운수보조
	통신 및 방송	운수 및 보관
	부동산 및 임대사업 서비스	사업 및 기타 서비스
국제회의 직접 연관 산업	숙박업	문화공연
	식음료업	운동·경기
	여행업	오락·유흥
	소매업(쇼핑)	기타
	차량임대	

국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PART IV

우리나라 국제회의산업 현황 및 참가자 소비지출액 조사

-
-
- 1. 우리나라 국제회의 개최 현황
- 2. 국제회의 참가자 소비지출액 조사

제 4 장 우리나라 국제회의산업 현황 및 참가자 소비지출액 조사

제 1 절 우리나라 국제회의 개최 현황

1. 세계 국제회의 시장에서 한국의 성과

<표 4-1> 세계 국제회의 시장 현황 (2003년~2007년)

	2007			2006			2005			2004			2003	
	개최수	점유율	점유율 변동	개최수	점유율	점유율 변동	개최수	점유율	점유율 변동	개최수	점유율	점유율 변동	개최수	점유율
EU	5,550	53.8	4 ▽	6,035	57.8	2.3 ▲	6,375	55.5	0.2 ▽	67,50	55.7	1.4 ▽	7,071	57.1
AM	1978	19.2	0.1 ▽	2,013	19.3	2.1 ▽	2,453	21.4	0.7 ▽	2,685	22.1	0.8 ▽	2,828	22.9
AS	2,052	19.9	4.3 ▲	1,634	15.6	0.1 ▽	1,800	15.7	1.5 ▲	1,716	14.2	2.1 ▲	1,500	12.1
AU	334	3.2	0.4 ▲	292	2.8	0.1 ▲	314	2.7	0.4 ▽	381	3.1	0 ■	380	3.1
AF	404	3.9	0.6 ▽	469	4.5	0.2 ▽	542	4.7	0.2 ▽	591	4.9	0.1 ▲	597	4.8
전체	10,318	100		10,443	100		11,484	100		12,123	100		12,376	100

주 1: UIA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for year 2007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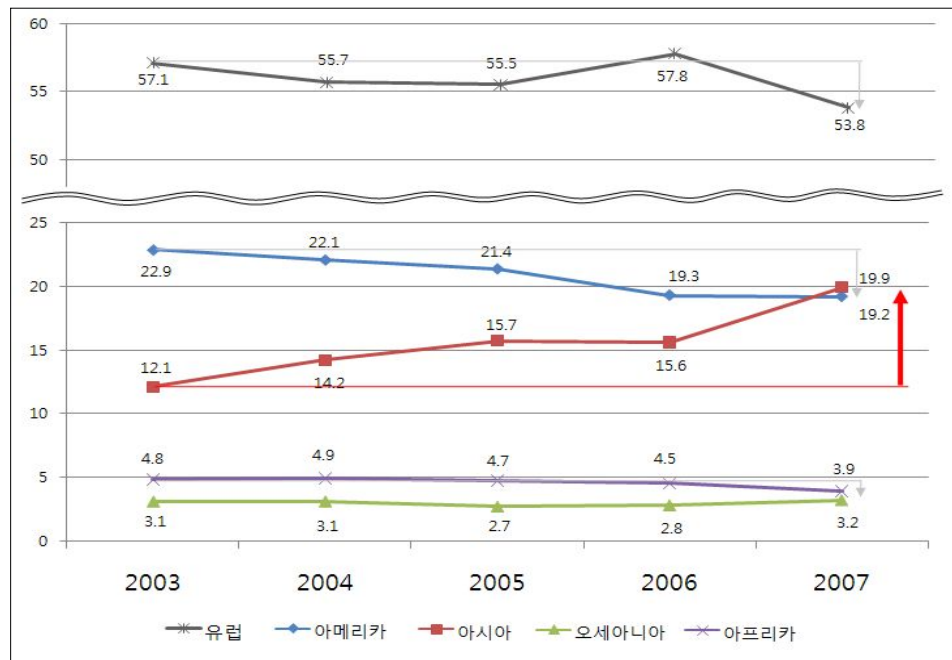
주 2: EU=유럽주, AM=아메리카주, AS=아시아주, AU=오세아니아주, AF=아프리카주

- 세계국제기구연합(UIA,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기준¹⁰⁾의 세계 국제회의 개최 순위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동안 전 세계에 걸쳐 개최된 국제회의는 총 10,318건으로 작년 개최횟수(10,443건)대비 1.2%가 감소하였음

7) ①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② 국제기구에 소속된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국내회의 가운데 전체 참가자수가 300명 이상, 참가자중 외국인이 40% 이상, 참가국수 5개국 이상, 회의기간이 3일 이상인 회의

- 최근 5년간 개최횟수를 비교할 때에도 연 평균 3.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의 국가 및 도시지역들 간, 개방화와 블록화가 가속화되며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국제회의 시장의 중요성은 보다 가중되고 있으나,
- 유추하건 데, 기존에 분할되어 있던 국제기구들의 통합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더불어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사람, 화물, 정보 또는 지식 등의 이동이 용이해지면서 국제회의 시장 역시 상당수 통합화가 일어나게 되어 전체 국제회의 개최횟수는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4-1] 대륙별 세계 국제회의 시장 점유율 변화 (2003년~2007년)

- 대륙별 세계 국제회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세계 국제회의 시장 규모의 감소 추세와 일맥상통하여 유럽과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의 대륙이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임
- 아시아 지역만은 2007년에도 유일하게 지속적인 개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는 아시아가 정치·경제·문화에 있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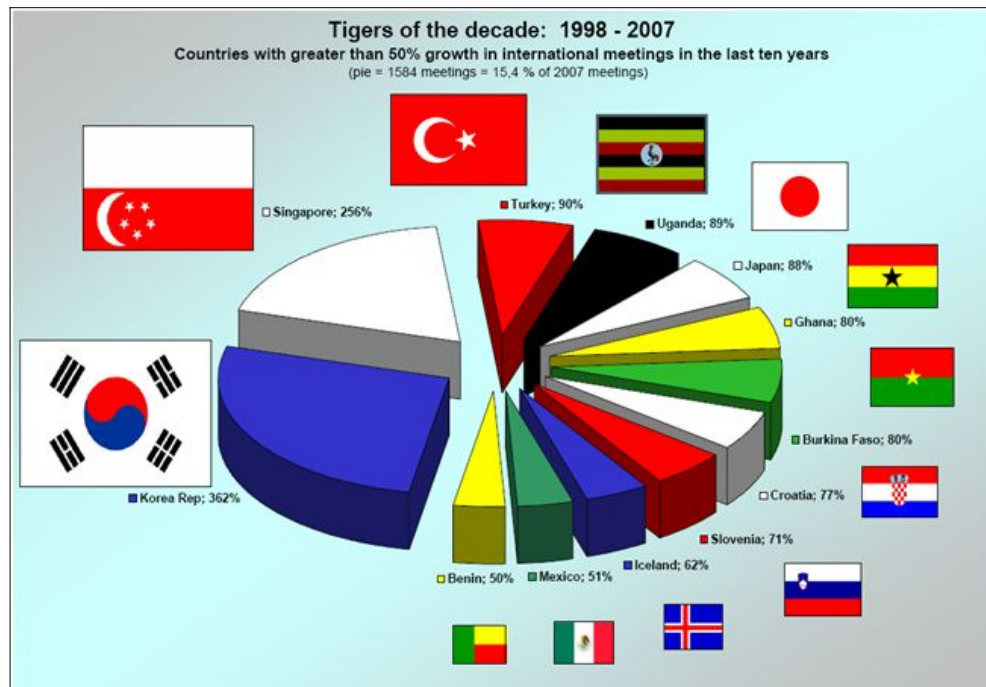
-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최 및 방문 비용, 그리고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국제회의 유치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됨
- 아시아지역의 개최건수는 2,052건으로 전년 대비 1,634건 보다 25.6%가 증가하였으며, 미주 지역을 제치고 유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지역으로 부상하였음

<표 4-2>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건수에 따른 순위 (2003년~2007년)

	2007		2006		2005		2004		2003	
	개최수	순위	개최수	순위	개최수	순위	개최수	순위	개최수	순위
미국	1,114	1	1,108	1	1,422	1	1,581	1	1,582	1
프랑스	598	2	699	2	752	2	743	2	829	2
독일	523	3	519	3	527	3	633	3	633	3
싱가포르	466	4	300	11	216	15	170	19	142	21
일본	448	5	213	17	224	14	267	14	280	13
네덜란드	423	6	415	5	388	7	308	11	344	9
이탈리아	414	7	384	8	482	5	492	5	605	4
스페인	393	8	408	7	440	6	453	6	454	6
오스트리아	366	9	414	6	345	8	315	9	313	11
영국	327	10	426	4	517	4	500	4	555	5
벨기에	307	11	284	12	310	10	369	8	371	8
스위스	284	12	320	10	318	9	391	7	387	7
캐나다	275	13	265	14	286	12	303	12	315	10
호주	272	14	245	15	233	13	283	13	288	12
한국	268	15	243	16	206	16	177	17	140	23
중국/홍콩/마카오	255	16	267	13	297	11	314	10	167	16
필란드	200	17	339	9	140	20	174	18	202	15
포르투갈	188	18	138	20	148	18	180	16	159	17
스웨덴	183	19	194	18	194	17	191	15	272	14
노르웨이	132	20	96	23	133	22	134	23	152	18

주: UIA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for year 2007 통계 재구성

- 2007년 간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 순위를 보면, 1위 미국 1114건, 2위 프랑스 598건, 3위 독일 523건의 순으로, 최근 5년(2003년~2007년) 동안 4위권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상위 3개국 순위를 유지해 왔으나 그 개최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특히 기존 11위(300건)였던 싱가포르가 단숨에 4위(466건)로 급상승하며 독일과의 격차를 불과 60여 건으로 줄여 세계 국제회의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최근 5년간 추세를 볼 때도 연 평균 45.6%라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관광·컨벤션·전시를 종합화하는 MICE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 Exhibition) 육성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일본 역시 2006년 이전까지는 중위권이었으나 2007년 448건을 개최하며 세계 5위로 무려 12계단 수직 상승하였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음. 일본의 국제회의 시장은 불과 2006년까지만 해도 개최건수가 계속 감소세를 보여 왔기에 2007년 개최 결과의 상승은 한국을 포함하여 주변 경쟁국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68건을 개최함으로써, 전년(세계16위) 대비 1단계 상승한 세계 15위를 차지하였음.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왔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제치고 2006년에 이어 아시아 3위의 국제회의 시장을 유지하였음
- 고무적인 것은 한국의 국제회의 산업이 지난 10년(1998년~2007년)동안 국제회의 개최건수에 있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다는 점임. 이는 우리나라 국제회의 산업이 짧은 육성 기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성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현재를 기반으로 향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평가함



자료: UIA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for year 2007

[그림 4-2] 1998년~2007년의 국가별 컨벤션 개최 성장률

-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순위를 보면,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1위(465건)를 기록한 가운데, 전년도까지 부동의 1위를 지키던 파리가 2위(315건)로 한 계단 하락하였고, 빈이 3위(298건)를 기록하였음. 우리나라의 서울은 총 121건을 개최하며, 도쿄에 이어 9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아시아 3위의 기록임
- 2005년까지 세계 국제회의 시장은 뉴욕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상위 10위권을 모두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였으나, 2006년 서울이 세계 10위로 올라선데 이어 2007년 도쿄가 14 계단이라는 큰 상승폭을 기록하며 8위로 올라섬에 따라 3곳의 아시아 도시가 세계 상위 10위권에 위치하게 되었음
- 서울은 2004년에 114건을 개최로 세계 13위를 개최하며 전년 대비(86건, 세계 21위) 급상승을 보이며 세계 속의 국제회의 도시로의 도약을 시작했음. 비록 2005년 잠시 주춤하였으나 2006년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이내 2007년 또 한 계단을 상승하여 세계 9위를 기록하

며 세계 10위권을 유지, 명실상부한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음

- 한편 우리나라는 서울 이외에도 제주가 50건을 개최하며 세계 39위, 아시아 10위를 차지하였고, 또한 부산은 42건을 개최하며 세계 45위, 아시아 11위를 차지하였음. 한 국가에서 3곳 이상의 도시가 세계 50위권 이내의 국제회의 개최건수를 기록한 곳은 미국(4곳), 네덜란드(4곳), 캐나다(3곳), 스페인(3곳), 일본(3곳) 등 한국을 포함 6개국뿐임

<표 4-3>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건수에 따른 순위 (2003년~2007년)

	2007		2006		2005		2004		2003	
	개최수	순위	개최수	순위	개최수	순위	개최수	순위	개최수	순위
싱가포르	465	1	300	3	216	4	170	5	142	8
파리	315	2	389	1	375	1	299	1	336	1
빈	298	3	330	2	258	2	235	3	204	4
브루셀	229	4	206	4	229	3	251	2	247	2
제네바	170	5	186	5	175	6	216	4	220	3
바르셀로나	161	6	148	7	176	5	158	7	143	7
뉴욕	128	7	96	15	144	8	115	12	131	10
도쿄	126	8	67	22	75	21	66	24	63	26
서울	121	9	128	10	109	14	114	13	85	21
암스테르담	120	10	132	9	117	10	116	11	101	16
베를린	115	11	107	12	118	9	140	9	142	9
리스본	104	12	67	23	74	22	89	18	74	24
런던	103	13	137	8	173	7	167	6	183	5
스톡홀름	93	14	91	17	94	20	90	17	110	14
몬트리올	90	15	94	16	95	19	91	16	103	15
⋮										
제주	50	39								
⋮										
부산	42	45								

주: UIA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for year 2007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세계 국제회의 시장에서 한국이 이룩한 놀라운 성과의 배경에는 1979년에 코리아컨벤션뷰로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국제회의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사적으로 노력한 한국관광공사의 공로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근래에 와서는 1996년 ‘국제회의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중앙 정부의 지원정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CVB (Convention & Visitors Bureau)나 RTO (Regional Tourism Organization) 운영 등이 활성화되고 있어, 서울과 부산, 제주의 성장에 더하여 인천과 경기, 대전, 대구 등 전국에 걸쳐 국제회의 산업 육성 확산이 예상되므로 세계 속 한국의 국제회의 산업은 향후에도 계속 성장할 전망이다

2. 우리나라 국제회의 시장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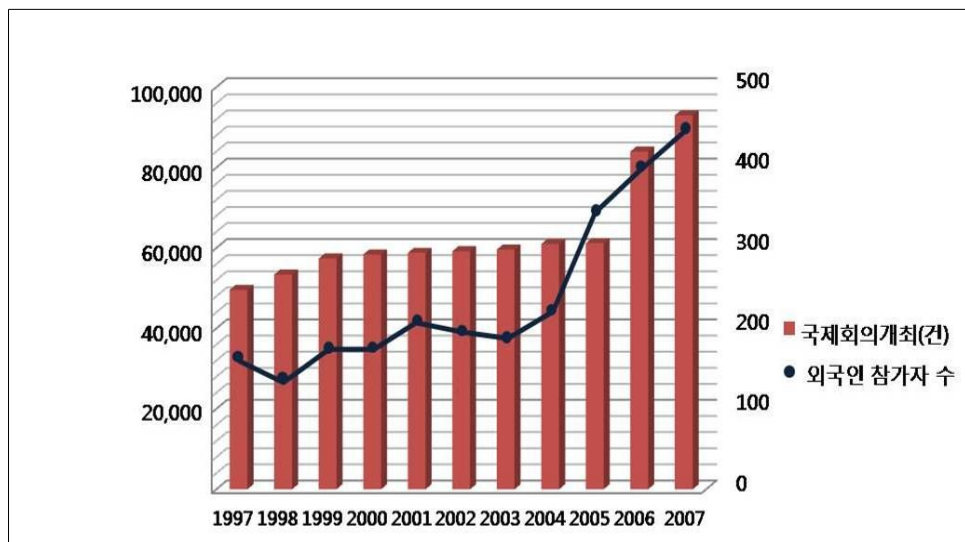
- 한국관광공사의 국제회의 개최 인정 기준에 의하면¹¹⁾, 국내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2007년 총 465건으로 전년대비(420건) 10.71% 상승하였음.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6.7%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줌
- 외국인 참가자수도 개최건수의 증가 추세와 같은 맥락에서 성장하였는데, 1998년 불과 22,725명으로 집계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가 10년간 연평균 28.2%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07년 93,114명으로 집계되었음

8)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 중 참가자가 3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자수가 10명 이상인 순수 국제회의

<표 4-4> 국내 국제회의 개최 및 외국인 참가자수 현황 (1998년~2007년)

연도별	국제회의 개최(건)*	성장률(%)	외국인 참가자수(명)	성장률(%)
1998	267	7.66	22,725	-24.47
1999	287	7.49	34,038	49.78
2000	292	1.74	33,562	-1.40
2001	294	0.68	40,625	21.04
2002	296	0.68	35,100	-13.60
2003	298	0.68	34,467	-1.80
2004	305	2.35	41,233	19.63
2005	306	1.32	69,941	69.62
2006	420	37.25	79,177	13.20
2007	465	10.71	93,114	17.60

주: 한국관광공사. 우리나라 국제회의 동향 2006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그림 4-3] 국내 국제회의 개최 및 외국인 참가자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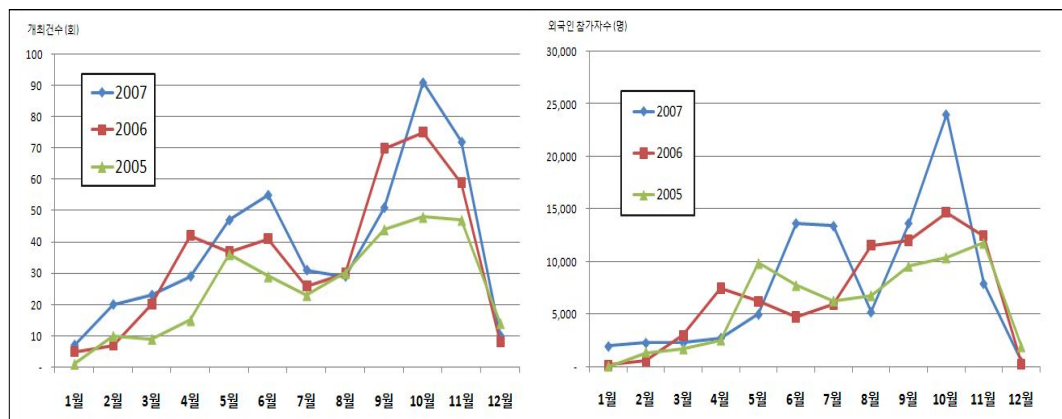
- 월별 개최 현황을 보면, 2007년 간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10월에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11월 72건, 6월 55건, 9월 5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음. 반면에 1월에는 7건으로 가장 적은 개최건수를 기록하였고 12월 10건, 2월 20건, 3월 23건 등의 순으로 적게 개최되었음
- 연중 월별 개최 흐름을 보면, 비교적 많은 개최건수를 기록한 시기는 9~11월에 집중되었고, 비교적 적은 개최건수를 기록한 시기는 12~2월에 집중되었으며 3~6월간 상승세가 7~8월에 급감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를 지난 3년간(2005년~2007년)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매년 4~6월과 9~11월을 중심으로 국제회의 개최가 많았던 반면 12~2월과 7~8월에는 개최건수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 우리나라 국제회의 시장에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표 4-5> 국내 월별 국제회의 개최건수 및 참가자수 비교 (2005년~2007년)

월 구분	2,007				2,006				2,005			
	개최 (건)	성비 (%)	참가자 수 (명)		개최 (건)	성비 (%)	참가자 수 (명)		개최 (건)	성비 (%)	참가자 수 (명)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전체
1월	7	1.51	2,000	3,391	5	1.19	181	525	1	0.33	26	323
2월	20	4.30	2,324	21,286	7	1.67	594	2,536	10	3.27	1,383	3,076
3월	23	4.95	2,330	6,840	20	4.76	2,977	12,190	9	2.94	1,692	4,876
4월	29	6.24	2,798	14,278	42	10.00	7,477	25,074	15	4.90	2,525	7,587
5월	47	10.11	5,037	21,034	37	8.81	6,236	20,225	36	11.76	9,848	28,577
6월	55	11.83	13,705	68,289	41	9.76	4,758	27,164	29	9.48	7,746	16,573
7월	31	6.67	13,446	33,192	26	6.19	5,941	19,801	23	7.52	6,275	20,226
8월	29	6.24	5,251	17,464	30	7.14	11,562	29,873	30	9.80	6,790	18,688
9월	51	10.97	13,705	47,377	70	16.67	12,016	50,731	44	14.38	9,590	24,651
10월	91	19.57	24,055	223,060	75	17.86	14,686	43,020	48	15.69	10,381	186,843
11월	72	15.48	7,965	40,996	59	14.05	12,475	32,596	47	15.36	11,797	44,023
12월	10	2.15	528	1,759	8	1.90	274	4,890	14	4.58	1,888	4,249
합계	465	100	93,144	498,966	420	100	79,177	268,625	306	100	69,941	359,692

주: 한국관광공사. 2006 국제회의의 개최현황 및 2007 국제회의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그림 4-4] 국내 월별 국제회의 개최건수 및 외국인 참가자수 비교 (2005년~2007년)

- 외국인 참가자수의 월별 현황도 개최건수에 따라 크게 영향 받으므로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나, 다만 2007년 7월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상황에 따라서는 개최비수기에도 대형 국제회의를 유치하므로 얼마든지 외국인 참가자수를 증가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개최지역별 현황을 보면, 2007년 간 가장 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한 지역은 서울로 171건을 기록하였고, 그다음 제주 114건, 부산 81건, 대구 2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음

<표 4-6> 국내 지역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 (2005년~2007년)

지역 구분	2007				2006				2005			
	개최 (건)	성비 (%)	참가자 수 (명)		개최 (건)	성비 (%)	참가자 수 (명)		개최 (건)	성비 (%)	참가자 수 (명)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전체
서울	171	36.77	36,160	274,994	191	45.48	41,764	143,082	155	50.65	41,052	250,819
제주	114	24.52	15,953	51,675	79	18.81	9,629	33,881	42	13.73	8,470	22,862
부산	81	17.42	24,051	80,631	82	19.52	15,941	37,732	49	16.02	11,942	35,572
대구	20	4.30	9,505	37,299	15	3.57	2,315	17,798	11	3.59	2,068	12,979
대전	18	3.87	1,088	4,181	18	4.29	1,174	2,937	7	2.29	359	1,117
경남	16	3.44	537	4,394	3	0.71	297	605	1	0.33	270	650
경기	13	2.80	2,419	9,113	5	1.19	4,115	7,296	20	6.54	2,250	14,696
광주	11	2.37	847	24,832	9	2.14	2,073	19,670	2	0.65	70	517
인천	7	1.51	647	3,976	4	0.95	239	724	1	0.33	35	150
강원	5	1.08	1,241	2,416	2	0.48	269	570	5	1.63	1,199	5,393
울산	4	0.86	329	639	0	0.00	0	0	1	0.33	800	10,000
전북	2	0.43	302	1,812	2	0.48	232	958	0	0	0	0
경북	1	0.22	23	92	9	2.14	1,119	1,912	9	2.94	1,127	2,826
충북	1	0.22	30	2,900	1	0.24	10	1,460	2	0.65	135	1,850
충남	1	0.22	12	12	0	0.00	0	0	1	0.33	164	261
합계	465	100	93,144	498,966	420	100	79,177	268,625	306	100	69,941	359,692

주: 한국관광공사. 2006 국제회의 개최현황 및 2007 국제회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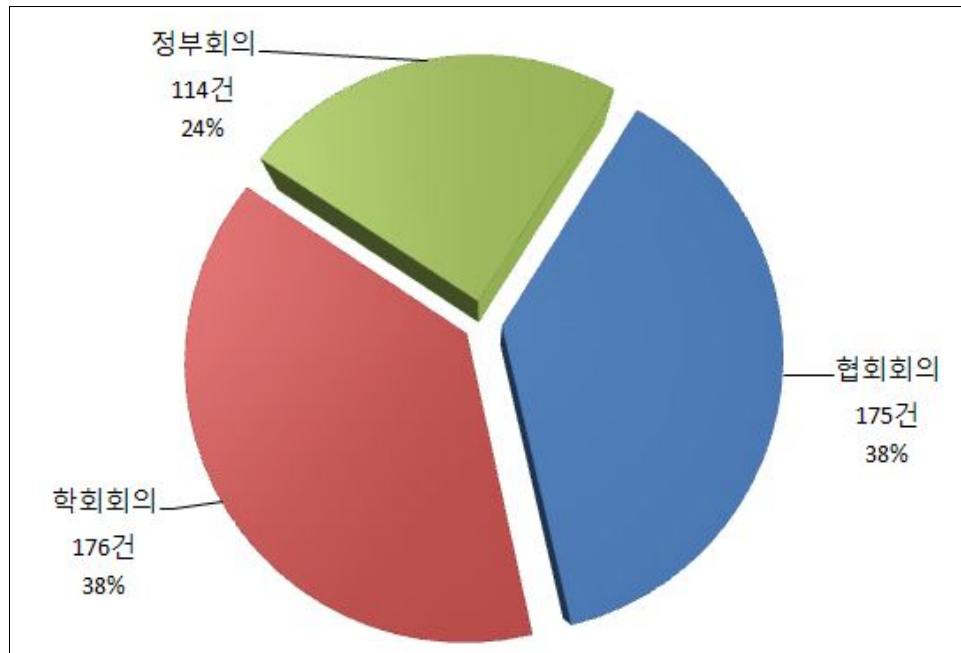
- 지난 3년간(2005년~2007년) 지역별 개최 현황을 비교해보면, 상기 표에서 나타나듯이 서울이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점유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제주의 개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7년 부산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한 가운데, 대구와 대전, 경남, 경기, 광주, 인천, 강원 지역의 점진적 성장을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과거 국내 국제회의 개최의 50%이상을 점유하던 서울의 국제회의 개최 집중화 현상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제주나 부산, 고양, 대구, 광주, 대전, 창원, 인천 등의 지방 도시들도 서울과 같은 국제회의 전문시설을 보유하게 되면서 국내 국제회의 개최의 지방 분산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7> 국제회의 종류별 개최 비교 (2004년, 2007년)

회의 종류 구분	2007					2004				
	개최 (건)	성비 (%)	참가자 수 (명)			개최 (건)	성비 (%)	참가자 수 (명)		
			외국인	한국인	전체			외국인	한국인	전체
협회회의	175	37.63	54,315	311,378	366,773	73	23.93	11,933	48,404	60,337
학회회의	176	37.85	31,046	74,258	105,300	142	46.56	16,653	36,128	52,781
정부회의	114	24.52	7,783	19,110	26,893	90	29.51	11,083	25,333	36,416
종합	465	100	93,144	404,746	498,966	305	100	39,669	109,865	149,534

주 1: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2005) 및 2007 국제회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주 2: 집계된 국제회의의 분류는 연구진 판단으로 이루어 졌으며 기업관련 회의는 비교 편의상 협회회의로 분류하였음



[그림 4-5] 2007년 국제회의 종류별 개최 규모

- 2007년 개최된 국제회의의 종류별 개최 현황을 보면, 학회회의와 협회회의가 각각 176건과 175건으로 유사하게 많았으며, 정부회의가 114건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참가자 수 측면에서는 협회회의가 외국인 부문과 내국인 부문 모두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회회의가 많았음

제 2절 국제회의의 참가자 소비지출액 조사¹²⁾

1. 조사 개요

-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본 연구진이 수행한 ‘2007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의 한 부분으로 국제회의 참가자의 소비지출액 조사가 실시되었음
- 조사는 설문조사방식이며, 2007년 동안(2007년 3월~11월)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의 외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해당 연도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회의의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군집표본추출(Cluster Sampling)과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을 적절히 병행하였음
- 조사 대상 국제회의(회의 표본)의 선정은 다음과 같음
 - 해당 연도에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를 전수조사함
 - 국내 국제회의 개최시기와 개최지역별, 회의 종류별(학술회의, 협회회의, 정부회의) 비중을 고려함
 - 이중 UIA기준에 부합되는 국제회의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
 - 해당 국제회의 사무국에 조사허가를 위한 공문을 보내 조사허가를 득한 회의를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조사 대상 참가자(참가자 표본)로는 선정된 국제회의에 참가한 외국인 중 최소 2일 이상 회의에 참가한 사람을 선정하였음
- 설문지는 선정된 국제회의 개최 장소(컨벤션 센터 또는 호텔)의 로비 등지에서 사전 교육된 설문 조사자로부터 배포·수집되었으며 참가자는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으로 응답하도록 설계하였음

12) 본 절은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2007)의 소비실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 설문 조사자로는 관광 및 컨벤션을 전공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매 조사마다 조사지침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음
- 수집된 설문지는 불성실하게 기재된 응답지를 제외하고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서술적 통계를 중심으로 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추가적 분석을 실시함

2. 조사 대상

가. 회의 표본 현황

- 연구의 초기에는 2004년 도출된 국제회의 종류별 개최비율과 2004년~2006년 간 지역별 개최비율에 입각하여, 서울(14개)과, 제주(5개), 부산(3개), 그리고 대구(3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정부회의 3개, 학술회의 14개, 협회회의 8개, 총 25개 회의를 선정하였으나, 회의 주최측의 사정상 개최되지 않거나 조사에 미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가진 회의를 일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지역에서 13개, 제주에서 2개의, 부산에서 2개, 그리고 대구에서 3개, 총 20개 회의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음
- 조사 대상회의 선정기준은 가능하면 UIA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기준에 부합되는 회의(5개국 이상으로부터 외국인 비율이 40%이상인 300명이상의 3일 이상 개최하는 국제기구 주최 및 후원의 국제회의)를 선정하였음

○ 선정된 회의에 대한 세부 목록은 다음과 같음

<표 4-8> 2007 국제회의 참가자 소비지출액 조사 대상 회의

회의명	구분	시작일	종료일	지역	장소
세계중앙예탁기관회의	정부	2007-04-11	2007-04-13	서울	신라호텔
세계정신의학회지역학회	학술	2007-04-18	2007-04-21	서울	잠실롯데 호텔
관상동맥중재시술국제학술대회	학술	2007-04-25	2007-04-27	서울	쉐라톤 그랜드워커힐
세계 심미치과학회서울대회	학술	2007-05-04	2007-05-06	서울	COEX
국제산림경관복원심포지엄	정부	2007-05-14	2007-05-19	서울	COEX
제1차 국제공항협회사태지역총회 및 전시회	협회	2007-05-21	2007-05-24	서울	하얏트호텔
2007 미주여행업협회해외총회	협회	2007-05-25	2007-05-29	제주	ICC제주
제10회 재료기계적거동 국제컨퍼런스	학술	2007-05-27	2007-05-30	부산	BEXCO
국제보건기록연맹총회	협회	2007-05-27	2007-05-30	서울	COEX
세계영향평가학회연차총회	학술	2007-06-02	2007-06-09	서울	COEX
제4차 세계재활의학학술대회	학술	2007-06-10	2007-06-14	서울	COEX
지속가능한 빌딩 아시아컨퍼런스	학술	2007-06-27	2007-06-29	서울	aT센터
Lepton Photon 2007	학술	2007-08-13	2007-08-18	대구	EXCO
제1회 국제곤충학회중간회의	학술	2007-08-19	2007-08-24	대구	EXCO
제 16차 로봇-인간상호교류 IEEE 국제 심포지움	학술	2007-08-26	2007-08-29	제주	신라호텔
아태정형외과학술대회	학술	2007-09-10	2007-09-13	서울	COEX
제6차 인간프로테움기구정기세계 학술대회	학술	2007-10-06	2007-10-10	서울	COEX
2007 세계실내디자인 대회	협회	2007-10-08	2007-10-12	부산	BEXCO
제46차 동양 및 동남아라이온스대회	협회	2007-10-12	2007-10-15	대구	EXCO
국제병원원맹총회	협회	2007-11-05	2007-11-08	서울	COEX

- 유형별: 정부 2, 학술 12, 협회 6

- 지역별: 서울 13, 제주 2, 부산 2, 대구 3

나. 참가자 표본 현황

- 사전 교육된 조사원들이 상기에서 제시한 20개 국제회의에 직접 참가하여 각 회의의 외국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수거된 총 2,200부의 응답지 중 응답 항목의 누락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표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1,580부의 유효 표본(유효 표본 71.8%)을 획득하였음
- 획득된 표본에 대한 개최지역별 특성을 보면, 서울에서 개최된 회의로부터 획득된 유효 표본이 814부, 제주 348부, 부산 208부, 그리고 대구 210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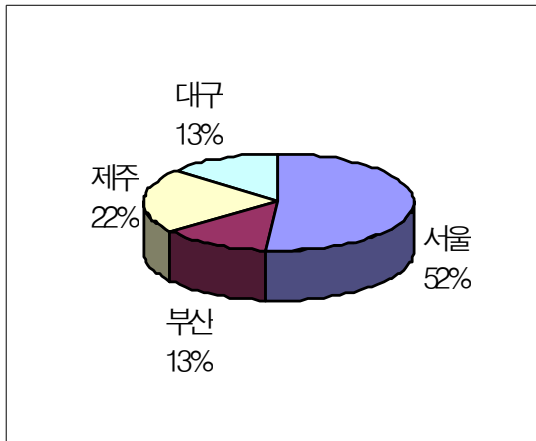
<표 4-9> 지역별 조사 현황

개최 지역	빈 도	비 율(%)
서울	814	51.5
부산	208	13.2
제주	348	22.0
대구	210	13.3
합계	1,58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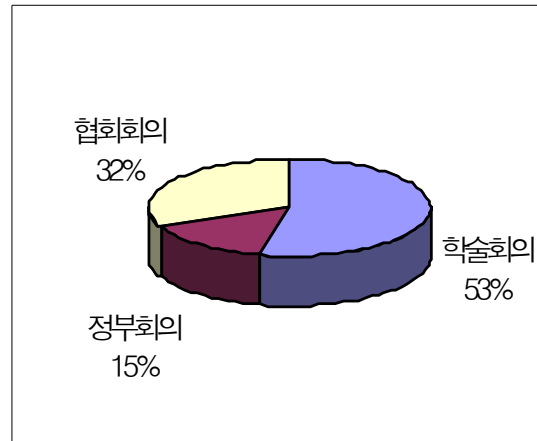
- 회의 유형별로는 정부회의 240개, 협회회의 500개, 학술회의 840개의 설문이 수집되었음

<표 4-10> 회의 유형별 조사 현황

회의 유형	빈 도	비 율(%)
정부회의	240	15.2
협회회의	500	31.6
학술회의	840	53.2
합계	1,580	100



[그림 4-6] 개최 지역별 조사 현황



[그림 4-7] 회의 유형별 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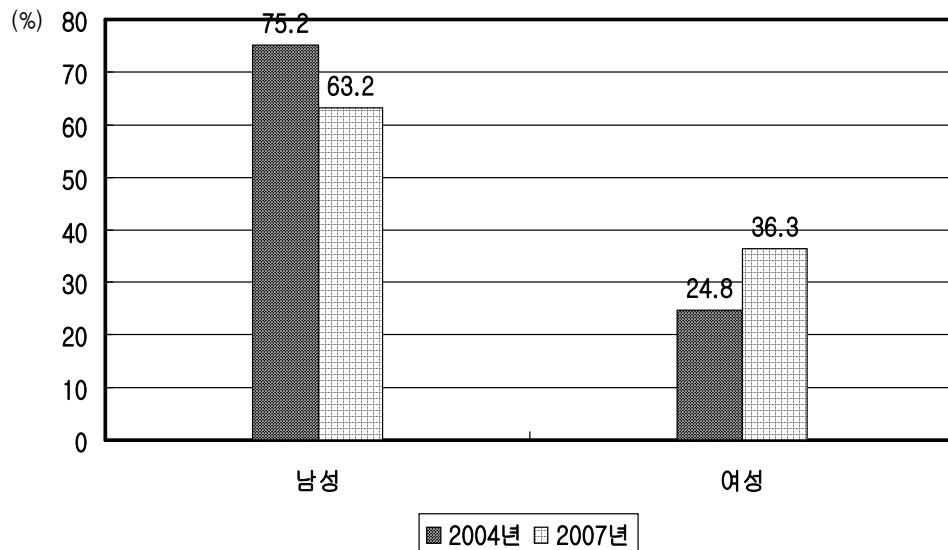
3. 국제회의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가. 국제회의 참가자의 특성

- 2007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가한 외국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한국에서의 국제회의 참가와 관련한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음
- 또한 국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실태 변화의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2004년도 실태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음(2004년과 2007년에 조사된 국제회의 및 참가자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한계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반적인 추세를 유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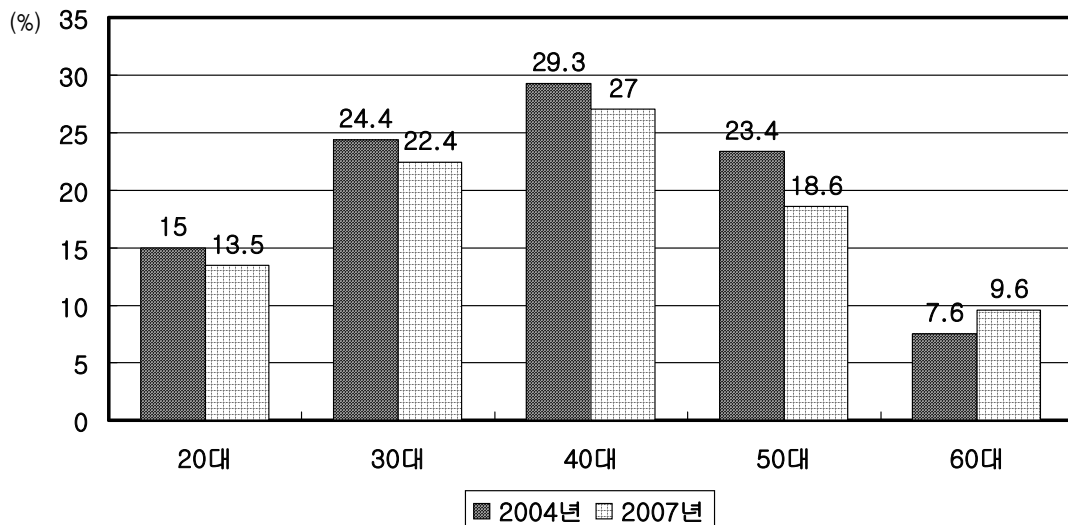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2007년 국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성별 분포는, 전체 1,580명의 응답자 가운데 남성이 988명(전체의 63.2%), 여성은 574명(36.3%)을 차지하였음. 이는 지난 ‘2004년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남성’ 75.2%, ‘여성’ 24.8%의 구성비와 비교할 때 여성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여성의 국제회의 참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4-8] 컨벤션 참가자의 성별 비교 (2004년/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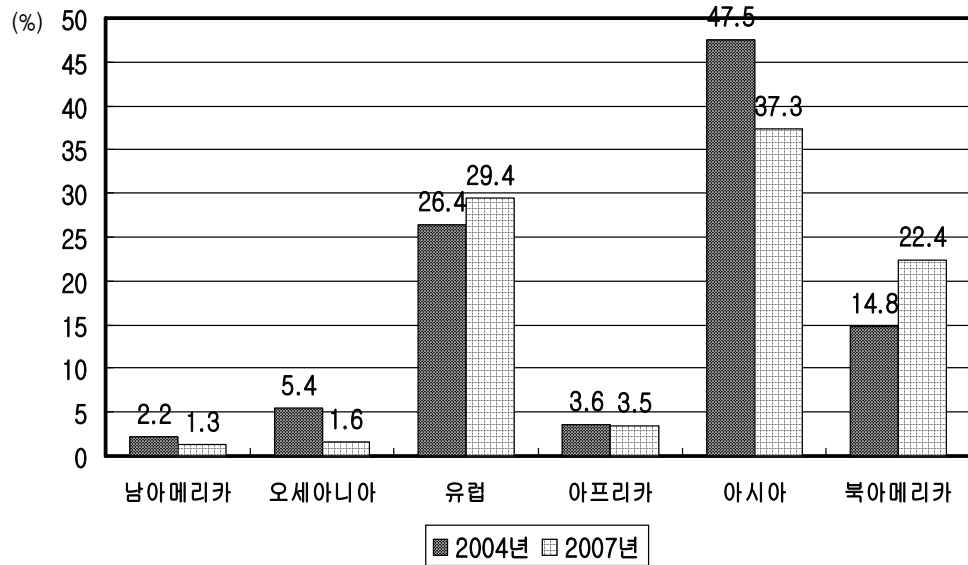
- 2007년 응답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40대가 전체의 27.0%(426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2.4%(354명), 50대가 18.6%(294명), 20대가 13.5%(214명), 60대가 9.6%(15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이를 2004년 참가자 연령 분포와 비교하면 2004년과 2007년 모두 참가자 연령분포의 수준이 비슷함을 알 수 있는데, 주로 30~50대 참가자 비율이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가운데 40대 참가자 비율이 가장 높았음. 다만 2007년 조사에서는 60대 이상의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이 특이점임



주 : 2007년 조사 결과에서 70대: 2.8%, 80대 0.3%, 무응답: 5.8%

[그림 4-9] 컨벤션 참가자의 연령대 비교 (2004년/2007년)

- 2007년 국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직업으로는 전체 응답자 중 기업, 비즈니스, 마케팅 관련자의 비율이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사, 간호사 관련 직업이 18.2%, 교수·연구원이 14.3%, 학생이 11.0%, 전문가 9.9%, 과학자 8.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2007년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자의 거주지로는 아시아 지역(동남아시아, 중국, 홍콩, 대만, 일본, 인도, 중동, 몽골 포함) 거주 비율이 전체의 37.3%로 가장 높은 가운데, 유럽 29.4%, 북아메리카 22.4% 순으로 조사되었음. 한편 ‘2004년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에서도 참가자의 거주지 분포가 아시아 - 유럽 - 북아메리카 순으로 조사되어짐
- 2007년 참가자들의 거주지 분포에서 유럽 지역 참가자와 북아메리카 지역 참가자는 성장한 반면, 아시아 지역 참가자 집중 현상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참가자 거주지 분산 및 다양화 현상은 한국이 국제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나감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성과임



주 : 아시아 지역은 동남아시아(13.8%), 중국(홍콩, 대만 포함 - 7.8%), 인도/중동/몽골(8.6%), 일본(7.1%)을 총합한 결과임

[그림 4-10] 컨벤션 참가자의 거주지 비교 (2004년/2007년)

- 아래의 표는 ‘2007년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국제회의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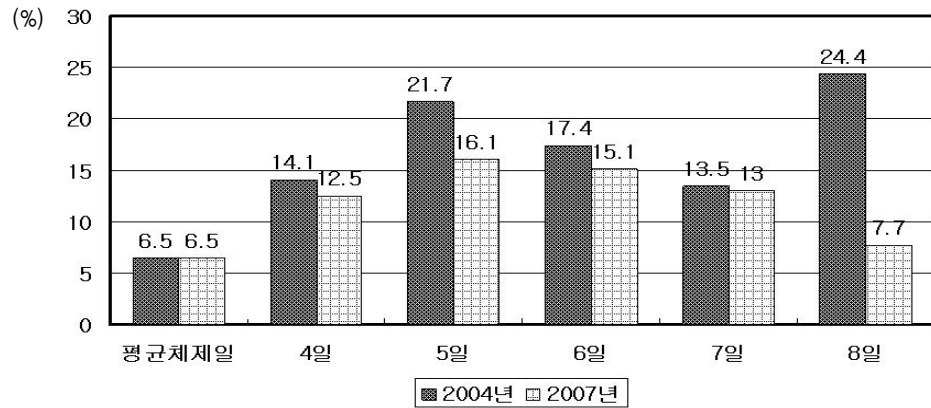
<표 4-11>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 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n=1,580)	남	998	63.2
	여	574	36.3
	무응답	8	0.5
연 령 (n=1,580)	20대	214	13.5
	30대	354	22.4
	40대	426	27.0
	50대	294	18.6
	60대	152	9.6
	70대	44	2.8
	80대	4	0.3
	무응답	92	5.8
직 업 (n=1,580)	의사, 간호사	288	18.1
	교수, 교육자, 연구원	226	14.3
	기업, 비즈니스, 마케팅	290	18.4
	과학자	126	8.0
	금융	22	1.4
	관공서 직원	66	4.2

거주지 (n=1,580)	학생	174	11.0
	전문가	156	9.9
	농림업	4	0.3
	서비스업	16	1.0
	무응답	212	13.4
	남아메리카	20	1.3
	오세아니아	26	1.6
	유럽	464	29.4
	아프리카	56	3.5
	동남아시아	218	13.8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	354	22.4
	중국(홍콩, 대만 포함)	124	7.8
	인도/ 중동/ 몽골	136	8.6
	일본	112	7.1
	중아메리카	10	0.6
	무응답	60	3.9

2) 체류기간

- 2007년 국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방한 체류기간에 대한 조사한 결과, 평균 6.5일로 나타난 가운데, 5일 간 체류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16.1%(25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일 15.1%, 7일 13.0%, 4일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회의 참가자들은 주로 5일~7일의 체류기간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는 회의 개최기간이 주로 3~4일인 점을 감안한다면 관광 및 기타 활동을 위해 참가자들이 추가적으로 한국에 체류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004년 국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실태조사와 비교해 보면, 2004년 참가자의 평균 방한 체류기간은 6.5일로 2007년과 동일했음을 알 수 있으나, 8일 이상 체류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24.4%로 가장 높은 가운데, 7일 13.5%, 6일 17.4% 5일 21.7%로 전반적으로 2007년 결과보다 장기 체류 경향을 보였음
- 2007년 참가자들의 체류기간이 2004년 참가자들의 그것보다 축소되고 있는 현상(예, 8일 이상이 24.45%에서 7.7%로 감소)이 나타남은 국제회의 시장에서 참가자의 체류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4-11] 컨벤션 참가자의 방한 체류기간 비교 (2004년/2007년)

- ‘2007년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국제회의 참가자의 방한 체류기간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12> 2007 국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방한 체류기간

특 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체제기간	1일	8	0.5
	2일	16	1.0
	3일	98	6.2
	4일	198	12.5
	5일	254	16.1
	6일	238	15.1
	7일	206	13.0
	8일	122	7.7
	9일	54	3.4
	10일	78	4.9
	11일 이상	90	5.7
	무응답	218	13.9

3) 쇼핑품목

- 2007년 국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들이 한국 방문 동안 구입했거나 구입할 계획인 주요 쇼핑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의류 13.0%, 식료품 8.0%, 전자/전기제품 6.7%, 전통공예/철기/목각제품 6.7% 등으로 나타났으며, 각 품목의 선호도 차이는 의류를 제외하고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쇼핑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개선 과제를 내포하고 있음
- ‘2007년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국제회의 참가자의 희망 쇼핑 품목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13>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응답율(%)
쇼핑품목 (복수응답)	피혁제품	4.5
	신발류	4.8
	실크, 섬유류	6.3
	의류	13.0
	술	3.8
	담배	1.4
	인삼, 한약재	6.1
	김치	4.7
	식료품	8.0
	향수, 화장품	2.2
	보석/액세서리	5.6
	시계	1.0
	음반, DVD	1.8
	인형, 장난감, 게임기	6.4
	전자, 전기제품	6.7
	자기, 도자기	4.6
	전통공예품, 철기, 목각제품	6.7
	서적, 잡지, 문구류	3.8
	스타 관련 상품	5.8
	기타	2.9

주: 복수응답을 통해 각 항목의 결과를 응답률(%)로 산출하였음

4. 2007 국제회의 참가자의 소비지출액 분석

가. 분석의 개요

- 본 분석에서는 설문지 상 소비액 항목에 대한 물음에 성실히 응답한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 참가자의 전반적 소비실태 파악을 위해 극단적으로 높은 수치에 대해서도 전문가적 소견을 바탕으로 실제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나, 정확한 전체평균 값에 도달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 소비지출액 조사항목에는 숙박비, 쇼핑비, 식음료비, 현지교통비, 오락 관련 지출비용, 한국체재 중 한국여행사에 지불한 비용, 문화생활관련 지출비용, 운동·체육 관련 지출비용,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타 비용에는 은행, 우편, 통신 등의 부가서비스 이용비, 등록비 등을 포함하였음. 방한 전 체류지역으로부터의 항공 및 항만 요금을 포함하여 한국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았은 비용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조사에서 제외하였음

나.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소비지출액 (전체 참가자 대상)

- 2007년 국내 국제회의에 참가한 외국인 중 설문에 응답한 전체 1,580명의 방한기간 소비실태를 분석한 결과, 참가자 1인당 평균소비총액은 2,488달러로 나타났음
- 이는 2004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2,366달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우리나라 원화 절상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면 실질적 가치는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음(2004년도 매매기준율 대미 환율의 평균(9개월)은 1US\$: 1150.31원으로 2007년도 매매기준 평균 환율인 1US\$:929.20원보다 약 19.2% 절상되었음)

<표 4-14> 2007년 국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평균 소비지출액

지출항목	1인당 지출비용 (US\$)	구성비(%)
숙박비	814.0	32.72
쇼핑비	412.0	16.56
식음료비	269.0	10.81
현지교통비	107.0	4.30
오락 관련 지출	91.0	3.66
여행사 관련지출	108.0	4.34
문화 관련 지출	66.0	2.65
운동 관련 지출	75.0	3.01
기타비용	546.0	21.95
소계	2488.0	100.0

- 참고적으로 2006년 방한 외래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194달러이고, 2007년은 외래객 1인당 지출액이 약 1,273달러를 기록함. 2007년을 기준한 국제회의 참가자의 소비 지출액은 일반 방한 외래 관광객 지출액 보다 약 1.9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2004년 조사에서도 약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항목별 지출로는 숙박비가 평균 814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쇼핑비가 평균 412달러, 식음료비가 269달러, 현지교통비 107달러, 오락비용 91달러, 옵션 투어로 여행사에 지불한 비용은 108달러, 문화 및 운동에 관련한 지출비용은 141달러, 그리고 등록비를 포함한 기타비용에 546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다. 정부회의 참가자의 소비지출액

- 2007년 국내에서 개최된 정부회의에 참가한 외국인 중 설문에 응답한 전체 240명의 방한기간 소비실태를 분석한 결과, 참가자 1인당 평균소비 총액은 2,770달러로 나타났다
- 항목별 지출로는 숙박비가 834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비용(525달러), 쇼핑비(489달러), 식음료비(313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출이 가장 적은 부분은 오락관련 지출로 전체 중 2.96%에 그치는 82달러만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2007년 국내 정부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평균 소비지출액

지출항목	1인당 지출비용 (US\$)	구성비(%)
숙박비	834	30.11
쇼핑비	489	17.65
식음료비	313	11.30
현지교통비	138	4.98
오락 관련 지출	82	2.96
여행사 관련지출	176	6.35
문화 관련 지출	120	4.33
운동 관련 지출	93	3.36
기타비용	525	18.95
소계	2770	100

라. 협회회의 참가자의 소비실태

- 2007년 국내에서 개최된 협회회의에 참가한 외국인 중 설문에 응답한 전체 500명의 방한기간 소비실태를 분석한 결과, 참가자 1인당 평균소비 총액은 2,982달러로 나타났다

- 항목별 지출로는 숙박비가 987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비용(683달러), 쇼핑비(519달러), 식음료비(320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평균 지출이 가장 적은 부분은 문화관련 지출로 전체 지출 중 1.71%만을 차지하는 51달러로 조사되었으며 국내관광 관련 지출도 전체의 2.52%인 75달러에 그쳤음

<표 4-16> 2007년 국내 협회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평균 소비지출액

지출항목	1인당 지출비용 (US\$)	구성비(%)
숙박비	987	33.10
쇼핑비	519	17.40
식음료비	320	10.73
현지교통비	103	3.45
오락 관련 지출	151	5.06
여행사 관련지출	75	2.52
문화 관련 지출	51	1.71
운동 관련 지출	93	3.12
기타비용	683	22.90
소계	2982	100

마. 학회회의 참가자의 소비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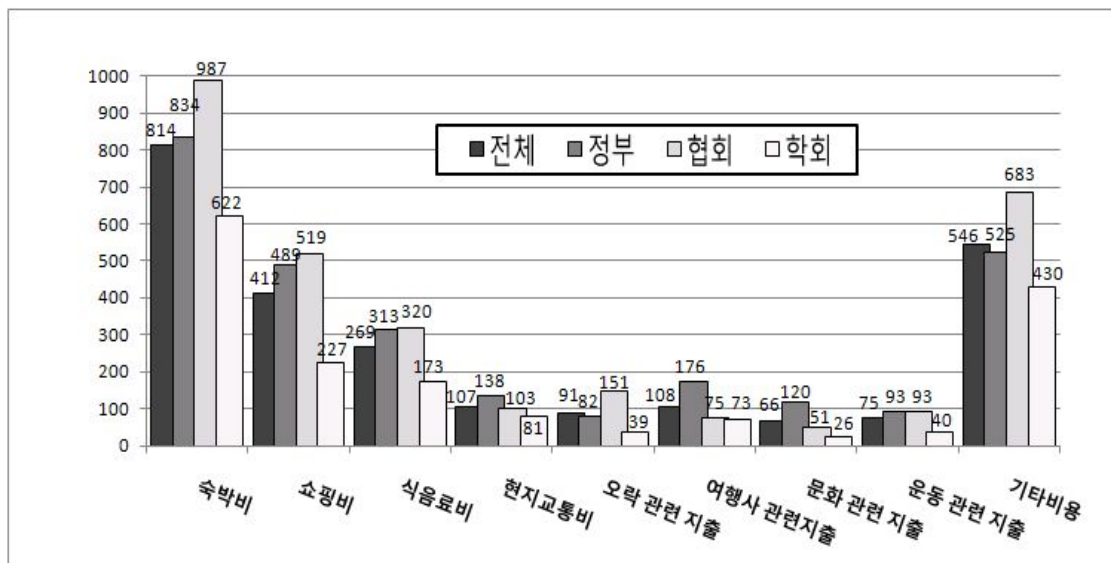
- 2007년 국내에서 개최된 학회회의에 참가한 외국인 중 설문에 응답한 전체 840명의 방한기간 소비실태를 분석한 결과, 참가자 1인당 평균소비 총액은 1,711달러로 나타났음
- 항목별 지출로는 숙박비가 622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비용(430달러), 쇼핑비(227달러), 식음료비(173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가장 적은 평균 지출액을 나타낸 부분은 문화관련 지출로 전체 지출 중 1.52%만을 차지하는 26달러로 조사되었으며 오락 관련 지출도 전체의 2.28%인 39달러에 그쳤음

<표 4-17> 2007년 국내 학회회의의 외국인 참가자의 평균 소비지출액

지출항목	1인당 지출비용 (US\$)	구성비(%)
숙박비	622	36.35
쇼핑비	227	13.27
식음료비	173	10.11
현지교통비	81	4.73
오락 관련 지출	39	2.28
여행사 관련지출	73	4.27
문화 관련 지출	26	1.52
운동 관련 지출	40	2.34
기타비용	430	25.13
소계	1711	100

바. 2007년 정부·협회·학회회의의 참가자 간 소비지출액 비교

- 2007년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의 회의 유형별 참가자 소비지출액을 비교 분석해 보면, 학회회의 소비 규모가 다른 유형의 회의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4-12] 2007년 정부·협회·학회회의의 참가자 간 소비지출액 비교

- 전체 소비 지출 규모 면에서 가장 큰 회의 유형은 협회회의로서 이들은 특히 숙박과 기타비용 지출이 월등히 많았는데, 협회회의에는 기업 관계자들의 참가가 많은 것과 관련하여 참가에 있어서 자비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협회 회비 또는 회의 등록비 등과 관련한 지출이 정부회의나 학회회의보다 크기 때문에 기타비용의 소비규모도 컸던 것으로 판단됨. 협회회의 참가자는 오락관련 지출에 있어서도 다른 두 회의 유형의 참가자보다 눈에 띄게 많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학회회의 참석자는 국내여행과 문화관련, 오락관련 지출 등을 포함하여 전 분야에 걸쳐 가장 작은 소비 규모를 보인 가운데, 쇼핑과 식음료 관련 지출 규모도 현저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정부회의 참가자는 쇼핑과 식음료 관련 소비 규모에서 협회회의 참가자와 거의 대등하며, 현지교통과 국내관광 관련 지출에 있어서는 가장 큰 소비규모를 보였음
- 국내 국제회의 참가와 관련한 전체적인 소비실태를 분석해보면, 주로 숙박과 식음료, 참가와 관련한 기타 경비 위주로 소비활동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회의 참가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필수 지출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회의 참가 관련 이외의 지출은 쇼핑을 제외하고는 그 규모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국제회의 연계 상품 개발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음

국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PART V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
- 1. 국제회의 산업의 경제효과 유발승수 도출
- 2. 2007년 국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3. 국제회의 유형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 5 장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 1 절 국제회의 산업의 경제효과 유발승수 도출

1. 국제회의 관련 산업의 분류¹³⁾

- 국제회의 관련 산업의 분류는 2003년 기준 전국산업연관표의 산업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항목을 기준하여 37개의 전체 산업분류를 나누고 이 가운데 9개 산업을 국제회의산업으로 재분류·통합하였음
- 9개 국제회의산업 분류에는 소매업(쇼핑), 음식점업, 숙박업, 여행사업, 문화공연업, 운동경기업, 오락유흥업, 그리고 기타 비용 부문을 도출하였음
- 이러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생산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 고용유발승수, 부가가치유발승수, 간접세유발승수, 수입(輸入)유발승수를 산출하여 국제회의 산업의 승수와 타산업과의 비교·분석하였음

2. 생산유발승수

- 레온티에프(Leontief)의 역행렬 계수에 의해서 도출되는 생산유발승수의 전산업 평균은 1.8021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최종수요 1백만 원이 주어졌을 때 약 1,802,100원의 직·간접 산출효과를 국민경제에 파급시킨다는 것을 의미함

13) 국제회의 관련 산업 분류는 본 보고서의 제3장, 제2절, 1.에서 자세하게 제시하였음



<표 5-1> 국제회의산업의 생산유발승수

순위	구분	총계	직접효과	간접효과
1	27. 기타	2.5609	1.8065	0.7544
2	15. 수송장비	2.3637	1.6521	0.7116
3	6. 인쇄, 출판 및 복제	2.3637	1.6487	0.5840
4	10. 제1차 금속	2.1952	1.5921	0.6031
5	11. 금속제품	2.1527	1.5663	0.5864
6	12. 일반기계	2.1419	1.5758	0.5662
7	3. 음식료품	2.1064	1.6342	0.4723
8	4. 섬유 및 가죽제품	2.0701	1.5505	0.5196
9	9. 비금속광물제품	2.0264	1.5910	0.4355
10	8. 화학제품	2.0242	1.5607	0.4634
11	29. 음식점업	2.0184	1.5526	0.4658
12	14. 정밀기기	2.0129	1.5682	0.4447
13	18. 건설	1.9955	1.5295	0.4660
14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9913	1.5243	0.4670
15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9616	1.5138	0.4478
16	5. 목재 및 종이제품	1.9475	1.5155	0.4319
17	34. 문화공연	1.8145	1.4612	0.3533
18	36. 오락유흥업	1.7529	1.4298	0.3231
19	13. 전기 및 전자기기	1.7123	1.4033	0.3090
20	20. 운수 및 보관	1.7104	1.4649	0.2455
21	32. 차량 임대업	1.6764	1.3978	0.2786
22	21. 통신 및 방송	1.6675	1.3721	0.2954
23	1. 농림수산물	1.6436	1.3505	0.2931
24	35. 운동경기	1.6316	1.3701	0.2615
25	37. 소매업	1.6123	1.3725	0.2398
26	2. 광산물	1.5950	1.3577	0.2374
27	33. 여행사업	1.5754	1.3507	0.2247
28	28. 숙박업	1.5696	1.3468	0.2228
29	25. 교육 및 보건	1.5644	1.3045	0.2599
30	24. 공공행정 및 국방	1.5237	1.2723	0.2514
31	17. 전력, 가스 및 수도	1.5001	1.3170	0.1831
32	22. 금융 및 보험	1.4867	1.2960	0.1907
33	19. 도소매	1.4768	1.2886	0.1882
34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4746	1.2701	0.2045
35	30. 운수업	1.4655	1.3082	0.1573
36	31. 운수보조업	1.2861	1.1633	0.1228
37	7. 석유 및 석탄제품	1.1370	1.0857	0.0514
평균 생산유발승수		1.8021	1.4423	0.3598

- 전체 산업별로 생산유발 승수를 보면, 기타부문의 승수가 2.5609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수송 장비 부문 2.3637, 인쇄출판 및 복제 부문 2.2327 등의 순으로 도출되었음
- 국제회의산업 중에서는, 기타부문의 승수가 2.5609로 가장 높은 가운데, 그 뒤를 음식점업 부문이 2.0184, 문화·공연 부문 1.8145, 오락·유흥업 부문 1.7529 등 순으로 도출되었음
- 전반적으로 국제회의산업의 생산유발승수효과는 기타부문과 문화·공연을 제외하고는 전 산업 평균치(1.8021)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국제회의 산업이 최종 수요형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3. 소득유발승수

- 산업연관표상의 “비용자보수”부문은 개인의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개별산업이 산출액을 총 산출액으로 나눈 소득계수를 생산유발승수에 적용하여 소득유발 승수를 도출할 수 있음
- 2007년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소득유발승수의 전산업 평균은 0.3358로 추산된 가운데, 교육 및 보건 부문에 대한 소득유발승수가 0.6498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뒤를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과 금융 및 보험 부문이 같은 0.5650, 여행업 부문 0.4719 등의 순으로 도출되었음
- 국제회의산업 부문 중에서는 여행업 부문의 승수가 0.4719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문화·공연 부문이 0.4549, 오락·유흥업 부문이 0.4253, 숙박업 부문이 0.4222 등의 순으로 도출되었음
- 국제회의산업 부문의 소득유발승수는 전반적으로 전산업 평균(0.33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타 부문(0.2685)과 차량임대업 부문(0.2336)만이 평균보다 낮게 도출되었음



<표 5-2> 국제회의산업의 소득유발승수

순위	구분	총계	직접효과	간접효과
1	25. 교육 및 보건	0.6498	0.5602	0.0896
2	24. 공공행정 및 국방	0.5650	0.4852	0.0797
3	22. 금융 및 보험	0.5060	0.3931	0.1129
4	33. 여행업	0.4719	0.3673	0.1046
5	20. 운수 및 보관	0.4604	0.3579	0.1025
6	34. 문화공연	0.4549	0.2972	0.1577
7	36. 오락유흥업	0.4253	0.2995	0.1258
8	18. 건설	0.4248	0.2686	0.1562
9	28. 숙박업	0.4222	0.3315	0.0908
10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4158	0.2723	0.1435
11	6. 인쇄, 출판 및 복제	0.4036	0.2091	0.1945
12	19. 도소매	0.3714	0.2850	0.0864
13	29. 식음료업	0.3603	0.2290	0.1313
14	35. 운동경기	0.3572	0.2546	0.1026
15	37. 소매업	0.3517	0.2418	0.1099
16	11. 금속제품	0.3452	0.1971	0.1481
17	4. 섬유 및 가죽제품	0.3354	0.1669	0.1685
18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3332	0.1849	0.1483
19	21. 통신 및 방송	0.3296	0.2115	0.1181
20	9. 비금속광물제품	0.3274	0.1578	0.1696
21	14. 정밀기기	0.3235	0.1424	0.1810
22	12. 일반기계	0.3232	0.1554	0.1678
23	15. 수송장비	0.3194	0.1211	0.1982
24	2. 광산품	0.3134	0.2187	0.0946
25	31. 운수보조	0.3117	0.2592	0.0525
26	30. 교통	0.2716	0.1992	0.0724
27	27. 기타	0.2685	0.0000	0.2685
28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2645	0.1657	0.0987
29	5. 목재 및 종이제품	0.2554	0.1147	0.1408
30	8. 화학제품	0.2410	0.0970	0.1440
31	32. 차량임대업	0.2336	0.1298	0.1038
32	3. 음식료품	0.2158	0.0774	0.1384
33	10. 제1차 금속	0.2025	0.0700	0.1325
34	13. 전기 및 전자기기	0.2004	0.0904	0.1100
35	1. 농림수산물	0.1716	0.0858	0.0858
36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1539	0.0773	0.0765
37	7. 석유 및 석탄제품	0.0449	0.0247	0.0203
평균 소득유발승수		0.3358	0.2108	0.1250

4. 고용유발승수

<표 5-3> 국제 회의산업의 고용유발승수

순위	구분	총계	직접효과	간접효과
1	1. 농림수산물	0.0677	0.0582	0.0095
2	37. 소매업	0.0560	0.0508	0.0052
3	29. 식음료업	0.0512	0.0333	0.0179
4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0463	0.0379	0.0084
5	36. 오락유흥업	0.0461	0.0385	0.0077
6	28. 숙박업	0.0383	0.0334	0.0049
7	19. 도소매	0.0359	0.0311	0.0049
8	3. 음식료품	0.0359	0.0048	0.0311
9	27. 기타	0.0322	0.0000	0.0322
10	35. 운동경기	0.0276	0.0217	0.0059
11	25. 교육 및 보건	0.0267	0.0213	0.0054
12	6. 인쇄, 출판 및 복제	0.0249	0.0132	0.0117
13	20. 운수 및 보관	0.0239	0.0187	0.0052
14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0224	0.0133	0.0090
15	4. 섬유 및 가죽제품	0.0214	0.0109	0.0105
16	18. 건설	0.0208	0.0126	0.0082
17	24. 공공행정 및 국방	0.0207	0.0155	0.0052
18	30. 교통	0.0191	0.0157	0.0034
19	14. 정밀기기	0.0188	0.0091	0.0097
20	34. 문화공연	0.0184	0.0101	0.0083
21	11. 금속제품	0.0184	0.0107	0.0077
22	33. 여행업	0.0160	0.0108	0.0052
23	12. 일반기계	0.0160	0.0072	0.0088
24	22. 금융 및 보험	0.0159	0.0110	0.0049
25	5. 목재 및 종이제품	0.0147	0.0063	0.0084
26	9. 비금속광물제품	0.0145	0.0063	0.0082
27	15. 수송장비	0.0140	0.0042	0.0099
28	2. 광산물	0.0121	0.0072	0.0049
29	32. 차량임대	0.0116	0.0060	0.0056
30	8. 화학제품	0.0113	0.0037	0.0076
31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0108	0.0062	0.0046
32	13. 전기 및 전자기기	0.0099	0.0039	0.0060
33	21. 통신 및 방송	0.0096	0.0037	0.0059
34	10. 제1차 금속	0.0077	0.0019	0.0057
35	31. 운수보조	0.0069	0.0040	0.0029
36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0057	0.0023	0.0034
37	7. 석유 및 석탄제품	0.0014	0.0003	0.0010
평균 고용유발승수		0.0230	0.0148	0.0082

-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내는 고용유발승수는 최종수요 1단위 주어졌을 때 각 산업이 발생시킨 직·간접 고용효과를 의미함
- 2007년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37개 전 산업의 평균 고용유발승수는 0.0230으로 도출된 가운데, 세부 산업별로는 농림수산물 부문에 가장 높은 0.0677의 승수효과가 있음이 추산되었고, 그 뒤로 국제회의산업 분류인 소매업 부문에 0.0560, 식음료업 부문 0.0512 등의 순으로 높은 승수효과가 도출되었음
- 전반적으로 국제회의산업 부문에 해당하는 소매업(0.0560)과 식음료업(0.0512), 오락·유흥업(0.0461), 숙박업(0.0383), 기타(0.0322), 운·동·경기(0.0276) 부문이 전 산업 평균인 0.0230보다 높게 도출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서비스 산업인 3차 산업으로 국제회의 개최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 이는 소매업과 식음료업의 경우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1억 원에 해당하는 최종수요가 있을 경우, 1인 100만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약 5~6명의 고용효과가 있음을 의미함

5. 부가가치유발승수

- 산업연관표에서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간접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유발승수는 최종수요 발생에 따라 각 산업에 파급된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의미함
- 2007년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37개 전산업의 평균 부가가치유발승수는 0.7890으로 추산된 가운데, 운수보조업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유발승수가 0.9556으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으며, 다음으로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부문이 0.9500, 금융 및 보험 부문이 0.9479 등의 순으로 높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있음이 분석되었음

<표 5-4> 국제회의산업의 부가가치유발승수

순위	구분	총계	직접효과	간접효과
1	31. 운수보조	0.9556	0.8317	0.1239
2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9500	0.7218	0.2282
3	22. 금융 및 보험	0.9479	0.6878	0.2602
4	32. 차량임대	0.9350	0.5946	0.3404
5	33. 여행업	0.9338	0.6376	0.2962
6	37. 소매업	0.9278	0.6128	0.3151
7	36. 오락유흥업	0.9188	0.5536	0.3652
8	35. 운동경기업	0.9182	0.6090	0.3092
9	28. 숙박업	0.9045	0.6445	0.2600
10	2. 광산품	0.9004	0.6341	0.2663
11	25. 교육 및 보건	0.8969	0.6707	0.2262
12	21. 통신 및 방송	0.8952	0.5847	0.3105
13	1. 농림수산물	0.8934	0.6242	0.2691
14	24. 공공행정 및 국방	0.8855	0.6819	0.2036
15	19. 도소매	0.8850	0.6490	0.2360
16	34. 문화공연업	0.8669	0.4894	0.3775
17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8626	0.4717	0.3909
18	18. 건설	0.8372	0.4396	0.3976
19	29. 식음료업	0.8336	0.3832	0.4504
20	20. 운수 및 보관	0.8331	0.5227	0.3104
21	3. 음식료품	0.8061	0.2701	0.5359
22	6. 인쇄, 출판 및 복제	0.7850	0.3122	0.4728
23	9. 비금속광물제품	0.7830	0.3396	0.4433
24	11. 금속제품	0.7219	0.3446	0.3773
25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7107	0.3401	0.3706
26	12. 일반기계	0.7052	0.3071	0.3981
27	27. 기타	0.7013	0.0562	0.6451
28	15. 수송장비	0.6945	0.2396	0.4549
29	4. 섬유 및 가죽제품	0.6861	0.2971	0.3890
30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6751	0.4560	0.2191
31	14. 정밀기기	0.6619	0.2567	0.4052
32	8. 화학제품	0.6209	0.2459	0.3750
33	5. 목재 및 종이제품	0.6192	0.2657	0.3535
34	10. 제1차 금속	0.5824	0.2109	0.3715
35	13. 전기 및 전자기기	0.5413	0.2732	0.2682
36	30. 교통	0.5308	0.3250	0.2058
37	7. 석유 및 석탄제품	0.3848	0.3279	0.0570
평균 부가가치유발승수		0.7890	0.4571	0.3319

- 국제회의산업의 9개 부문들은 전산업 부문과 비교할 때 4위에서 9위 까지(차량임대업 0.9350, 여행업 0.9338, 소매업 0.9278, 오락유흥업 0.9188, 운동경기업 0.9182, 숙박업 0.9045의 부문 순)와, 16위(문화 공연업 0.8669), 그리고 19위(식음료 0.8336)를 기록하였으며, 기타 부문(0.7013)을 제외하고는 전산업 평균(0.7890)보다 상당히 높은 부가가치유발승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국제회의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6. 수입(import)유발승수

-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체산업 생산 활동에 중간재로서 국산품과 수입품이 투입되며, 이때 유발되는 수입을 나타내는 것이 수입유발승수임
- 2007년 국제회의 개최로 인한 전산업 평균 수입유발승수는 0.2110으로 추산되었으며, 그 중 석유 및 석탄제품 부문에 대한 수입유발이 0.652의 가장 높은 승수효과를 보였음. 그 뒤를 교통(0.4692), 전기 및 전자기기(0.4587), 제1차 금속(0.4176), 목재 및 종이제품(0.3808), 화학제품(0.3791), 정밀기기(0.3381) 등의 부문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이들 산업들이 타 산업에 비하여 원자재의 수입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 반면에 기타(0.2987)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국제회의산업 부문들은 모두 전산업 평균 수입유발승수(0.2110) 보다 낮은 승수효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숙박업(0.0955), 운동경기(0.0818), 오락유흥업(0.0812), 소매업(0.0722), 여행업(0.0622), 차량임대업(0.0650) 등은 부문들은 전산업 비교하여 29위에서 34위의 매우 낮은 수입유발승수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국제회의 개최가 주로 국내 재원을 활용함을 의미하는 것임

<표 5-5> 국제회의산업의 수입유발승수

순위	구분	총계	직접효과	간접효과
1	7. 석유 및 석탄제품	0.6152	0.5865	0.0287
2	30. 교통	0.4692	0.3668	0.1024
3	13. 전기 및 전자기기	0.4587	0.3235	0.1351
4	10. 제1차 금속	0.4176	0.1969	0.2207
5	5. 목재 및 종이제품	0.3808	0.2188	0.1620
6	8. 화학제품	0.3791	0.1934	0.1857
7	14. 정밀기기	0.3381	0.1751	0.1630
8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3249	0.2270	0.0979
9	4. 섬유 및 가죽제품	0.3139	0.1523	0.1616
10	15. 수송장비	0.3055	0.1083	0.1972
11	27. 기타	0.2987	0.1373	0.1614
12	12. 일반기계	0.2948	0.1171	0.1777
13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2893	0.1357	0.1536
14	11. 금속제품	0.2781	0.0892	0.1890
15	9. 비금속광물제품	0.2170	0.0694	0.1476
16	6. 인쇄, 출판 및 복제	0.2150	0.0391	0.1759
17	3. 음식료품	0.1939	0.0957	0.0982
18	20. 운수 및 보관	0.1669	0.0124	0.1545
19	29. 식음료업	0.1664	0.0642	0.1022
20	18. 건설	0.1628	0.0309	0.1320
21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1374	0.0145	0.1229
22	34. 문화공연	0.1331	0.0494	0.0837
23	19. 도소매	0.1150	0.0624	0.0526
24	24. 공공행정 및 국방	0.1145	0.0458	0.0686
25	1. 농림수산물	0.1066	0.0252	0.0814
26	21. 통신 및 방송	0.1048	0.0433	0.0615
27	25. 교육 및 보건	0.1031	0.0248	0.0783
28	2. 광산품	0.0996	0.0082	0.0914
29	28. 숙박업	0.0955	0.0087	0.0868
30	35. 운동경기	0.0818	0.0209	0.0609
31	36. 오락유흥업	0.0812	0.0166	0.0646
32	37. 소매업	0.0722	0.0147	0.0574
33	33. 여행업	0.0662	0.0117	0.0545
34	32. 차량임대업	0.0650	0.0075	0.0575
35	22. 금융 및 보험	0.0521	0.0162	0.0358
36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0500	0.0081	0.0419
37	31. 운수보조	0.0444	0.0050	0.0394
평균 수입유발승수		0.2110	0.1006	0.1104



7. 간접세유발승수

<표 5-6> 간접세유발승수

순위	구분	총계	직접효과	간접효과
1	35. 운동경기	0.3070	0.2737	0.0333
2	7. 석유 및 석탄제품	0.2289	0.2193	0.0096
3	3. 음식료품	0.1333	0.0920	0.0414
4	29. 식음료업	0.1116	0.0521	0.0595
5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0959	0.0755	0.0204
6	22. 금융 및 보험	0.0862	0.0618	0.0244
7	20. 운수 및 보관	0.0800	0.0222	0.0578
8	37. 소매업	0.0797	0.0479	0.0317
9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0771	0.0364	0.0407
10	21. 통신 및 방송	0.0756	0.0483	0.0273
11	15. 수송장비	0.0749	0.0348	0.0401
12	27. 기타	0.0739	0.0000	0.0739
13	36. 오락유흥업	0.0713	0.0352	0.0361
14	18. 건설	0.0672	0.0380	0.0292
15	28. 숙박업	0.0600	0.0294	0.0306
16	12. 일반기계	0.0567	0.0268	0.0300
17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0567	0.0284	0.0283
18	14. 정밀기기	0.0515	0.0240	0.0276
19	19. 도소매	0.0510	0.0263	0.0247
20	30. 교통	0.0508	0.0117	0.0391
21	9. 비금속광물제품	0.0487	0.0048	0.0440
22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0466	0.0180	0.0286
23	8. 화학제품	0.0460	0.0065	0.0395
24	6. 인쇄, 출판 및 복제	0.0454	0.0101	0.0354
25	1. 농림수산물	0.0448	0.0119	0.0329
26	34. 문화공연	0.0423	0.0102	0.0320
27	32. 차량임대업	0.0404	0.0124	0.0280
28	4. 섬유 및 가죽제품	0.0396	0.0095	0.0301
29	33. 여행업	0.0395	0.0091	0.0304
30	2. 광산물	0.0385	0.0050	0.0335
31	5. 목재 및 종이제품	0.0356	0.0076	0.0281
32	11. 금속제품	0.0325	0.0059	0.0266
33	10. 제1차 금속	0.0310	0.0025	0.0285
34	13. 전기 및 전자기기	0.0284	0.0108	0.0176
35	25. 교육 및 보건	0.0243	0.0038	0.0205
36	31. 운수보조	0.0216	0.0070	0.0145
37	24. 공공행정 및 국방	0.0213	0.0001	0.0212
평균 간접세유발승수		0.0680	0.0356	0.0323

- 간접세유발승수는 전산업 평균 0.0680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2007년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100만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한 경우 68,000원의 간접세가 유발됨을 의미함
- 전산업을 통틀어 간접세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국제회의산업 부문 9개 중 하나인 운동·경기 부문으로 0.3070의 승수효과가 있음이 추산되었음. 그 뒤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 부문(0.2289)과, 음식료품(0.1333) 등의 순으로 높게 도출되었음
- 9개 국제회의산업 부문 중 운동·경기 부문에 이어 가장 많은 간접세를 유발하는 산업부문으로는 식음료업(0.1116)이 도출되었으며, 소매업(0.0797)과 기타(0.739), 오락·유흥업(0.713) 등도 전산업 평균(0.0680)보다 높은 간접세 유발의 승수효과를 나타내었음. 이는 국제관련 산업이 최종수요형 산업으로서 정부의 세수 증대에 높은 기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됨

제 2 절 2007년 국제회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전체 외국인 참가자의 총 지출 규모 추정

- 2007년 국제회의에 참가한 비거주자(non-resident) 즉, 외국인 참가자의 1인당 지출비용은 미화 2,488달러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전체 국제회의(정부, 협회, 학회 포함)의 총 외국인 참가자 수(93,144명)로 곱하고, 대미원화환율(2007년 기준 929.18원)로 환산한 총 지출규모는 215,330.3백만 원으로 추산되었음
- 개별 지출규모를 보면, 숙박 관련 총지출이 약 70,449.7백만 원으로 전체 지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인 32.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타 부문 관련 비용이 약 47,255백만 원(21.95%), 쇼핑 관련 비용이 35,657.6백만 원(16.56%), 식음료 관련 비용이 23,281.3백만 원(10.8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추정된 전체 외국인 참가자의 총 지출액에 앞 절에서 제시한 경제파급승수를 적용하여 2007년 한해 국내에서 개최된 전체 국제회의로 인해 국가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로 함

<표 5-7> 전체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 규모 추정

구분	1인당 지출비용 (US\$)	원화환산 (원)	외국인참가자 총 지출비용 (백만원)	구성비(%)
숙박비	814.0	756,353	70,449.70	32.72
쇼핑비	412.0	382,822	35,657.59	16.56
식음료비	269.0	249,949	23,281.29	10.81
현지교통비	107.0	99,422	9,260.59	4.30
오락 관련 지출	91.0	84,555	7,875.87	3.66
여행사 관련지출	108.0	100,351	9,347.13	4.34
문화 관련 지출	66.0	61,326	5,712.14	2.65
운동 관련 지출	75.0	69,689	6,491.07	3.01
기타비용	546.0	507,332	47,254.96	21.95
소계	2488.0	2,311,800	215,330.28	100.0

주 1: 2007년 대미원화 환율 (매매기준율 적용): 929.18원

주 2: 총 외국인 참가자 수 = 93,144명

2. 생산, 고용, 소득 유발효과 분석

가. 생산유발효과

- 2007년 개최된 국제회의와 관련한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유발시킨 총 생산파급효과는 401,090.2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직접효과는 전체효과의 64.8%에 해당하는 259,810.8백만 원에 달했고, 간접효과는 35.2%인 141,279.4백만 원으로 나타났음
- 국제회의산업으로 분류 한 9가지 산업 부문 중에서 숙박업 부문이 전체 생산파급효과 중 가장 많은 18.1%의 비중으로 총 72,421.2백만 원의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뒤를 기타 부문에 55,344.6백만 원(13.8%), 음식점업 부문 46,710.4백만 원(11.6%) 등의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음. 반면에 차량임대업(3.2%) 및 여행사업(2.4%), 오락·유흥업(2.1%), 문화·공연(1.8%), 운동·경기(1.7%) 부문은 다소 낮은 생산파급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제회의산업 외 부문으로 미친 생산파급효과는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부문에 24,935.1백만 원(6.2%), 음식료품 부문에 19,042.4백만 원(4.7%)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음. 농림수산물, 석유 및 석탄제품, 화학제품, 전력, 가스 및 수도,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문 등도 각각 전체 중 2%대에 달하는 생산유발파급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제회의산업에 있어 여행사업, 문화·공연, 운동·경기, 오락·유흥업 부문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정도가 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해당분야에 대한 지출 규모가 미약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5-8> 전체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생산·고용·소득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 명)

구 분	생산유발효과	비율	고용유발효과	비율	소득유발효과	비율
1. 농림수산물	10,507,229,886	2.6	611,676,837	7.4	901,455,981	1.2
2. 광산물	264,428,002	0.1	1,898,182	0.0	57,841,441	0.1
3. 음식료품	19,042,376,680	4.7	91,267,304	1.1	1,474,183,397	1.9
4. 섬유 및 가죽제품	3,640,842,388	0.9	39,674,751	0.5	607,652,154	0.8
5. 목재 및 종이제품	6,138,994,520	1.5	38,607,185	0.5	704,004,483	0.9
6. 인쇄, 출판 및 복제	2,665,225,762	0.7	35,177,568	0.4	557,276,933	0.7
7. 석유 및 석탄제품	9,208,300,163	2.3	3,152,606	0.0	227,055,505	0.3
8. 화학제품	10,265,096,691	2.6	37,495,859	0.5	996,129,916	1.3
9. 비금속광물제품	1,335,388,104	0.3	8,469,653	0.1	210,725,757	0.3
10. 제1차 금속	1,870,908,956	0.5	3,645,501	0.0	130,965,981	0.2
11. 금속제품	1,663,440,358	0.4	17,791,174	0.2	327,888,872	0.4
12. 일반기계	1,350,363,820	0.3	9,722,980	0.1	209,827,087	0.3
13. 전기 및 전자기기	3,044,292,467	0.8	11,958,258	0.1	275,097,932	0.4
14. 정밀기기	354,823,411	0.1	3,244,154	0.0	50,534,431	0.1
15. 수송장비	933,772,452	0.2	3,889,787	0.0	113,123,807	0.1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2,110,430,180	0.5	28,152,919	0.3	390,262,548	0.5
17. 전력, 가스 및 수도	9,467,439,547	2.4	21,631,058	0.3	732,038,488	0.9
18. 건설	2,510,390,611	0.6	31,580,067	0.4	674,204,085	0.9
19. 도소매	3,329,850,283	0.8	103,476,040	1.2	949,083,410	1.2
20. 운수 및 보관	1,314,285,520	0.3	24,628,121	0.3	470,437,249	0.6
21. 통신 및 방송	9,921,439,583	2.5	37,109,139	0.4	2,098,873,752	2.7
22. 금융 및 보험	9,176,193,752	2.3	101,107,117	1.2	3,607,207,953	4.6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24,935,075,473	6.2	154,592,876	1.9	4,132,624,703	5.3
24. 공공행정 및 국방	-	0.0	-	0.0	-	0.0
25. 교육 및 보건	2,461,753,812	0.6	52,492,675	0.6	1,379,049,605	1.8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164,871,127	0.3	44,197,707	0.5	317,138,645	0.4
27. 기타	55,344,647,418	13.8	-	0.0	-	0.0
28. 숙박업	72,421,211,090	18.1	2,422,182,564	29.1	24,004,089,250	30.7
29. 음식점업	46,710,378,869	11.6	1,554,645,788	18.7	10,695,945,282	13.7
30. 운수업	2,121,750,792	0.5	33,261,986	0.4	422,745,001	0.5
31. 운수보조업	480,443,001	0.1	1,930,112	0.0	124,526,627	0.2
32. 차량 임대업	12,760,881,308	3.2	76,754,151	0.9	1,655,768,281	2.1
33. 여행사업	9,444,948,223	2.4	102,197,478	1.2	3,469,384,462	4.4
34. 문화·공연	7,353,300,633	1.8	74,430,515	0.9	2,185,464,878	2.8
35. 운동·경기	6,709,882,695	1.7	145,456,150	1.7	1,708,531,220	2.2
36. 오락·유흥업	8,246,102,331	2.1	317,256,485	3.8	2,469,365,934	3.2
37. 소매업	40,819,410,892	10.2	2,072,605,470	24.9	9,869,404,223	12.6
직접효과(a)	259,810,763,459	64.8	6,765,528,602	81.3	56,057,953,528	71.7
간접효과(b)	141,279,407,340	35.2	1,551,831,615	18.7	22,141,955,742	28.3
총효과(a+b)	401,090,170,799	100.0	8,317,360,217	100.0	78,199,909,271	100.0

- 이는 국제회의 참가자의 국내에서의 활동이 주로 숙박 및 식음료, 그리고 소매 행위 위주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제회의 산업을 통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행, 문화·공연, 운동·경기, 오락·유흥업 등의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나. 고용유발효과

- 2007년 간 국제회의 개최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유발시킨 고용파급효과는 총 약 8,317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직접효과는 전체의 81.3%에 해당하는 약 6,766명이고, 간접효과는 약 1,552명(18.7%)으로 나타났음
- 산업별로는 국제회의산업 분류에 있는 숙박업 부문에 가장 많은 약 2,422명(전체의 29.1%)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소매업 부문(2,073명, 24.9%)과, 음식점업 부문(1,555명, 18.7%) 순으로 높은 고용효과를 보였음
- 농림수산물 부문에서는 662명(7.4%)의 고용파급이 유발되었으며 이는 국제회의산업 외 부문에서는 가장 많은 효과를 나타낸 것임.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부문도 155명(1.9%)의 고용효과를 보이며 그 뒤를 따르는 가운데, 국제회의 산업 분류에 있는 차량임대업(0.9%), 여행사업(1.2%), 문화·공연(0.9%), 운동·경기(1.7%) 부문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파급효과를 나타냄

다. 소득유발효과

- 2007년 간 국제회의 개최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발생된 소득유발효과는 총 78,199.9백만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직접효

과는 전체효과의 71.7%에 해당하는 56,058백만 원이고, 간접효과는 22,142백만 원(28.3%)임

- 국제회의산업 내에서는 숙박업 부문이 전체 소득유발효과 중 가장 많은 30.7%를 차지하는 24,004.1백만 원의 파급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음식점업 부문이 10,695.9백만 원(13.7%), 소매업 부문이 9,869.4백만 원(12.6%) 등 순으로 나타났음
- 국제회의산업 외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부문이 4,132.6백만 원(5.3%)의 소득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뒤로는 금융 및 보험 부문이 3,607.2백만 원(4.6%), 통신 및 방송부문이 2,098.9백만 원(2.7%) 등 순으로 나타났음

3. 부가가치 · 수입 · 간접세 유발효과 분석

가. 부가가치유발효과

- 2007년 한해 외국인 국제회의 참가자의 지출에 의해 유발된 부가가치효과는 우리나라 전산업에 걸쳐 총 184,890.4백만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직접효과는 118,562백만 원으로 총 파급의 64.1%에 해당하고, 간접효과는 66,328.4백만 원(35.9%)임
- 국제회의산업 내에서는 숙박업 부문에 유발된 부가가치효과가 46,646.5백만 원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비중(25.2%)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소매업(25,013.1백만 원, 13.5%)과 음식점업(17,900.3백만 원, 9.7%) 부문 등의 순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나타내었음
- 국제회의산업 외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부문이 2007 국제회의 개최로 유발되는 전체 부가가치 중 9.7%(17,998.7백만 원)에 이르는 높은 파급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신 및 방송과 금융 및 보험 부문도 3%대의 파급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수입(import)유발효과

- 분석결과 우리나라 전산업에 걸쳐 유발된 수입파급효과는 총 30,440백만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 41.6%인 12,672.5백만 원이 직접효과이고, 그 보다 많은 58.4%(17,767.5백만 원)가 간접효과로 나타났음
- 기타 부문은 국제회의 개최로 유발되는 전체 수입효과의 25%에 달하는 7,598백만 원의 수입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5,400.2백만 원)과 음식점업(2,997.7백만 원), 전력 및 가스 및 수도(2,148.9백만 원) 등의 순으로 효과가 크다고 분석되었음
- 국제회의산업 내에서는 기타 및 음식점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수입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석유 및 석탄, 에너지, 음식료품, 목재 및 종이, 운수 등은 그 수입유발의 정도가 국제회의산업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자원 및 산업 구조에 기인한 결과라고 판단됨

다. 간접세유발효과

- 2007년 간 개최된 국제회의로 인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올린 세수과금액은 총 16,695.5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중 직접효과는 53.7%인 8,965.7백만 원이고, 나머지 46.3%에 해당하는 7,729.8백만 원은 간접효과임
- 가장 많은 세수과급이 발생한 부문은 음식점업으로 2,433.9백만 원(전체의 14.6%)의 세수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숙박업에 2,129.8백만 원(12.8%), 석유 및 석탄제품에 2,019.7백만 원(12.1%), 소매업에 1,955.5백만 원(11.7%),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에 1,882.3백만 원(11.3%), 운동·경기에 1,836.3백만 원(11%) 등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5-9> 전체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부가가치 · 수입 · 순간접세 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

구 분	부가가치유발효과	비율	수입유발효과	비율	간접세유발효과	비율
1. 농림수산물	6,559,094,255	3.5	265,138,035	0.9	124,891,253	0.7
2. 광산품	167,677,201	0.1	2,172,176	0.0	1,328,728	0.0
3. 음식료품	5,144,244,230	2.8	1,821,855,859	6.0	1,751,115,645	10.5
4. 섬유 및 가죽제품	1,081,761,514	0.6	554,673,738	1.8	34,537,544	0.2
5. 목재 및 종이제품	1,631,083,090	0.9	1,343,088,570	4.4	46,488,520	0.3
6. 인쇄, 출판 및 복제	832,067,457	0.5	104,227,555	0.3	26,881,208	0.2
7. 석유 및 석탄제품	3,019,358,636	1.6	5,400,223,157	17.7	2,019,709,741	12.1
8. 화학제품	2,523,840,439	1.4	1,985,255,849	6.5	67,104,036	0.4
9. 비금속광물제품	453,527,899	0.2	92,686,895	0.3	6,380,954	0.0
10. 제1차 금속	394,637,379	0.2	368,459,724	1.2	4,623,818	0.0
11. 금속제품	573,147,043	0.3	148,311,082	0.5	9,734,674	0.1
12. 일반기계	414,752,231	0.2	158,103,542	0.5	36,128,732	0.2
13. 전기 및 전자기기	831,593,151	0.4	984,962,203	3.2	33,027,866	0.2
14. 정밀기기	91,071,723	0.0	62,127,784	0.2	8,505,467	0.1
15. 수송장비	223,711,262	0.1	101,149,839	0.3	32,500,513	0.2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717,669,799	0.4	286,313,004	0.9	37,947,674	0.2
17. 전력, 가스 및 수도	4,317,241,397	2.3	2,148,926,348	7.1	268,429,155	1.6
18. 건설	1,103,573,027	0.6	77,455,060	0.3	95,291,295	0.6
19. 도소매	2,161,233,773	1.2	207,626,208	0.7	87,448,271	0.5
20. 운수 및 보관	687,048,642	0.4	16,314,692	0.1	29,232,336	0.2
21. 통신 및 방송	5,800,788,283	3.1	429,219,124	1.4	479,464,210	2.9
22. 금융 및 보험	6,310,937,268	3.4	148,842,911	0.5	566,729,251	3.4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7,998,668,802	9.7	201,646,702	0.7	1,882,310,376	11.3
24. 공공행정 및 국방	-	0.0	-	0.0	-	0.0
25. 교육 및 보건	1,651,074,054	0.9	61,100,040	0.2	9,368,871	0.1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549,419,158	0.3	16,908,053	0.1	42,427,319	0.3
27. 기타	3,111,467,274	1.7	7,597,960,899	25.0	-	0.0
28. 숙박업	46,676,547,332	25.2	628,464,151	2.1	2,129,849,458	12.8
29. 음식점업	17,900,334,184	9.7	2,997,652,798	9.8	2,433,872,931	14.6
30. 운수업	689,579,262	0.4	778,329,733	2.6	24,854,500	0.1
31. 운수보조업	399,603,776	0.2	2,387,403	0.0	3,384,425	0.0
32. 차량 임대업	7,588,076,836	4.1	96,103,988	0.3	158,719,952	1.0
33. 여행사업	6,022,337,309	3.3	110,062,172	0.4	86,043,253	0.5
34. 문화 · 공연	3,598,342,550	1.9	363,554,351	1.2	75,299,765	0.5
35. 운동 · 경기	4,086,387,193	2.2	140,008,325	0.5	1,836,262,842	11.0
36. 오락 · 유흥업	4,565,369,780	2.5	136,786,258	0.4	290,063,577	1.7
37. 소매업	25,013,143,017	13.5	601,912,134	2.0	1,955,542,123	11.7
직접효과(a)	118,562,005,476	64.1	12,672,505,077	41.6	8,965,653,901	53.7
간접효과(b)	66,328,404,752	35.9	17,767,505,286	58.4	7,729,846,382	46.3
총효과(a+b)	184,890,410,228	100	30,440,010,363	100	16,695,500,283	100

제 3절 국제회의 유형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정부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가. 정부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총 지출 규모 추정

- 2007년 국내에서 개최된 정부회의에 참가한 외국인 참가자의 1인당 지출비용은 미화 2,777달러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정부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7,783명)로 곱하고, 대미원화환율(2007년 기준 929.18원)로 환산한 총 지출규모는 20,032.12백만 원으로 추산되었음
- 개별 지출 규모를 보면, 숙박 관련 총지출이 약 6,031.3백만 원으로 전체 지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30.1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타 부문 관련 비용이 약 3,797백만 원(18.95%), 쇼핑 관련 비용이 3,536.4백만 원(17.65%), 식음료 관련 비용이 2,263.6백만 원(1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5-10> 정부회의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 규모 추정

구분	1인당 지출비용 (US\$)	원화환산 (원)	외국인참가자 총 지출비용 (백만원)	구성비(%)
숙박비	834.0	774,936	6,031.33	30.11
쇼핑비	489.0	454,369	3,536.35	17.65
식음료비	313.0	290,833	2,263.56	11.30
현지교통비	138.0	128,227	997.99	4.98
오락 관련 지출	82.0	76,193	593.01	2.97
여행사 관련지출	176.0	163,536	1,272.80	6.35
문화 관련 지출	120.0	111,502	867.82	4.33
운동 관련 지출	93.0	86,414	672.56	3.36
기타비용	525.0	487,820	3,796.70	18.95
소계	2770.0	2,573,829	20,032.12	100.0

주 1: 2007년 대미원화 환율 (매매기준율 적용): 929.18원

주 2: 정부회의 총 외국인 참가자 수 = 7,783명

나. 생산, 고용, 소득 유발효과 분석

1) 생산유발효과

- 2007년 개최된 정부회의와 관련한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로 인한 국내 경제 총 생산파급효과는 36,850.2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에서 직접효과는 전체효과의 65.0%에 해당하는 23,970.3백만 원에 달했고, 간접효과는 35.0%인 12,879.9 백만 원으로 나타났음
- 국제회의산업의 9가지 산업 부문 중에서는 숙박업 부문이 전체 생산파급효과 중 가장 많은 16.8%의 비중으로 총 6,194백만 원의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뒤를 기타 부문에 4,565.7백만 원(12.4%), 음식점업 부문에 4,196.4백만 원(11.4%) 등의 순으로 많게 분석되었음. 반면에 차량임대업(3.7%) 및 여행사업(3.5%), 문화·공연(2.9%), 운동·경기(1.9%), 오락·유흥업(1.7%) 부문은 다소 낮은 생산파급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제회의산업 외 부문으로 미친 생산파급효과는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부문에 2,391.0백만 원(6.5%), 음식료품 부문에 1,684.8백만 원(4.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2) 고용유발효과

- 2007년 간 정부회의 개최에 따른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이 국내 경제에 유발시킨 고용파급효과는 총 약 761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에서 직접효과는 전체의 81.6%에 해당하는 621명이고, 간접효과는 139명(18.4%)으로 나타났음
- 산업별로는 국제회의산업 내에 있는 숙박업 부문에 가장 많은 207명(전체의 27.2%)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소매업 부문(203명, 26.6%)과, 음식점업 부문(140명, 18.3%)이 높은 고용효

과를 보였음. 반면에 오락·유흥업(3.2%), 운동·경기(2.0%), 여행사업(1.8%), 차량임대업(1.1%), 문화·공연(1.4%) 등은 다소 낮은 고용 유발효과를 나타냈음

- 농림수산물 부문에서는 54명(7.1%)의 고용파급이 유발되었으며 이는 국제회의산업 부문 외에서는 가장 많은 효과를 나타낸 것임.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부문이 14명(1.9%)으로 그 뒤를 따랐음

3) 소득유발효과

- 2007년 간 정부회의 개최에 따른 외국인 참가자의 산업별 지출에 의해 국내 경제에 발생된 소득유발효과는 총 7,346백만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에서 직접효과는 전체효과의 72.2%에 해당하는 5,307백만 원이고, 간접효과는 2,039백만 원(27.8%)임
- 국제회의산업 내에서는 역시 숙박업 부문이 2,053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유발효과(27.9%)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음식점업 부문에 960.9백만 원(13.1%), 소매업 부문에 965.1백만 원(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국제회의산업 부문 외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부문이 396.2백만 원(5.4%)의 소득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뒤로는 금융 및 보험 부문이 337.1백만 원(4.6%), 통신 및 방송 부문이 197.8백만 원(2.7%) 등 순으로 나타났음



<표 5-11> 정부회의 개최에 따른 생산·고용·소득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 명)

구 분	생산유발효과	비율	고용유발효과	비율	소득유발효과	비율
1. 농림수산물	928,027,835	2.5	54,025,003	7.1	79,619,147	1.1
2. 광산물	23,349,104	0.1	167,610	0.0	5,107,440	0.1
3. 음식료품	1,684,809,787	4.6	8,075,045	1.1	130,431,191	1.8
4. 섬유 및 가죽제품	311,880,224	0.8	3,398,601	0.4	52,052,531	0.7
5. 목재 및 종이제품	537,202,204	1.5	3,378,381	0.4	61,605,100	0.8
6. 인쇄, 출판 및 복제	254,366,553	0.7	3,357,313	0.4	53,186,095	0.7
7. 석유 및 석탄제품	835,993,519	2.3	286,215	0.0	20,614,265	0.3
8. 화학제품	902,008,206	2.4	3,294,813	0.4	87,531,762	1.2
9. 비금속광물제품	117,189,330	0.3	743,269	0.1	18,492,654	0.3
10. 제1차 금속	167,050,962	0.5	325,502	0.0	11,693,883	0.2
11. 금속제품	145,808,904	0.4	1,559,486	0.2	28,741,240	0.4
12. 일반기계	122,388,392	0.3	881,229	0.1	19,017,547	0.3
13. 전기 및 전자기기	274,870,486	0.7	1,079,716	0.1	24,838,856	0.3
14. 정밀기기	32,764,596	0.1	299,567	0.0	4,666,400	0.1
15. 수송장비	91,352,532	0.2	380,544	0.0	11,068,035	0.2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183,404,549	0.5	2,446,598	0.3	33,915,373	0.5
17. 전력, 가스 및 수도	854,531,815	2.3	1,952,421	0.3	66,074,000	0.9
18. 건설	234,855,283	0.6	2,954,419	0.4	63,074,159	0.9
19. 도소매	294,713,399	0.8	9,158,302	1.2	84,000,366	1.1
20. 운수 및 보관	116,979,034	0.3	2,192,046	0.3	41,916,475	0.6
21. 통신 및 방송	935,067,243	2.5	3,497,430	0.5	197,813,320	2.7
22. 금융 및 보험	857,695,911	2.3	9,450,450	1.2	337,166,705	4.6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2,390,991,290	6.5	14,823,706	1.9	396,273,037	5.4
24. 공공행정 및 국방	-	0.0	-	0.0	-	0.0
25. 교육 및 보건	231,355,924	0.6	4,933,268	0.6	129,604,145	1.8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05,474,483	0.3	4,001,928	0.5	28,716,199	0.4
27. 기타	4,565,689,112	12.4	-	0.0	-	0.0
28. 숙박업	6,193,968,857	16.8	207,162,006	27.2	2,052,997,768	27.9
29. 음식점업	4,196,352,398	11.4	139,665,782	18.3	960,899,380	13.1
30. 운수업	200,094,767	0.5	3,136,820	0.4	39,867,759	0.5
31. 운수보조업	45,651,091	0.1	183,397	0.0	11,833,883	0.2
32. 차량 임대업	1,352,821,479	3.7	8,136,951	1.1	175,533,862	2.4
33. 여행사업	1,282,129,987	3.5	13,873,072	1.8	470,961,155	6.4
34. 문화·공연	1,071,811,925	2.9	10,848,940	1.4	318,551,849	4.3
35. 운동·경기	692,198,095	1.9	15,005,399	2.0	176,253,763	2.4
36. 오락·유흥업	623,554,463	1.7	23,990,328	3.2	186,728,730	2.5
37. 소매업	3,991,822,013	10.8	202,684,751	26.6	965,151,611	13.1
직접효과(a)	23,970,348,329	65.0	621,367,229	81.6	5,307,078,119	72.2
간접효과(b)	12,879,877,426	35.0	139,983,079	18.4	2,038,921,566	27.8
총효과(a+b)	36,850,225,755	100.0	761,350,308	100.0	7,345,999,684	100.0

다. 부가가치·수입·간접세 유발효과 분석

1) 부가가치유발효과

- 2007년 간 정부회의 개최에 따른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이 국내 경제에 유발시킨 부가가치효과는 총 17,322.6백만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64.7%인 11,216.2백만 원이 직접효과이고, 간접효과는 6,106.4백만 원(35.3%)임
- 국제회의산업 분류 내에서는 숙박업 부문에 유발된 부가가치효과가 3,992.1백만 원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비중(23.0%)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소매업(2,446.1백만 원, 14.1%)과 음식점업(1,608.1백만 원, 9.3%) 부문 등의 순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나타냈음
- 국제회의산업 분류 외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부문이 2007 국제회의 개최로 유발되는 전체 부가가치 중 10.0%(1,725.9백만 원)에 이르는 높은 파급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신 및 방송과 금융, 보험 부문 및 농림수산물도 3%대의 파급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수입(import)유발효과

- 2007년 간 정부회의 개최에 따른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이 국내 경제에 유발시킨 수입파급효과는 총 2,709.6백만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41.0%인 1,111.6백만 원이 직접효과이고, 그 보다 많은 59.0%(1,598백만 원)가 간접효과로 나타났음
- 기타 부문은 국제회의 개최로 유발되는 전체 수입효과의 23.1%에 달하는 626.8백만 원의 수입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18.1%, 490.3백만 원)과 전력 및 가스 및 수도(7.2%, 194백만 원), 화학제품(6.4%, 174.4백만 원) 등의 순으로 수입 유발효과가 크다고 분석되었음



<표 5-12> 정부회의 개최에 따른 부가가치 · 수입 · 순간접세 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

구 분	부가가치유발효과	비율	수입유발효과	비율	간접세유발효과	비율
1. 농림수산물	579,317,794	3.3	23,417,743	0.9	11,030,749	0.7
2. 광산품	14,806,015	0.1	191,805	0.0	117,328	0.0
3. 음식료품	455,146,830	2.6	161,192,175	5.9	154,933,300	10.0
4. 섬유 및 가죽제품	92,665,556	0.5	47,514,309	1.8	2,958,546	0.2
5. 목재 및 종이제품	142,730,677	0.8	117,529,231	4.3	4,068,056	0.3
6. 인쇄, 출판 및 복제	79,411,897	0.5	9,947,400	0.4	2,565,522	0.2
7. 석유 및 석탄제품	274,126,181	1.6	490,283,775	18.1	183,368,518	11.8
8. 화학제품	221,774,486	1.3	174,448,071	6.4	5,896,555	0.4
9. 비금속광물제품	39,800,235	0.2	8,133,921	0.3	559,973	0.0
10. 제1차 금속	35,236,962	0.2	32,899,573	1.2	412,858	0.0
11. 금속제품	50,239,451	0.3	13,000,272	0.5	853,297	0.1
12. 일반기계	37,590,809	0.2	14,329,616	0.5	3,274,505	0.2
13. 전기 및 전자기기	75,085,342	0.4	88,933,181	3.3	2,982,118	0.2
14. 정밀기기	8,409,655	0.0	5,736,942	0.2	785,403	0.1
15. 수송장비	21,887,912	0.1	9,896,501	0.4	3,179,851	0.2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62,368,371	0.4	24,881,743	0.9	3,297,804	0.2
17. 전력, 가스 및 수도	389,675,426	2.2	193,962,698	7.2	24,228,491	1.6
18. 건설	103,243,130	0.6	7,246,193	0.3	8,914,835	0.6
19. 도소매	191,283,955	1.1	18,376,338	0.7	7,739,769	0.5
20. 운수 및 보관	61,216,788	0.4	1,453,657	0.1	2,604,633	0.2
21. 통신 및 방송	546,709,008	3.2	40,452,771	1.5	45,188,238	2.9
22. 금융 및 보험	589,885,016	3.4	13,912,387	0.5	52,972,337	3.4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725,873,423	10.0	19,335,690	0.7	180,492,762	11.6
24. 공공행정 및 국방	-	0.0	-	0.0	-	0.0
25. 교육 및 보건	155,169,212	0.9	5,742,229	0.2	880,494	0.1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49,748,684	0.3	1,530,987	0.1	3,841,699	0.2
27. 기타	256,682,547	1.5	626,798,800	23.1	-	0.0
28. 숙박업	3,992,105,116	23.0	53,750,654	2.0	182,159,637	11.7
29. 음식점업	1,608,125,282	9.3	269,302,305	9.9	218,653,605	14.1
30. 운수업	65,032,064	0.4	73,401,844	2.7	2,343,950	0.2
31. 운수보조업	37,974,723	0.2	226,877	0.0	321,625	0.0
32. 차량 임대업	804,438,911	4.6	10,188,324	0.4	16,826,464	1.1
33. 여행사업	817,518,776	4.7	14,940,693	0.6	11,680,179	0.8
34. 문화 · 공연	524,491,921	3.0	52,991,431	2.0	10,975,642	0.7
35. 운동 · 경기	421,555,726	2.4	14,443,397	0.5	189,430,683	12.2
36. 오락 · 유흥업	345,224,533	2.0	10,343,515	0.4	21,934,053	1.4
37. 소매업	2,446,092,461	14.1	58,862,364	2.2	191,236,937	12.3
직접효과(a)	11,216,235,274	64.7	1,111,621,483	41.0	842,897,199	54.3
간접효과(b)	6,106,409,602	35.3	1,597,977,929	59.0	709,813,218	45.7
총효과(a+b)	17,322,644,876	100	2,709,599,411	100	1,552,710,417	100

3) 간접세유발효과

- 2007년 간 정부회의 개최에 따른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이 국내 경제에 유발시킨 세수파급액은 총 1,552.7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접효과는 54.3%인 842.9백만 원이고, 나머지 45.7%에 해당하는 709.8백만 원은 간접효과임
- 가장 많은 세수파급이 발생한 부문은 음식점업으로 218.7백만 원(전체의 14.1%)의 세수효과가 나타났고, 그 뒤로 소매업이 191.2백만 원(12.3%), 운동·경기에 189.4백만 원(12.2%), 석유 및 석탄제품이 183.4백만 원(11.8%), 숙박업이 182.2백만 원(11.7%),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가 180.5백만 원(11.6%) 순의 세수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음

2. 협회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가. 협회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총 지출 규모 추정

- 2007년 국내에서 개최된 협회회의에 참가한 외국인 참가자의 1인당 지출비용은 미화 2,982달러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협회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54,315명)로 곱하고, 대미원화환율(2007년 기준 929.18원)로 환산한 총 지출규모는 150,496.8백만 원으로 추산되었음
- 개별 지출규모를 보면, 숙박 관련 총지출이 약 49,812.3백만 원으로 전체 지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30.1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타 부문 관련 비용이 약 34,469.9백만 원(22.90%), 쇼핑 관련 비용이 26,193.1백만 원(17.40%), 식음료 관련 비용이 16,149.9백만 원(10.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3> 협회회의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 규모 추정

구분	1인당 지출비용 (US\$)	원화환산 (원)	외국인참가자 총 지출비용 (백만원)	구성비 (%)
숙박비	987.0	917,101	49,812.32	33.10
쇼핑비	519.0	482,244	26,193.11	17.40
식음료비	320.0	297,338	16,149.90	10.73
현지교통비	103.0	95,706	5,198.25	3.45
오락 관련 지출	151.0	140,306	7,620.73	5.06
여행사 관련지출	75.0	69,689	3,785.13	2.52
문화 관련 지출	51.0	47,388	2,573.89	1.71
운동 관련 지출	93.0	86,414	4,693.56	3.12
기타비용	683.0	634,630	34,469.93	22.90
소계	2982.0	2,770,815	150,496.82	100

주 1: 2007년 대미원화 환율 (매매기준율 적용): 929.18원

주 2: 협회회의 총 외국인 참가자 수 = 54,315명

나. 생산, 고용, 소득 유발효과 분석

1) 생산유발효과

- 2007년 개최된 협회회의 개최에 따른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에 의해 국내 경제에 유발된 총 생산파급효과는 281,654.8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에서 직접효과는 전체효과의 64.6%에 해당하는 181,974.5백만 원에 달했고, 간접효과는 35.4%인 99,680.3 백만 원으로 나타났음
- 국제회의산업 부문 중에서 숙박업 부문이 전체 생산파급효과 중 18.2%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총 51,242.9백만 원의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뒤를 기타 부문에 40,159.0백만 원 (14.3%), 음식점업 부문에 33,150.4백만 원(11.8%), 소매업 부문에 29,869.4백만 원(10.6%) 등의 순으로 많이 분석되었음
- 국제회의산업 외 부문으로 미친 생산파급효과는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부문에 17,398.2백만 원(6.2%), 음식료품 부문에 13,599.4백만 원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2) 고용유발효과

- 2007년 간 협회회의 개최에 따른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이 국내 경제에 유발시킨 고용파급효과는 총 약 5,964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에서 직접효과는 전체의 81.6%에 해당하는 4,865명이고, 간접효과는 1,099명(18.4%)으로 나타났음
- 산업별로는 국제회의산업으로 분류한 숙박업 부문에 가장 많은 1,714명(전체의 28.7%)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소매업 부문(1,517명, 25.4%)과, 음식점업 부문(1,103명, 18.5%)이 높은 고용효과를 보였음
- 국제회의산업 분류 외에서는 농림수산물 부문에서 437명(7.3%)의 고용파급이 유발되었으며,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부문이 108명(1.8%)으로 그 뒤를 따랐음

3) 소득유발효과

- 2007년 간 협회회의 개최에 따른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이 국내 경제에 유발시킨 소득효과는 총 54,404.6백만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에서 직접효과는 전체효과의 71.4%에 해당하는 38,822.9백만 원이고, 간접효과는 15,581.8백만 원(28.6%)임
- 국제회의산업 분류 내에서는 역시 숙박업 부문이 16,884.5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유발효과(31.2%)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음식점업 부문 7,590.9백만 원(14.0%), 소매업 부문 7,221.9백만 원(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국제회의산업 분류 외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부문이 2,883.5백만 원(5.3%)의 소득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뒤로는 금융 및 보험 부문이 2,545백만 원(4.7%), 통신 및 방송 부문이 1,474백만 원(2.7%) 등 순으로 나타났음



<표 5-14> 협회회의 개최에 따른 생산·고용·소득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 명)

구 분	생산유발효과	비율	고용유발효과	비율	소득유발효과	비율
1. 농림수산물	7,508,266,016	2.7	437,092,598	7.3	644,163,259	1.2
2. 광산물	188,287,871	0.1	1,351,614	0.0	41,186,421	0.1
3. 음식료품	13,599,384,497	4.8	65,179,845	1.1	1,052,809,088	1.9
4. 섬유 및 가죽제품	2,610,484,306	0.9	28,446,800	0.5	435,686,679	0.8
5. 목재 및 종이제품	4,368,407,886	1.6	27,472,240	0.5	500,958,083	0.9
6. 인쇄, 출판 및 복제	1,832,558,572	0.7	24,187,427	0.4	383,173,070	0.7
7. 석유 및 석탄제품	6,446,083,927	2.3	2,206,918	0.0	158,945,799	0.3
8. 화학제품	7,296,395,758	2.6	26,651,929	0.4	708,045,894	1.3
9. 비금속광물제품	952,510,996	0.3	6,041,268	0.1	150,307,329	0.3
10. 제1차 금속	1,324,005,109	0.5	2,579,848	0.0	92,682,057	0.2
11. 금속제품	1,185,935,436	0.4	12,684,064	0.2	233,765,581	0.4
12. 일반기계	946,203,351	0.3	6,812,917	0.1	147,026,422	0.3
13. 전기 및 전자기기	2,144,272,802	0.8	8,422,899	0.1	193,767,571	0.4
14. 정밀기기	245,768,360	0.1	2,247,063	0.0	35,002,670	0.1
15. 수송장비	618,402,930	0.2	2,576,062	0.0	74,918,062	0.1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1,522,465,673	0.5	20,309,534	0.3	281,535,665	0.5
17. 전력, 가스 및 수도	6,705,889,577	2.4	15,321,512	0.3	518,510,807	1.0
18. 건설	1,765,874,356	0.6	22,214,245	0.4	474,252,821	0.9
19. 도소매	2,369,736,280	0.8	73,640,225	1.2	675,429,082	1.2
20. 운수 및 보관	931,368,823	0.3	17,452,725	0.3	333,389,834	0.6
21. 통신 및 방송	6,967,769,332	2.5	26,061,532	0.4	1,474,026,992	2.7
22. 금융 및 보험	6,474,075,695	2.3	71,334,057	1.2	2,544,992,434	4.7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7,398,203,474	6.2	107,865,658	1.8	2,883,498,589	5.3
24. 공공행정 및 국방	-	0.0	-	0.0	-	0.0
25. 교육 및 보건	1,696,779,828	0.6	36,180,918	0.6	950,519,218	1.7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813,746,861	0.3	30,875,300	0.5	221,544,497	0.4
27. 기타	40,158,994,797	14.3	-	0.0	-	0.0
28. 숙박업	51,242,884,155	18.2	1,713,857,290	28.7	16,984,509,749	31.2
29. 음식점업	33,150,428,400	11.8	1,103,334,529	18.5	7,590,929,098	14.0
30. 운수업	1,442,331,863	0.5	22,610,960	0.4	287,375,277	0.5
31. 운수보조업	325,066,707	0.1	1,305,910	0.0	84,254,993	0.2
32. 차량 임대업	7,431,804,066	2.6	44,700,817	0.7	964,302,451	1.8
33. 여행사업	3,850,018,504	1.4	41,658,480	0.7	1,414,215,869	2.6
34. 문화·공연	3,529,446,119	1.3	35,725,249	0.6	1,048,982,088	1.9
35. 운동·경기	4,852,148,790	1.7	105,184,385	1.8	1,235,498,156	2.3
36. 오락·유흥업	7,889,408,352	2.8	303,533,216	5.1	2,362,550,869	4.3
37. 소매업	29,869,371,892	10.6	1,516,617,272	25.4	7,221,880,550	13.3
직접효과(a)	181,974,505,076	64.6	4,864,611,236	81.6	38,822,868,830	71.4
간접효과(b)	99,680,276,287	35.4	1,099,126,066	18.4	15,581,768,195	28.6
총효과(a+b)	281,654,781,363	100.0	5,963,737,302	100	54,404,637,025	100.0

다. 부가가치·수입·간접세 유발효과 분석

1) 부가가치유발효과

- 2007년 간 협회회의 개최에 따른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이 국내 경제에 유발시킨 부가가치효과는 총 128,933.7백만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63.8%인 82,215.8백만 원이 직접효과이고, 간접효과는 46,717.9백만 원(36.2%)임
- 국제회의산업 분류 내에서는 숙박업 부문에 유발된 부가가치효과가 33,026.8백만 원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비중(25.6%)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소매업(18,303.2백만 원, 14.2%)과 음식점업(12,703.9백만 원, 9.9%) 부문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국제회의산업 분류 외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부문이 전체의 9.7%(12,558.4백만 원)에 이르는 높은 부가가치파급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뒤를 농림수산물(3.6%), 금융 및 보험(3.5%), 통신 및 방송(3.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2) 수입(import)유발효과

- 2007년 간 협회회의 개최에 따른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이 국내 경제에 유발시킨 수입파급효과는 총 21,563.3백만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41.9%인 9,033.2백만 원이 직접효과이고, 그 보다 많은 58.1%(12,530.1백만 원)가 간접효과로 나타났음
- 기타 부문은 국제회의 개최로 유발되는 전체 수입효과의 26%에 달하는 5,513백만 원의 수입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17.5%, 3,780.3백만 원)과 전력 및 가스 및 수도(7.1%, 1,522.1백만 원), 화학제품(6.5%, 1,411.1백만 원) 등의 순으로 수입유발효과가 크다고 분석되었음



<표 5-15> 협회회의 개최에 따른 부가가치 · 수입 · 순간접세 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

구 분	부가가치유발효과	비율	수입유발효과	비율	간접세유발효과	비율
1. 농림수산물	4,687,003,713	3.6	189,462,585	0.9	89,244,908	0.8
2. 광산물	119,395,779	0.1	1,546,714	0.0	946,130	0.0
3. 음식료품	3,673,835,350	2.8	1,301,104,333	6.0	1,250,584,201	10.5
4. 섬유 및 가죽제품	775,623,155	0.6	397,701,147	1.8	24,763,424	0.2
5. 목재 및 종이제품	1,160,652,067	0.9	955,719,874	4.4	33,080,471	0.3
6. 인쇄, 출판 및 복제	572,113,832	0.4	71,664,894	0.3	18,483,009	0.2
7. 석유 및 석탄제품	2,113,643,403	1.6	3,780,321,396	17.5	1,413,858,599	11.9
8. 화학제품	1,793,937,549	1.4	1,411,113,380	6.5	47,697,330	0.4
9. 비금속광물제품	323,494,234	0.3	66,112,087	0.3	4,551,433	0.0
10. 제1차 금속	279,277,137	0.2	260,751,724	1.2	3,272,185	0.0
11. 금속제품	408,620,308	0.3	105,737,124	0.5	6,940,253	0.1
12. 일반기계	290,618,039	0.2	110,783,591	0.5	25,315,503	0.2
13. 전기 및 전자기기	585,739,717	0.5	693,766,515	3.2	23,263,458	0.2
14. 정밀기기	63,080,823	0.0	43,032,806	0.2	5,891,311	0.0
15. 수송장비	148,156,385	0.1	66,988,109	0.3	21,523,988	0.2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517,727,476	0.4	206,546,393	1.0	27,375,478	0.2
17. 전력, 가스 및 수도	3,057,948,946	2.4	1,522,107,859	7.1	190,131,285	1.6
18. 건설	776,282,187	0.6	54,483,919	0.3	67,030,394	0.6
19. 도소매	1,538,073,606	1.2	147,760,226	0.7	62,233,841	0.5
20. 운수 및 보관	486,898,163	0.4	11,561,909	0.1	20,716,395	0.2
21. 통신 및 방송	4,073,860,323	3.2	301,438,128	1.4	336,724,963	2.8
22. 금융 및 보험	4,452,553,833	3.5	105,013,098	0.5	399,844,332	3.4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2,558,395,654	9.7	140,697,020	0.7	1,313,363,711	11.1
24. 공공행정 및 국방	-	0.0	-	0.0	-	0.0
25. 교육 및 보건	1,138,013,899	0.9	42,113,614	0.2	6,457,557	0.1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383,809,393	0.3	11,811,509	0.1	29,638,580	0.2
27. 기타	2,257,732,368	1.8	5,513,206,711	25.6	-	0.0
28. 숙박업	33,026,800,766	25.6	444,680,712	2.1	1,507,011,931	12.7
29. 음식점업	12,703,895,171	9.9	2,127,438,880	9.9	1,727,323,426	14.5
30. 운수업	468,764,931	0.4	529,096,080	2.5	16,895,691	0.1
31. 운수보조업	270,372,803	0.2	1,615,322	0.0	2,289,910	0.0
32. 차량 임대업	4,419,218,062	3.4	55,969,976	0.3	92,436,871	0.8
33. 여행사업	2,454,869,181	1.9	44,864,348	0.2	35,073,580	0.3
34. 문화 · 공연	1,727,136,830	1.3	174,499,259	0.8	36,142,473	0.3
35. 운동 · 경기	2,955,008,246	2.3	101,244,874	0.5	1,327,865,321	11.2
36. 오락 · 유흥업	4,367,889,826	3.4	130,869,422	0.6	277,516,567	2.3
37. 소매업	18,303,225,501	14.2	440,445,790	2.0	1,430,956,855	12.0
직접효과(a)	82,215,775,951	63.8	9,033,219,971	41.9	6,434,327,023	54.2
간접효과(b)	46,717,892,707	36.2	12,530,051,355	58.1	5,442,118,339	45.8
총효과(a+b)	128,933,668,657	100	21,563,271,326	100	11,876,445,362	100

3) 간접세유발효과

- 2007년 간 협회회의 개최에 따른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이 국내 경제에 유발시킨 세수파급액은 총 11,876.4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접효과는 54.2%인 6,434.3백만 원이고, 나머지 45.8%에 해당하는 5,442.1백만 원은 간접효과임
- 가장 많은 세수파급이 발생한 부문은 음식점업으로 1,727.3백만 원(전체의 14.5%)의 세수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숙박업에 1,507백만 원(12.7%), 소매업에 1,431백만 원(12.0%), 석유 및 석탄제품에 1,413.9백만 원(11.9%), 운동·경기에 1,327.9백만 원(11.2%),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에 1,313.4백만 원(11.1%) 순의 세수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음

3. 학회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가. 학회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총 지출 규모 추정

- 2007년 국내에서 개최된 학회회의에 참가한 외국인 참가자의 1인당 지출비용은 미화 1,711달러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정부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31,046명)로 곱하고, 대미원화환율(2007년 기준 929.18원)로 환산한 총 지출규모는 49,357.76백만 원으로 추산되었음
- 개별 지출 규모를 보면, 숙박 관련 총지출이 약 17943.03백만 원으로 전체 지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36.3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타 부문 관련 비용이 12,404.4백만 원(25.13%), 쇼핑 관련 비용이 6,548.3백만 원(13.27%), 식음료 관련 비용이 4,990.6백만 원(10.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6> 학회회의 외국인 참가자 총 지출 규모 추정

구분	1인당 지출비용 (US\$)	원화환산 (원)	외국인참가자 총 지출비용 (백만원)	구성비(%)
숙박비	622.0	577,950	17,943.03	36.35
쇼핑비	227.0	210,924	6,548.34	13.27
식음료비	173.0	160,748	4,990.59	10.11
현지교통비	81.0	75,264	2,336.63	4.73
오락 관련 지출	39.0	36,238	1,125.05	2.28
여행사 관련지출	73.0	67,830	2,105.85	4.27
문화 관련 지출	26.0	24,159	750.03	1.52
운동 관련 지출	40.0	37,167	1,153.89	2.34
기타비용	430.0	399,547	12,404.35	25.13
소계	1711.0	1,589,827	49,357.76	100.0

주 1: 2007년 대미원화 환율 (매매기준율 적용): 929.18원

주 2: 학회회의 총 외국인 참가자 수 = 31,046명

나. 생산, 고용, 소득 유발효과 분석

1) 생산유발효과

- 2007년 개최된 학회회의 개최에 따른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에 의해 국내 경제에 유발된 총 생산파급효과는 93,012.2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에서 직접효과는 전체효과의 64.6%에 해당하는 60,129.2백만 원에 달했고, 간접효과는 35.4%인 32,993 백만 원으로 나타났음
- 국제회의산업 분류인 숙박업 부문이 전체 생산파급효과 중 19.8%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총 18,447.9백만 원의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뒤를 기타 부문에 14,172.4백만 원(15.2%), 음식점업 부문에 10,990.2백만 원(11.8%) 소매업 7,790.2백만 원(8.4%)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음
- 국제회의산업 분류 외 부문으로 미친 생산파급효과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에 5,445.7백만 원(5.9%), 음식료품 부문에 4,536.7백만 원(4.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5-17> 학회회의 개최에 따른 생산·고용·소득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 명)

구 분	생산유발효과	비율	고용유발효과	비율	소득유발효과	비율
1. 농림수산물	2,507,393,788	2.7	145,967,559	7.8	215,119,067	1.2
2. 광산물	63,610,971	0.1	456,628	0.0	13,914,388	0.1
3. 음식료품	4,536,743,983	4.9	21,743,945	1.2	351,216,332	2.0
4. 섬유 및 가죽제품	904,312,606	1.0	9,854,417	0.5	150,928,755	0.8
5. 목재 및 종이제품	1,497,831,344	1.6	9,419,629	0.5	171,767,621	1.0
6. 인쇄, 출판 및 복제	601,849,532	0.6	7,943,643	0.4	125,841,929	0.7
7. 석유 및 석탄제품	2,187,974,022	2.4	749,087	0.0	53,950,900	0.3
8. 화학제품	2,495,425,945	2.7	9,115,174	0.5	242,157,708	1.4
9. 비금속광물제품	323,191,939	0.3	2,049,834	0.1	51,000,092	0.3
10. 제1차 금속	447,428,331	0.5	871,822	0.0	31,320,634	0.2
11. 금속제품	403,581,822	0.4	4,316,472	0.2	79,552,099	0.4
12. 일반기계	321,291,831	0.3	2,313,387	0.1	49,924,251	0.3
13. 전기 및 전자기기	721,469,535	0.8	2,833,998	0.2	65,195,821	0.4
14. 정밀기기	83,519,862	0.1	763,623	0.0	11,895,030	0.1
15. 수송장비	216,092,819	0.2	900,171	0.0	26,179,817	0.1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507,939,172	0.5	6,775,856	0.4	93,928,585	0.5
17. 전력, 가스 및 수도	2,224,875,987	2.4	5,083,362	0.3	172,031,313	1.0
18. 건설	563,558,302	0.6	7,089,418	0.4	151,352,398	0.9
19. 도소매	798,578,912	0.9	24,816,066	1.3	227,613,497	1.3
20. 운수 및 보관	314,860,309	0.3	5,900,101	0.3	112,738,974	0.6
21. 통신 및 방송	2,205,317,760	2.4	8,248,545	0.4	466,533,878	2.6
22. 금융 및 보험	2,051,237,785	2.2	22,601,390	1.2	806,353,718	4.5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5,445,732,844	5.9	33,762,541	1.8	902,551,695	5.1
24. 공공행정 및 국방	-	0.0	-	0.0	-	0.0
25. 교육 및 보건	568,495,150	0.6	12,122,183	0.6	318,465,997	1.8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279,089,460	0.3	10,589,252	0.6	75,983,157	0.4
27. 기타	14,172,428,652	15.2	-	0.0	-	0.0
28. 숙박업	18,447,891,097	19.8	617,003,769	33.0	6,114,573,625	34.4
29. 음식점업	10,990,211,347	11.8	365,783,498	19.6	2,516,586,625	14.2
30. 운수업	498,999,430	0.5	7,822,649	0.4	99,422,534	0.6
31. 운수보조업	112,557,091	0.1	452,182	0.0	29,175,099	0.2
32. 차량 임대업	3,149,392,141	3.4	18,942,964	1.0	408,644,993	2.3
33. 여행사업	2,129,356,075	2.3	23,040,340	1.2	782,170,149	4.4
34. 문화·공연	1,025,839,568	1.1	10,383,605	0.6	304,888,465	1.7
35. 운동·경기	1,204,035,951	1.3	26,100,968	1.4	306,582,562	1.7
36. 오락·유흥업	1,219,864,156	1.3	46,932,453	2.5	365,298,772	2.1
37. 소매업	7,790,179,752	8.4	395,546,354	21.2	1,883,526,607	10.6
직접효과(a)	60,129,198,738	64.6	1,503,733,952	80.5	12,682,271,799	71.3
간접효과(b)	32,882,960,533	35.4	364,562,936	19.5	5,096,115,290	28.7
총효과(a+b)	93,012,159,271	100	1,868,296,888	100	17,778,387,089	100

2) 고용유발효과

- 2007년 간 학회회의 개최에 따른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이 국내 경제에 유발시킨 고용파급효과는 총 약 1,868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에서 직접효과는 전체의 80.5%에 해당하는 약 1,504명이고, 간접효과는 약 365명(19.5%)으로 나타났음
- 산업별로는 국제회의산업인 숙박업 부문에 가장 많은 617명(전체의 33%)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소매업 부문(396명, 21.2%)과, 음식점업 부문(366명, 19.6%)이 높은 고용효과를 보였음
- 국제회의산업 분류 외에서는 농림수산물 부문에서 146명(7.8%)의 고용파급이 유발되었으며,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부문이 34명(1.8%)으로 그 뒤를 따르는데, 국제회의 산업 분류에 있는 운동·경기(1.4%), 여행사업(1.2%), 차량임대업(1.0%), 문화·공연(0.6%) 부문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고용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3) 소득유발효과

- 2007년 간 학회회의 개최에 따른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이 국내 경제에 유발시킨 소득효과는 총 17,778.3백만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에서 직접효과는 전체효과의 71.3%에 해당하는 12,682.2백만 원이고, 간접효과는 5,096.1백만 원(28.7%)임
- 국제회의산업 분류 내에서는 숙박업 부문이 6,114.6백만 원의 소득유발효과를 가지며 전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34.4%)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음식점업 2,516.6백만 원(14.2%), 소매업 1,883.5백만 원(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국제회의산업 분류 외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부문이 902.6백만 원(5.1%)의 소득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뒤로는 금융 및 보험 806.4백만 원(4.5%), 통신 및 방송 466.5백만 원(2.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다. 부가가치·수입·간접세 유발효과 분석

1) 부가가치유발효과

- 2007년 간 학회회의 개최에 따른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이 국내 경제에 유발시킨 부가가치효과는 총 42,059.7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직접효과는 26,813.1백만 원으로 총 파급의 63.8%에 해당하고, 간접효과는 15,246.6백만 원(36.2%)임
- 국제회의산업 분류 내에서는 숙박업 부문에 유발된 부가가치효과가 11,890백만 원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비중(28.3%)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소매업(4,773.6백만 원, 11.3%)과 음식점업(4,211.7백만 원, 10.0%) 부문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국제회의산업 분류 외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부문이 전체의 9.3%(3,930.9백만 원)에 이르는 높은 부가가치파급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뒤를 농림수산물(3.7%), 금융 및 보험(3.4%), 통신 및 방송(3.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2) 수입(import)유발효과

- 2007년 간 학회회의 개최에 따른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이 국내 경제에 유발시킨 수입파급효과는 총 7,298백만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42.1%인 3,070.5백만 원이 직접효과이고, 그 보다 많은 57.9%(4,227.7백만 원)가 간접효과로 나타났음
- 기타 부문은 국제회의 개최로 유발되는 전체 수입효과의 27%에 달하는 1,946백만 원의 수입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17.6%, 1,283.2백만 원), 전력 및 가스 및 수도(6.9%, 1,522.1백만 원), 화학제품(6.6%, 1,411.1백만 원) 등의 순으로 수입유발효과가 크다고 분석되었음



3) 간접세유발효과

- 2007년 간 학회회의 개최에 따른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이 국내 경제에 유발시킨 세수파급액은 총 3,715.3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접효과는 51.9%인 1,929.9백만 원이고, 나머지 48.1%에 해당하는 1,785.4백만 원은 간접효과임
- 가장 많은 세수파급이 발생한 부문은 음식점업으로 572.7백만 원(전체의 15.4%)의 세수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숙박업에 542.5백만 원(14.6%), 석유 및 석탄제품에 479.9백만 원(12.9%), 음식료품에 417.2백만 원(11.2%),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에 411.1백만 원(11.1%), 소매업에 373.2백만 원(10%) 순의 세수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5-18> 학회회의 개최에 따른 부가가치 · 수입 · 순간접세 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

구 분	부가가치유발효과	비율	수입유발효과	비율	간접세유발효과	비율
1. 농림수산물	1,565,230,326	3.7	63,271,250	0.9	29,803,441	0.8
2. 광산물	40,336,576	0.1	522,540	0.0	319,640	0.0
3. 음식료품	1,225,588,753	2.9	434,047,442	5.9	417,193,964	11.2
4. 섬유 및 가죽제품	268,688,126	0.6	137,769,966	1.9	8,578,442	0.2
5. 목재 및 종이제품	397,962,328	0.9	327,695,540	4.5	11,342,573	0.3
6. 인쇄, 출판 및 복제	187,893,967	0.4	23,536,227	0.3	6,070,201	0.2
7. 석유 및 석탄제품	717,433,016	1.7	1,283,152,766	17.6	479,905,379	12.9
8. 화학제품	613,541,875	1.5	482,612,758	6.6	16,312,892	0.4
9. 비금속광물제품	109,763,348	0.3	22,432,190	0.3	1,544,326	0.0
10. 제1차 금속	94,377,890	0.2	88,117,480	1.2	1,105,790	0.0
11. 금속제품	139,056,414	0.3	35,983,100	0.5	2,361,818	0.1
12. 일반기계	98,682,181	0.2	37,617,646	0.5	8,596,125	0.2
13. 전기 및 전자기기	197,080,354	0.5	233,427,488	3.2	7,827,317	0.2
14. 정밀기기	21,436,888	0.1	14,623,928	0.2	2,002,057	0.1
15. 수송장비	51,772,655	0.1	23,408,726	0.3	7,521,471	0.2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172,729,125	0.4	68,909,956	0.9	9,133,265	0.2
17. 전력, 가스 및 수도	1,014,565,105	2.4	505,004,350	6.9	63,081,683	1.7
18. 건설	247,741,637	0.6	17,387,923	0.2	21,391,988	0.6
19. 도소매	518,316,907	1.2	49,793,861	0.7	20,972,242	0.6
20. 운수 및 보관	164,649,289	0.4	3,909,770	0.1	7,005,448	0.2
21. 통신 및 방송	1,289,388,775	3.1	95,406,054	1.3	106,574,441	2.9
22. 금융 및 보험	1,410,744,210	3.4	33,272,280	0.5	126,686,414	3.4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3,930,850,296	9.3	44,038,979	0.6	411,090,419	11.1
24. 공공행정 및 국방	-	0.0	-	0.0	-	0.0
25. 교육 및 보건	381,285,011	0.9	14,109,924	0.2	2,163,567	0.1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31,635,179	0.3	4,050,996	0.1	10,165,149	0.3
27. 기타	796,771,872	1.9	1,945,654,893	26.7	-	0.0
28. 숙박업	11,889,940,179	28.3	160,088,986	2.2	542,537,615	14.6
29. 음식점업	4,211,665,300	10.0	705,300,255	9.7	572,651,776	15.4
30. 운수업	162,177,478	0.4	183,050,100	2.5	5,845,362	0.2
31. 운수보조업	93,622,385	0.2	559,340	0.0	792,930	0.0
32. 차량 임대업	1,872,743,694	4.5	23,718,544	0.3	39,172,217	1.1
33. 여행사업	1,357,731,472	3.2	24,813,435	0.3	19,398,387	0.5
34. 문화 · 공연	501,995,318	1.2	50,718,513	0.7	10,504,872	0.3
35. 운동 · 경기	733,270,215	1.7	25,123,399	0.3	329,503,003	8.9
36. 오락 · 유흥업	675,365,263	1.6	20,235,094	0.3	42,909,747	1.2
37. 소매업	4,773,633,681	11.3	114,871,931	1.6	373,205,468	10.0
직접효과(a)	26,813,116,993	63.8	3,070,525,051	42.1	1,929,883,085	51.9
간접효과(b)	15,246,550,090	36.2	4,227,712,581	57.9	1,785,388,344	48.1
총효과(a+b)	42,059,667,083	100	7,298,237,632	100	3,715,271,429	100

국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PART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
- 1. 2007년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 2. 정책적 제언



Korea Tourism Organization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2007년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 본 연구는 2007년도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로 인해 유발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 및 분석하였음
- 특히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순 주입 직접소비지출(net injected direct expenditure)에 의하여 국내 전 경제부문에 걸쳐 발생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최된 국제회의의 외국인 참가자 지출 총액을 추정하고, 한국은행이 발간한 2003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국제회의산업과 연관되는 전 산업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분석의 세분화를 위하여 국제회의를 유형별로 정부회의, 협회회의, 학회회의로 분류하여 각 회의 유형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였음

1. 2007년 국내 국제회의산업의 총 수요

- 2007년도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의 총 수요는, 개최된 국제회의 건수가 465회이고 전체 참가자 수가 498,966명(외국인 참가자 93,144명, 내국인 참가자 404,74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외국인 참가자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미화 2,488달러로 조사되었고 이를 통해 한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 총액은 (대미원화환율 929.18원 기준) 215,330.3백만 원으로 추정되었음

- 회의 유형별로는 1인당 평균 지출액에서 협회회의가 2,982달러로 가장 많았고, 정부회의가 2,770달러, 학회회의가 1,711달러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출 총액에서는 협회회의가 정부회의가 150,496.8백만 원로 가장 많았고, 학회회의 49,457.8백만 원, 정부회의 20,032.1백만 원 순으로 추정되었음

<표 6-1> 항목별 국제회의산업의 기초 수요(참가자 1인당 평균 지출) 비교

(단위: US\$)

기초 수요 도출	전체1인평균지출	정부1인평균지출	협회1인평균지출	학회1인평균지출
숙박비	814.0	834.0	987.0	622.0
쇼핑비	412.0	489.0	519.0	227.0
식음료비	269.0	313.0	320.0	173.0
현지교통비	107.0	138.0	103.0	81.0
오락 관련 지출	91.0	82.0	151.0	39.0
여행사 관련지출	108.0	176.0	75.0	73.0
문화 관련 지출	66.0	120.0	51.0	26.0
운동 관련 지출	75.0	93.0	93.0	40.0
기타비용	546.0	525.0	683.0	430.0
소계	2488.0	2770.0	2982.0	1711.0

<표 6-2> 항목별 국제회의산업의 최종 수요 비교

(단위: 백만원)

최종 수요 도출	전체 최종 수요	정부 최종 수요	협회 최종 수요	학회 최종 수요
숙박비	70,449.7	6,031.3	49,812.3	17,943.0
쇼핑비	35,657.6	3,536.4	26,193.1	6,548.3
식음료비	23,281.3	2,263.6	16,149.9	4,990.6
현지교통비	9,260.6	998.0	5,198.3	2,336.6
오락 관련 지출	7,875.9	593.0	7,620.7	1,125.1
여행사 관련지출	9,347.1	1,272.8	3,785.1	2,105.9
문화 관련 지출	5,712.1	867.8	2,573.9	750.0
운동 관련 지출	6,491.1	672.6	4,693.6	1,153.9
기타비용	47,255.0	3,796.7	34,469.9	12,404.4
소계	215,330.3	20,032.1	150,496.8	49,357.8

주 1: 참가자수는 전체-93144명, 정부-7783명, 협회-54,315명, 학회-31,046명

주 2: 2007년 대미원화 환율 (매매기준율 적용): 929.18원

2. 국제회의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요약

- 국제회의산업의 총 수요와 각 산업이 가지는 승수효과 도출을 통해 2007년 한해 국제회의 개최가 국가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그 결과, 총 생산유발효과는 401,090.17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37개 전산업 중 국제회의산업으로 분류 한 9가지 부문에 있어서 숙박업 부문이 전체 생산파급효과 중 가장 많은 총 72,421.2백만 원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타 부문이 55,344.6백만 원(13.8%), 음식점업 부문 46,710.4백만 원(11.6%) 등의 순으로 많게 분석되었음. 반면에 차량임대업(3.2%) 및 여행사업(2.4%), 오락·유흥업(2.1%), 문화·공연(1.8%), 운동·경기(1.7%) 부문은 다소 낮은 생산파급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전산업에 걸친 총 고용유발효과는 약 8,317명으로 추산된 가운데 이 중 숙박업 부문에 가장 많은 2,422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매업 부문에 2,073명, 음식점업 부문 1,555명, 오락·유흥업 317명, 운동·경기 145명, 여행사업 102명, 차량임대업 77명, 문화·공연 74명 순으로 나타남.
- 총 소득유발효과는 78,199.90백만 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숙박업 부문이 가장 많은 24,004.1백만 원의 파급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음식점업 부문이 10,695.9백만 원, 소매업 부문이 9,869.4백만 원 순으로 높은 파급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총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84,890.41백만 원인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역시 숙박업 부문이 가장 많은 46,646.5백만 원의 효과를 올렸고, 그 뒤로 소매업 25,013.1백만 원 음식점업 17,900.3백만 원 등의 순으로 높은 파급효과를 나타냈음

- 그 외 국제회의산업으로 인한 수입유발효과는 35,162.3백만 원으로 분석되었고, 18,035.5백만 원의 간접세유발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회의 유형별로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협회회의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가운데, 학회회의, 정부회의 순으로 높은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각 회의 유형별 참가자 수와 평균 소비지출 규모에 따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순 주입 소비지출 규모가 다르기 때문임

<표 6-3>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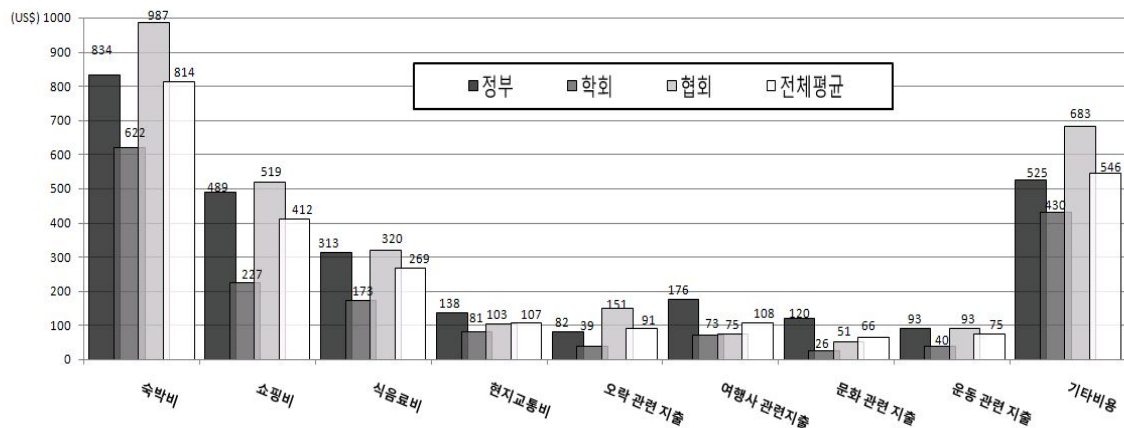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명)

구 분	국제회의 전체	정부회의	학회회의	협회회의
생산유발효과	401,090.17	36,850.26	93,012.16	281,654.78
고용유발효과	8,317	761.35	1,868	5,964
소득유발효과	78,199.90	7,346.00	17,778.39	54,404.64
부가가치유발효과	184,890.41	17,322.64	42,059.67	128,933.67
수입유발효과	30,440.01	2,709.60	7,298.24	21,563.27
간접세유발효과	16,695.50	1,552.71	3,715.27	11,87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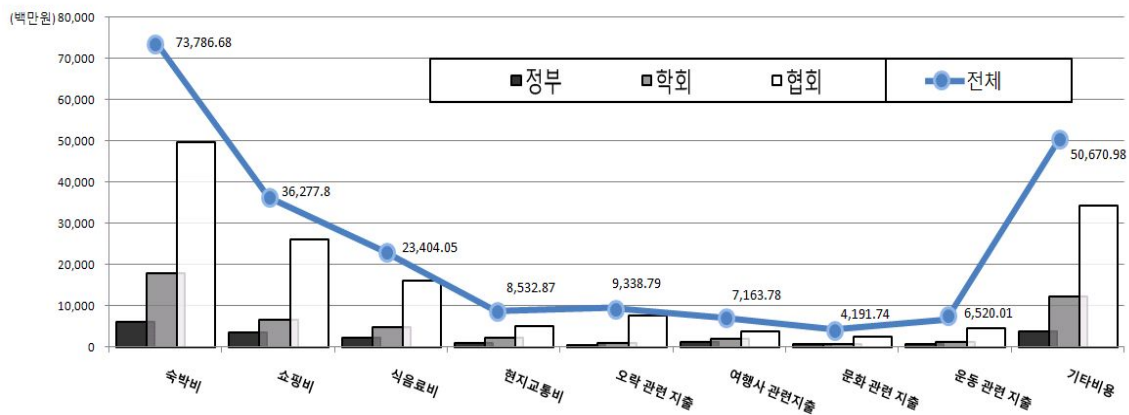
3. 분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 본 분석은 몇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함. 특히 회의 유형별 지출액 차이에서 기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차이는 향후 각 유형별 회의에 대한 정책적 함의사항을 도출할 수 있음
- [그림 6-1]에서 보면 정부회의 참가자 개인은 그 지출패턴에 있어서 국내여행과 문화·공연, 현지교통비 등에 관련하여 타 회의유형 참가자보다 많은 소비지출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림 6-2]와 같이 최종 수요차원에서 볼 때는 그 규모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정부회의 개최 횟수와 총 참가자수가 다른 두 회의유형에 비하여 작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학회회의 참가자들은 비록 1인당 지출 규모가 작으나 총 참가자 수가 많아 의미 있는 최종 수요 규모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학회회의 참가자의 지출패턴이 주로 회의참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숙박비 및 기타비용(등록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오락 관련이나 문화관련, 운동관련 지출에는 그 수요가 많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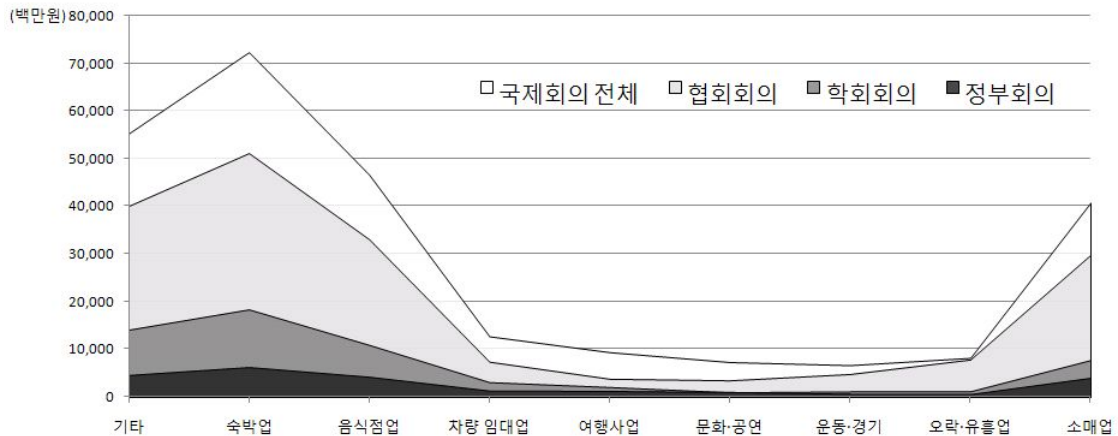
[그림 6-1] 국제회의의 유형별 참가자 1인당 지출항목별 평균 지출액 비교



[그림 6-2] 국제회의의 유형별 참가자 지출항목별 총 지출액 비교

- 학회회의 참가자가 방한 시 숙박비 및 등록비 외에 지출이 많지 않은 것은 참가자 유형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지출을 유발하는 매력적인 관광상품의 부재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됨

-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물가도 국제회의 참가에 대한 자비부담이 높은 학회회의 참가자들의 지출을 막는 장애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많은 학회회의 참가자 수를 고려할 때, 가격 전략을 사용한 특화 상품 개발이 필요함
- 협회회의 참가자들은 정부나 학회회의 참가자보다 숙박과 기타비용 이외에도 쇼핑, 식음료, 오락·유흥, 운동 부문에 관련하여 더 많은 소비 지출함을 알 수 있으며, 특이한 사항은 오락·유흥 부문에 대한 지출이 다른 두 회의보다 눈에 띄게 많다는 것임
- 협회회의는 그 개최횟수 측면에서 학회회의와 거의 차이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협회: 175건, 학회: 176건) 총 참가자 수(협회:54,315명, 학회:31,046명)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 1인당 지출액이 월등히 많아 최종 수요 측면에서 약 3배(정부회의의 약 7.5배) 이상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회의 유형별 참가자의 소비패턴과 총 규모의 차이에 기인하여 각 유형별로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규모도 큰 차이를 보임
- [그림 6-3]을 보면, 국제회의 개최로 인해 숙박업 부문에 매우 높은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됨을 알 수 있으며, 음식점업과 소매업 부문의 효과도 상당함. 그러나 차량임대업, 여행사업, 문화·공연, 운동·경기, 오락·유흥업 부문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제회의 상품 및 서비스 수익구조가 가진 한계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되며, 해당분야의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국제회의 연계 상품 및 참가자 서비스의 다각화 전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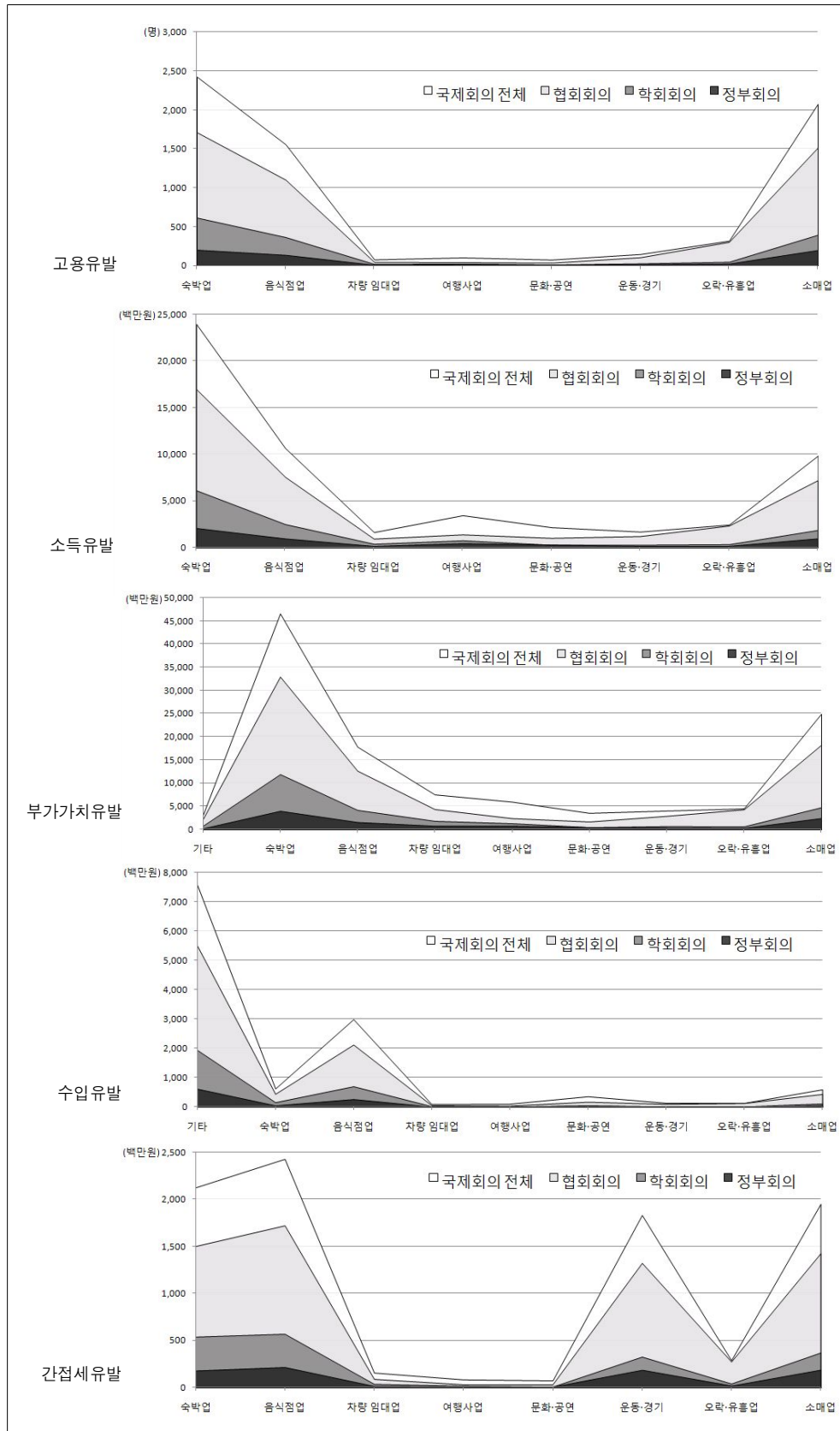


[그림 6-3] 국제회의 유형별 생산유발효과 비교

- [그림 6-3]에서는 또한, 회의 유형별 생산유발효과가 협회회의-학회회의-정부회의 순으로 많으며, 그 파급규모에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 줌. 이는 향후 관련 시장의 정책적 육성 방향에 큰 시사점을 제공함
- 협회회의로부터 유발된 생산효과는 국제회의의 전체 효과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오락·유흥업 부문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의 대부분은 협회회의로부터 발생되었고, 소매업과, 운동·경기, 음식점업 부분의 파급 규모도 다른 두 회의유형에 비해 월등하게 나타났음
- 이는 협회회의 시장이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양질의 시장임을 입증하는 결과이며, 따라서 향후 국제회의산업이 보다 높은 경제적 고부가가치 구조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협회회의 시장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육성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협회회의 시장의 높은 경제성은 나아가 기업회의 개최나 인센티브 여행의 유치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주고 있음. 따라서 국제회의산업을 우리나라 경제의 신(新)성장 동력으로서 더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국제회의 개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기업관련 회의나 인센티브 여행, 국제전시회 등을 모두 포함한 소위 MICE산업¹⁴⁾으로의 확대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4) Meeting & Inventive-travel & Convention & Exhibition을 포함한 개념으로 최근 국제회의 관련 산업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 국제회의산업이 유형적으로나 상품 및 서비스 차원에서 다각화 되면 관광산업, MICE산업, 기타 관련 산업 간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너지로 더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함
- 정부회의의 개최는 비록 경제적 파급효과는 높지 않을지 모르나, 경제 외적인 차원 즉, 정치, 사회, 환경, 인류, 문화적 차원에서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특히 정부회의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경험 기회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문화·관광의 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국제사회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하겠음
- 다음의 [그림 6-4]에서는 국제회의의 유형별 고용, 소득, 부가가치, 수입, 간접세유발효과에 대한 비교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 역시 앞에서 언급한 사항을 부연하고 있음



[그림 6-4] 국제회의의 유형별 고용·소득·부가가치·수입·간접세유발효과 비교

제2절 정책적 제언

- 본 연구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기초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한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음
- 그러나 컨벤션으로 칭하는 국제회의 분야에 대한 통계자료의 미흡과 소비 지출액 조사의 현실적인 한계 (현장조사와 사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출액 파악의 정확성이 요구됨)와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또한 국제회의 분류체계의 일관성 부재와 한정된 국제회의만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여 상대적으로 컨벤션 부문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제회의, 컨벤션이라는 범주를 최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MICE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산업으로 확대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체계 수립이 시급히 요구됨
- 이런 관점에서 국가적으로 컨벤션 통계 센터를 설립하여 이 분야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미래 국가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통계센터 설립 및 운영에 정책적 지원이 시급히 요구됨
- 아래 내용은 국제회의 등 관련분야를 포괄하여 산업적 토대를 구축할 ‘컨벤션 통계센터’구축과 운영방안임

1. 컨벤션 통계센터 설립의 필요성 및 현황

가. 필요성

- 컨벤션과 관련된 통계정보는 컨벤션 산업에 있어서 건실한 투자, 계획, 정책, 그리고 마케팅 결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 특히, 컨벤션통계정보를 이용한 추정 및 예측, 그리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은 지역이나 국가 전체에서 컨벤션산업의 중요성의 변화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에 대한 성취정도에 대한 평가 도구로, 그리고 미래 투자 기회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어진다 할 수 있음
- 컨벤션통계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시의성 등은 정부, 컨벤션 관련업체,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그리고 연구 및 학계 등이 앞서 언급한 부분들을 이해, 분석, 평가, 활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들로 알려지고 있음
- 현재 국내에서 집계되고 있는 컨벤션통계정보로는 한국관광공사 컨벤션부료를 통해 수집되고 있는 컨벤션 개최 수(UIA 기준 및 한국관광공사 기준), 참가인 수(내국인, 외래객 등), 표본추출에 의한 지출 규모 등에 국한되어 있음
- 컨벤션산업의 국제간, 국가간 비교를 위해 UIA의 기준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및 업체의 협조 부족 등으로 기초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회의 유형별 차별성 및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 통계의 신뢰성 및 활용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자료마저 매우 제한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그나마 정

확성 및 신뢰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의성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아울러, 실제 이용자 그룹인 정부, 업계, CVB, DMO, 연구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벤션통계정보 생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통계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예측 및 전망 기능에 대한 performance가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임
- 예를 들어, 컨벤션산업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전망 및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비과학적, 비객관적) ‘컨벤션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식의 호소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러한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객관적 호소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원논리를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CVB (Convention Visitors’ Bureau), DMO (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및 업계 등의 경영전략 또는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하는 데에도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현재 우리나라 컨벤션통계정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및 국제기구 등의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컨벤션통계정보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컨벤션통계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 컨벤션통계정보 현황 및 문제점

1) 방법론상의 문제점

- 데이터 수집 및 분류체계와 통계자료 수집방법상의 문제로 인해 현재 컨벤션통계정보의 정확성과 시의성, 그리고 통계의 활용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데이터 수집이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응답자의 recall bias에 대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음
- 국제기구(UIA)에서 제시한 기준과 국내 기준(관광공사) 등 일치되지 않는 점으로 인해 활용에 모호성 존재
- 결과가 상당 시간 흐른 후 발표되어 통계정보 활용의 시의성을 상실하고 있음
- 통계의 주요 기능인 예측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
- 방법론적 문제점으로 대표성, 일반화 (generalization), 표본추출, 집계 방법 등의 문제가 있음
- 특히, 지출(expenditure)에 대한 세부항목 명시가 세밀하지 않아, 컨벤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2) 관리 · 운영상의 문제점

- 컨벤션통계정보의 관리 및 운영은 통합관리 운영되어야 하며, 가급적 자료수집 기관과 통합 관리 · 운영하는 기관은 복수가 아닌 하나의 기관일 필요가 있음
- 컨벤션통계정보가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된다는 것은 방법의 일원화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제공 시, 해석상의 혼란을 피할 수 있게 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오독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만약, 방법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공되는 통계정보마다 분석의 단위, 개념, 정의, 그리고 결과가 달라 정책수립, 의사결정, 경영전략 수립,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에 큰 혼선을 빚을 것임

3) 산업통계의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가 컨벤션통계정보 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업계 또는 산업에 대한 정보일 것임, 즉 컨벤션 관련 사업형태, 주력사업, 설립형태, 자본구성, 법인구분, 재무사항, 인원현황 등 컨벤션 산업 관련 자료, 그리고 경제영향 또는 파급효과 및 기여도 등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지 않음
- 이는 전체적인 산업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의 건강성 및 전망을 예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2. 컨벤션통계센터 설립·운영 방안

가. 공사 KCB내 컨벤션통계센터 설립

1) 전문기관과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 컨벤션통계정보 관련 국가 중앙 부처와 협력하여 컨벤션마케팅리서치를 담당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 및 정부산하 기관 등에서 컨벤션통계정보 수집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컨벤션통계센터로 발전적 조직 설립
- 컨벤션통계정보를 수집,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한국관광공사 코리아컨벤션뷰로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필요
- 전문기관의 공간 및 인적 자원을 지원받으며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의 사업비 등을 투입할 필요 있음

나. 컨벤션통계센터 운영

1) 전문기관을 통한 통계정보의 정기적 공급

- 컨벤션통계정보를 전문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수요자에게 정기적으로 공급

2) 회원제 운영

- 컨벤션통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는 관련 업계의 자발적 참여 및 자료수집 시 적극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함

다. 컨벤션통계센터 업무 내용

- 컨벤션 개최 통계정보 수집
- 컨벤션 참가자 통계정보 수집
- 업계통계조사
- 컨벤션 경제적 효과 분석
- 기타 컨벤션관련 통계업무

참고문헌

- 김고현 (2003). 우리나라 국제회의 산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무역협회 연구소.
- 김남조 (1998). 산업연관분석에서 산업통합 방법에 의한 관광승수의 비교분석. 관광학연구, 22(1): 172-188.
- 김성섭 · 이강욱 (2002).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관광학연구, 25(4): 109-126.
- 김안호 · 기성래 (2005). 향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향만경제학회지, 21(4).
- 김철원(2006). 국제회의산업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무역전시연구 1(1).
- 김철원 (1989).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철원 (2004). 한 · 일 FTA체결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한 · 일 관광교류협력 확대방안. 문화관광부.
- 교통개발연구원 (1992). 관광산업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권경상 (1994). 한국관광산업의 비교우위성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강욱 (1997). 관광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한국관광연구원.
- 이강욱 · 류광훈 (1999).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관광연구원.
- 이충기 (1999). 2002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Input-Output)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2(3): 73-92.
- 이충기 · 박창규 (1996). 한국카지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 모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19(2): 27-45.
- 이충기 (2003). 월드컵 외국인방문객의 실제 관광지출액 추정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26(4): 11-26.
- 최승묵 · 김남조 (2002). 관광비와 다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관광산업의 지역간 연관분석. 관광학연구, 25(4): 143-160.
- 통계청 (2003).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 조사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2000). 문화 · 관광 · 체육 · 과학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 한국관광공사 (1993). 관광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투입-산출분석.
- 한국관광공사 (2004, 2007). 국제회의참가자 실태조사.
- 한국관광공사 (2005).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관광공사 (2007). 2006 국제회의 개최 현황.
- 한국관광연구원 (1997). 관광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한국관광연구원(1998).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안)
- 한국관광연구원 (2000). 한국 관광위성계정 개발.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관광산업의 지방경제 기여효과 분석.
- 한국은행 (1987, 2007). 산업연관분석해설.



- Archer, B. (1995). Importance of tourism for the economy of Bermuda.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4), 918-930.
- Andrew, B. (1997). Tourism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ornwall.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3), 721-735.
- Braun, B. M. (1992).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conventions: The case of Orlando. Florida. *Journal of Travel Research*, 30(3): 32-37.
- Chulwon Kim, Scott, D., Thigphen, J., & Kim, S. (1998). Economic Impact of a Birding Festival.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5(1&2).
- Convention Liaison Council (1995). The economic impact of conventions, expositions, meetings and incentive travel. Deloitte & Touche Consulting Group.
- Deepak, C., Erin, S. and Frederick, W. C. (2003). The significance of festivals to rural economies: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s of scottish highland games in North Carolina. *Journal of Travel Research*, 41(4), 421-427.
- Fletcher, J. E. (1989). Input-output analysis and tourism impact stud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6, 514-529.
- Heng, T. M. and Low, L. (1990). Economic impact of tourism in Singapor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 246-269.
- Hurley, A., Archer, B. and Fletcher, J. (1994). The economic impact of european community grants for tourism in the Republic of Ireland. *Tourism Management*, 15(3), 203-211.
- Jie, Z. (2002). Tourism impact analysis for Danish regions. *Tourism Economics*, 8(2), 165-188.
- Johnson, R. L. and Moore, E. (1993). Tourism impact estimation, tourism resear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20(2), 279-288.
- Johnson, R. L., Obermiller, F. and Radke, H. (1989). The economic impact of tourism sal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1(2), 140-154.
- Khan, H. and Seng, C. F. (1990). Tourism multiplier effects on Singapor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4), 408-418.
- Kim, S., Chon, K. & Chung, K.(2003). Convention industry in South Korea: an economic impact analysis, *Tourism Management*, 24: 533-541.
- Larry, D., Peter, F., Ray, S. and Thiep, V. (2003). Tourism's contribution to a state economy: a multi-regional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Tourism Economics*, 9(4), 431-448.
- Lee, C. K. and Kwon, K. S. (1997). The economic impact of the casino industry in South Korea.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1), 52-58.

- Ruiz, A. L. (1985). Tourism and the economy of Puerto Rico : an input-output approach. *Tourism Management*, 6(1), 61-65.
- Smith, S. L. J. (1988). Defining tourism: a supply-side view.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2), 179-190.
- United Nations. (1990). Guidelines on input-output analysis of tourism.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Vaughan, D. R., Farr, H. and Slee, R. W. (2000). Estimating and interpreting the local economic benefits of visitor spending: an explanation. *Leisure Studies*, 19(2), 95-118.

부 록

<부록 1> 2007년 국내개최 국제회의 현황

<부록 2> 연계 논문 발간

<부록 1> 2007년 국내개최 국제회의 현황

행사명(국문)	개최기간	개최도시	개최장소
2007 한국알콘세미나	1/2-1/7	제주	한화리조트
2007 동계 국제학술대회 주요국의 보험상품 개발현황 및 발전방안	1/8-1/9	부산	동의대학교 자연대학 세미나실
2007 국제중력렌즈워크숍	1/15-1/17	대전	한국천문연구원
한중일 농구 지도자 워크숍 및 학술대회	1/18-1/19	제주	크라운프라자
대만 암웨이 리더쉽세미나	1/27	경기도	킨텍스
2007 평창인터스키대회	1/27-2/3	강원도	용평리조트
북서태평양 공해 저층어업관리 위한 제2차 정부간 회의	1/29-2/2	부산	부산 롯데호텔
세계습지의날기념행사	2/1-2/2	경기도	고양시 일산
제9회 FIMSА 번역학회	2/1-2/4	제주	한화 리조트 제주
제4차 아시아미토콘드리아연구의학회	2/2-2/3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제2차 APEC 과학영재 전문가포럼	2/2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2007 동맥경화 및 중재기술 국제학회	2/2-2/3	부산	부산롯데호텔
제2회 아시아태평양LNG컨퍼런스	2/5-2/7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제1회 한일 실무급 농촌개발전문가 정기 워크숍 농업전문가회의	2/7-2/9	서울	한국농촌공사
제14회 한국반도체 학술대회	2/8-2/9	제주	롯데호텔
OECD세계포럼아시아회의	2/8-2/9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2007 한중일 헬리코박터회의	2/9-2/10	부산	부산웨스턴조선호텔
2007 제12회 한남안과학술대회	2/9-2/10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SG Bank Incentive Meeting	2/9-2/12	강원도	평창 휘닉스 파크
제4회 아시아오세아니아 비만학술대회	2/9-2/11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Coronary Physiology and Imaging Summit 2007	2/10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2007 강입자 및 핵물리학 국제 워크숍	2/22-2/24	부산	부산대학교
제8회 고기능 나노복합재/기공소재 심포지엄	2/22-2/24	제주	제주 해비치 리조트
국제에너지컨퍼런스 2007	2/26-2/28	대구	인터볼고 호텔
2007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셀교회 국제컨퍼런스	2/27-3/2	부산	백스코
2007 북태평양소하성어족보존위원회 이행평가 조정위원회회의	2/27-3/1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2007 한국관광총회	2/27-2/28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
2007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센터 개소 및 일본문화전시회	3/1	부산	크라운호텔
2007 APEC R&D관리 교육 프로그램	3/5-3/10	부산	누리마루APEC 하우스 /백스코
제4회 한중일 계량측정협력 세미나 & 2007 국가 교정기관장 워크숍	3/7-3/10	제주	신라호텔
세계전시산업협회 아시아오픈세미나	3/8-3/9	서울	코엑스
제3회 아시아태평양 반도체 학술대회	3/11-3/14	전북	전주 코아리베라호텔



행사명(국문)	개최기간	개최도시	개최장소
22회 ACM응용컴퓨팅심포지움	3/11-3/15	서울	코엑스
세계기자대회 2007국제기자연맹특별총회	3/12-3/16	서울	롯데호텔 서울
지구해양관측시스템제10차조정위원회회의	3/13-3/16	서울	올림픽파크텔
나노기술국제심포지엄	3/15	대전	카이스트
국제자원순환 경제심포지엄	3/15-3/16	울산	롯데호텔 울산
아시아문화지도제작과 문화자원 아카이빙 국제워크샵	3/16-3/17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9회 아시아 태평양 난 전시회 및 학술회의	3/16-3/26	경기도	KINTEX
2007 로크웰 오토메이션 세미나	3/19-3/22	제주	서귀포칼호텔
한중일냉동공조협회미팅	3/20	서울	롯데호텔서울
2007 24차 IMS 국제회의	3/21-3/23	부산	부산웨스턴조선호텔
글로벌 시대!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3/21-3/23	서울	롯데호텔 잠실
2007 벨리댄스 슈퍼스타즈 워크샵	3/22-3/24	경기도	고양시 일산
국제에스페란토연수회 (17차)	3/24-3/25	경상북도	남강서원
2007 ASTA 제주총회	3/25-3/29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새마을운동연구심포지엄	3/26-3/30	서울	새마을운동 중앙회
제2차 월드베스트공항 포럼	3/28-3/30	인천	인천하얏트리젠시호텔
2007 대한척추신경외과 한일 세미나	3/29-3/31	부산	웨스턴조선호텔
한일외교장관회담	3/31-4/1	제주	신라호텔
루프트한자 독일항공 부산/뮌헨 신규 취항 기념행사	4/3	부산	누리마루APEC 하우스 /백스코
대한안과학회 제97회 학술대회	4/6-4/7	부산	백스코
2007 국제서비스 극동지역회의 및 국제서비스 이사회	4/6-4/8	부산	부산아리랑호텔
제7차 한중일 IT 표준 협력회의	4/9-4/11	제주	그랜드호텔
국제위성통신시스템 국제회의	4/10-4/13	서울	코엑스
국제가스연맹 프로그램위원회 C (PGC C) 제2차 회의	4/10-4/13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전략산업연구회의/나노기술	4/10-4/13	서울	코리어나호텔
한국고분자학회 2007년도 춘계총회	4/11-4/13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9차 세계중앙예탁결제기관회의(CSD9)	4/11-4/13	서울	신라호텔
2007 한일경제인 회의	4/12-4/14	부산	부산롯데호텔
2007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	4/12-4/14	부산	부산롯데호텔
제 59차 IEA/Wind IA(국제에너지기구/풍력 실행협의체) 집행위원회	4/16-4/19	제주	하얏트리젠시
제22회원자력연차대회	4/16-4/18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제5차 국제인턴쉽학술회의	4/17-4/20	대구	계명대학교
혁신클러스터국제회의	4/18-4/19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세계정신의학회 지역학회	4/18-4/21	서울	잠실롯데호텔
2007 아시아 의료복지시설 심포지움	4/19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아시아 주요국 IT 산업 진출전략 컨퍼런스	4/20	서울	무역센터

행사명(국문)	개최기간	개최도시	개최장소
2007년 대한순환기관련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	4/20-4/21	부산	누리마루APEC 하우스 /백스코
국제풍력워크숍	4/20	제주	하얏트리젠시
APAP 2007	4/24-4/27	제주	라마다프라자
2007 AP/MWP	4/25-4/27	제주	제주 스위트 호텔
2007년 대한금속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4/26-4/27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포럼 2007	4/26-4/28	경상남도	시민문화회관
2007 통상망 운용관리 학술대회	4/26-4/27	제주	제주대학교
4·3 59주년 기념/국제학술대회	4/27	제주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제1회 아시아 심장혈관영상의학학회학술대회	4/27-4/28	서울	서울아산병원
2007 아태.명상치유공연예술 축제/ 심포지엄	4/28-4/29	서울	인사동
2007 제4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도자 포럼	4/28-4/29	인천	인천세라믹연구소
2007년 환경공동학술대회	5/2-5/4	부산	백스코
ISO/TC5 (금속플렌지 국제표준화 회의)	5/2-5/3	제주	샤인빌리조트
2007 대기환경학회 한일심포지움	5/3	부산	백스코
동아시아 속의 제주민속	5/4-5/5	제주	제주대 국제교류회관
제5차 세계 심미치과학회 학술대회 및 세계총회	5/4-5/6	서울	코엑스
특허행정혁신에 관한 WIPO 공동컨퍼런스	5/7	서울	신라호텔
2007 국제표준화회의	5/8-5/10	부산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아시아주조대회	5/8-5/11	서울	서울교육문화회관
건설 기계 분야 국제 표준화 회의	5/9-5/11	제주	샤인빌리조트
한국원자력학회 2007 춘계학술대회	5/9-5/11	제주	라마다프라자
CL Davis 수의학재단한국심포지엄	5/9-5/11	서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5회 한일감정평가협력회의	5/10-5/11	제주	하얏트리젠시
제1차 아시아지역효과적금융규제를위한전략적논의	5/10	서울	신라호텔
제2회 국제항공협력세미나	5/10-5/12	서울	메리어트호텔
전문직여성 아태지역회의 및 차세대전문직여성 세계대회	5/10-5/15	서울	프리마호텔
용접 및 접합 국제 학술회의	5/10-5/12	서울	코엑스
국제핵융합실험로기구 핵융합장치 지속운영세미나	5/11-5/13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
중국문화의 지역적 접근	5/11-5/12	충청남도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사회계정행렬국제심포지엄	5/13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
2007 국제임베디드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컨퍼런스	5/14-5/16	대구	인터볼고 호텔
IAEA 핵융합장치 지속운영기술회의	5/14-5/17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
국제총장포럼	5/14-5/16	서울	상명대학교
AGIFORS Joint Revenue Management Distribution and Cargo Conference	5/14-5/17	제주	제주칼호텔
산림경관복원 IUFRO 국제학술대회	5/14-5/19	서울	코엑스
2007 평생교육의 전망과 과제	5/15	부산	부산대학교



행사명(국문)	개최기간	개최도시	개최장소
소비자서비스강화연수	5/15-5/18	서울	코리어나호텔
활기찬 노년을 위한 2007 남해 아시아 태평양 액티브에이징 컨퍼런스	5/16-5/18	경상남도	남해스포츠파크호텔, 힐튼남해골프& 스파리조트
창립 50주년 삼성생명 연도상시상식	5/17-5/19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7 한국환경과학회 봄 학술발표회	5/18-5/19	대구	계명대학교
FIG 제7분과 연례회의	5/18-5/23	서울	코엑스
동아시아류마티스학회 제2차	5/19	서울	롯데호텔잠실
화이자 아시아 컨퍼런스	5/19-5/20	제주	롯데호텔
국제공항협회 태평양총회	5/20-5/24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Efficient 2007	5/20-5/23	제주	라마다프라자
제7회세계구조및분야최적설계학술대회	5/21-5/25	서울	코엑스
제1회 국제폴리우리탄 포럼 2007	5/21-5/23	서울	올림픽파크텔
GS1서울총회	5/23-5/24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2007 최신 통계이론 및 활용에 관한 통계학술회의	5/24-5/26	부산	부산대학교 성학관 101호
2007 한국디자인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	5/25-5/26	서울	서울산업대학교
ICOI Korea/NYU 국제임플란트공동심포지엄	5/26-5/27	대전	을지대학병원
제15차 국제보건기록연맹총회	5/27-5/31	서울	코엑스
2007 제10차 재료기계적거동 국제회의	5/27-5/31	부산	벡스코
제19회 IEEE 국제반도체 및 집적회로 심포지엄	5/27-5/30	제주	라마다프라자
제19차 FAOBMB서울국제학술대회 및 생명과학기기전시회	5/27-5/30	서울	코엑스
2007 제16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5/28-5/30	부산	부산웨스턴조선호텔
제1회 아시아 자성 학술대회	5/28-6/1	제주	신라호텔
2007 대구국제교류포럼	5/29-5/31	대구	그랜드호텔
2007 3세대파트너쉽프로젝트(3GPP) 미팅	5/29-6/1	부산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서울디지털포럼 2007	5/29-5/31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제33회 페인트 및 바니시 분야 국제표준화회의(ISO/TC35)	5/29-5/31	제주	신라호텔
AVEVA USER MEETING	5/30-5/31	부산	누리마루APEC 하우스 /벡스코
세계피아노조율사협회 총회	5/31-6/3	대구	엑스코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31-6/1	서울	코엑스
제4회AAA/KAS아시아태평양양컨퍼런스	5/31-6/2	서울	고려대학교
대한천식및알레르기학회, ARIA, INTERASMA, 합동학술대회 및 제2회WHO/GARD총회	5/31-6/2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
2007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한중일 국제 학술대회	6/1	부산	부산대학교
제1차 아시아간질수술학술대회	6/1-6/2	서울	웨스턴조선호텔
제15차 한일 피부과 학술대회	6/2-6/3	제주	라마다프라자

행사명(국문)	개최기간	개최도시	개최장소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6/3-6/4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7 국제열전 학술대회	6/3-6/7	제주	샤인빌리조트
2007 T.I.G MVP CLUB CONVENTION IN JEJU	6/3-6/7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7차 국제영향평가학회 연차총회 및 학술대회	6/3-6/9	서울	코엑스
제6차 아시아태평양화상학회 학술회의	6/3-6/5	서울	롯데월드호텔
제27차 국제영향평가학회연차총회및학술대회	6/3-6/9	서울	코엑스
영어교육의 다양성과 융합 (2007년 한국영어교육학회 국제회의)	6/6-6/7	인천	경인교육대학교
수소연료및수소감지기국제 표준화회의	6/6-6/9	서울	서울팔레스호텔
AIPPI한국일본중국3개국합동회의	6/8-6/10	서울	웨스턴조선호텔
JEJU 2007 ISPM	6/10-6/14	제주	라마다프라자
세계재활의학회총회	6/10-6/14	서울	코엑스
제3회 재결정과 입자성장 국제학술대회	6/10-6/15	제주	제주 신라호텔
제14회 국제인터랙레이선화합물심포지움	6/11-6/15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세계 기독교학생 총연맹아시아태평양지부 총무단 워크숍	6/11-6/20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메트로폴리스교통분과위원회의	6/11-6/15	서울	롯데호텔
유엔인도지원 조정국공여국 지원그룹 파트너쉽 회의	6/12-6/13	서울	외교국가안보연구원
제13차 아시아 태평양 GIS 상설기반 위원회회의	6/12-6/15	서울	코엑스
제7차 국제초음파치료학술대회	6/12-6/15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제17차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	6/13-6/15	제주	신라호텔
중국 청년 대표단 초청 세미나	6/13-6/22	제주	그랜드호텔
제4차 아시아 태평양 신시장 포럼	6/13-6/15	서울	하얏트 호텔
제주디지털국제방송전시회	6/13-6/15	제주	제주 ICC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환경부회	6/14-6/15	울산	울산시청
제33차 대한암학회학술대회	6/14-6/15	서울	롯데호텔서울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6/15-6/17	서울	롯데호텔서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제14차 국제학술대회	6/16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7 국제 반도체 환경 안전회의	6/17-6/21	제주	신라호텔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제2회 통합학술대회	6/18-6/20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	6/19-6/20	서울	서울프라자호텔
2007 제74차 한국식품과학회 정기총회 및 국제학술대회	6/20-6/22	부산	벅스코
제13차 세계질적건강연구학술대회	6/20-6/23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자동차공학회 2007 춘계학술대회	6/21-6/23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제4차 제주평화포럼	6/21-6/23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
2007 U/건설국제컨퍼런스	6/21-6/22	서울	코엑스
제7차 국제바이오테라피학회세미나	6/21-6/24	서울	백범기념관
제1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소년포럼	6/25-6/29	제주	제주대학교
세계여성평화포럼	6/26-6/28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행사명(국문)	개최기간	개최도시	개최장소
디지털시티컨벤션	6/26-6/27	서울	서울프라자호텔
친환경국제컨퍼런스	6/27-6/29	서울	에이티센터
제2차 아주지역 보험감독자 회의	6/27	서울	신라호텔
2007 국제CCC(Campus Crusade for Christ) 대륙대표자회의	6/28-7/2	부산	부산웨스턴조선호텔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2007년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6/28-6/29	서울	코엑스
성공적인 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준 설정 "국제 학술대회"	6/29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세계 청년대학생 지도자수련회	6/30-7/6	부산	부산 BEXCO
Wyeth's Regional Conference	7/1-7/6	서울	롯데월드 호텔
논농업지역에서의 물생태계 국제네트워크	7/1-7/3	서울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07 세계대학생선교대회	7/2-7/6	부산	벅스코
2007 국제CCC(Campus Crusade for Christ) 나라대표자회의	7/2	부산	벅스코
2007 인천국제관광학술대회 및 제60차 한국관광학회 학술 심포지엄 및 연구논문발표대회	7/2-7/4	인천	하얏트리젠시인천
NBNI 2007	7/6-7/8	제주	제주대학교
Novartis Medical Conference	7/7-7/8	제주	제주도 롯데호텔
2007 제22차 ITC/CSCC 국제학술회의	7/8-7/11	부산	파라다이스호텔부산
2007 국제 해양관련 기관 협의체(IAMRI) 회의	7/8-7/10	부산	부경대학교
제31차 국제수학교육심리학회	7/8-7/13	서울	서울대
동아시아 습지교육을 위한 랍사지역센터 전략개발 워크숍	7/9-7/10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제38차 UPOV 과수실무기술위원회 회의	7/9-7/13	제주	샤인빌리조트
IEEE ICIA 2007	7/9-7/11	제주	제주대학교
ISO 22000/식품안전관리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연수	7/9-7/13	서울	코리아나호텔
카지노 발전전략 국제학술회의	7/10-7/11	서울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KEDI/UNESCO 국제연수세미나	7/10-7/13	서울	이비스호텔
시만텍아시아태평양세일즈컨퍼런스	7/10-7/13	서울	코엑스
히말라야 이니셔티브 포럼	7/11-7/13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제2회세계설측교정학회학술대회	7/12-7/17	서울	코엑스
2007 IYF 월드캠프	7/15-7/20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7세계전파통신회의	7/16-7/21	부산	부산롯데호텔
제4회 국제 방사선 안전 및 계측기술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7/18-7/20	서울	한양대학교
2007 제7차 북태평양 다량어류 및 다량어 유사종 국제과학 위원회	7/19-7/30	부산	상남국제회관
28회 아시아 의학생 연합회의	7/22-7/29	서울	올림픽파크텔
식물검역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아태지역 워크숍	7/23-7/27	경기도	그레이스 호텔
동북아시아치단체인합(NEAR) 과학기술분과위원회	7/24	수원	나노소자특화팍센터

행사명(국문)	개최기간	개최도시	개최장소
제28차 AITA/IATA asbl 세계연극총회	7/25-8/1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한·중·독 공동세미나	7/25-7/26	대전	대전정부청사
제33회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	7/26-7/29	제주	신라호텔
2007 화천 강문화 국제학술대회	7/27-7/30	강원도	화천종합사회복지관
제2차 한중일 비즈니스 환경개선협의체 회의	7/31-8/1	제주	샤인빌리조트
2007 제9회 국제 혈관 노화 심포지엄	8/2	부산	부산대학교 약대
해외동포 2007 차세대 지도자 워크숍	8/3	제주	파라다이스
한중일 청소년 역사캠프	8/7-8/11	제주	제주대학교
제6회 재외동포교육 국제학술대회	8/9-8/15	제주	제주칼호텔
제23차 고에너지 경입자와 광자 상호작용에 관한 세계 심포지움	8/13-8/18	대구	엑스코
제33회 한국진공학회 학술대회	8/15-8/17	제주	라마다프라자
제7회 세계 섬 포럼	8/16-8/17	제주	트레블러스
2007 한국카톨릭 청년대회	8/18-8/21	제주	이시돌목장
국제산업곤충학회	8/19-8/24	대구	엑스코
OMA 서울총회 및 차세대 모바일기술 및 표준화전략 국제 컨퍼런스 및 전시회	8/19-8/24	서울	코엑스
2007SERA 국제학술회의	8/20-8/22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제9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8/20-8/21	부산	누리마루APEC 하우스 /백스코
인시아시아지역대회	8/20-8/23	서울	홍익대학교
한승산업 자이로펌프 설명회	8/21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제13회 국제임베디드 및 실시간 컴퓨팅 시스템 및 응용학술대회	8/21-8/23	대구	인터볼고 호텔
제13회 고성능 로봇틱스 국제학술대회	8/21-8/24	제주	롯데호텔
세계공동모금회아태총회	8/21-8/24	서울	서울가든호텔
제3차국제사회봉사의원연맹총회	8/22-8/25	서울	신라호텔
2007 한국학 세계학술대회	8/23-8/25	부산	누리마루APEC 하우스 /백스코
아시아컨시어지총회	8/25-8/28	서울	메리어트호텔
제16차 로봇/인간 상호교류 IEEE 국제심포지엄	8/26-8/29	제주	신라호텔
제12회 국제 이온원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8/26-8/31	제주	라마다프라자
제74차 세계대한이비인후과학회의학자회 총회	8/26-8/29	서울	롯데호텔서울
제7회 레이저및광전자환경평양국제회의	8/26-8/31	서울	코엑스
국제정보디스플레이 학술대회	8/27-8/31	대구	엑스코
국제이동현상 심포지엄	8/27-8/30	대전	카이스트, 유성 리베라호텔
제7회국제방송영상경본시	8/29-8/31	서울	코엑스
한국주거학회국제학술대회	8/30-9/1	서울	서울대학교
AP지역 국가대표 회의	8/31-9/2	제주	라마다프라자



행사명(국문)	개최기간	개최도시	개최장소
플랜트인더스트리포럼	9/1	서울	메리어트호텔
2007 2nd ICCEOC 국제학술대회	9/2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제12차 세계폐암학회 학술대회	9/2-9/6	서울	코엑스
세계소화관운동학회 제21차 학술대회	9/2-9/5	제주	신라호텔
2007 WiMax/WiBro 테크놀로지 국제워크숍	9/3-9/6	부산	부산대학교
열방대학 워크숍	9/3-9/8	제주	김녕체육관
정보기기 상호접속 국제표준화 회의	9/3-9/7	제주	샤인빌리조트
Symposium on Analysis, Design and Evaluation of Human/Machine Systems	9/4-9/6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제7회 세계장애인 한국대회	9/5-9/8	경기도	킨텍스
2007 대구국제임베디드공학회	9/6-9/7	대구	인터볼고 호텔
중국사학회 국제학술대회	9/6-9/9	대구	경북대학교
2007 국가통계품질관리 국제회의	9/6-9/7	대전	대전정부청사
서울국제간심포지움	9/6-9/8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제20차 국제정구연맹총회	9/6-9/7	경기도	안성시청 대회의실
2007 동아시아사회복지 국제학술대회	9/6-9/7	부산	부산대학교
관상동맥혈관재형성술에관한서울대회	9/6-9/8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제3회 서울국제간심포지움	9/6-9/8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2007 제3차 에이팩 미래교육포럼	9/7	부산	부산대학교, 양운초교, 분포중학교
2007 제5차 국제알콕퍼런스	9/7-9/8	부산	한화리조트
제12차 바이올록스국제심포지엄	9/7-9/8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차세대문화기술 연구자포럼	9/8-9/9	대전	카이스트
제4회 국제 가지과식물 게놈 워크숍	9/9-9/14	제주	라마다프라자
제15차 아시아태평양정형외과학회학술대회	9/9-9/13	서울	코엑스
제3차 APEC 과학영재 전문가포럼	9/10-9/11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2007 도시관광국제심포지엄	9/10-9/12	부산	누리마루APEC 하우스 /백스코
제58차 WHO 서태평양 지역회의	9/10-9/14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13회 II/VI 화합물 국제회의	9/10-9/14	제주	신라호텔
제10차 아시아지역 해양사고 조사기관 회의(MAIFA)	9/10-9/13	제주	롯데호텔
디지털콘텐츠국제컨퍼런스	9/10-9/11	서울	코엑스
여성수입창출활동연수	9/11-9/14	서울	코리아나호텔
아시아CEO포럼	9/11-9/13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
2007 국제게임개발자회의	9/12-9/14	부산	백스코
제4회 아시아 계산재료과학 콘소시움 정기총회	9/12-9/16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협력관
제1회세계여성포럼	9/12-9/14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바이오코리아	9/12-9/14	서울	코엑스

행사명(국문)	개최기간	개최도시	개최장소
아시아문화산업포럼	9/13	부산	누리마루APEC 하우스 /백스코
2007 추계 마이크로파 및 전파 학술대회	9/13-9/14	제주	제주대학교
영업회의	9/13-9/14	서울	서울 힐튼호텔
글로벌 문화콘텐츠 컨퍼런스	9/14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충격공학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	9/16-9/19	대전	리베라호텔
4차 ISFR	9/16-9/20	제주	서귀포칼호텔
한*호 유변학회 세미나	9/16-9/19	제주	서귀포칼호텔
국제기하학응용세미나	9/17-9/19	대구	경북대학교
세계소방방재청장회의	9/17-9/19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제1회한중남미무역투자포럼	9/17-9/18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LG CAC Global Sales Forum	9/18-9/20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2007 APEC 기후센터 심포지엄	9/18-9/20	부산	누리마루APEC 하우스 /백스코
세계총회(재림교회)	9/19-10/7	제주	트레블러스
2007 NOWPAP ICC Campaign and Marine Litter Workshop	9/27-9/29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2007 세계담배과학 총회	9/30-10/4	제주	신라호텔
세계수술간호학술대회	9/30-10/4	서울	코엑스
ISO TC 194(의료기기의 생체적합성 연차총회)	10/1-10/5	제주	샤인빌리조트
벤처코리아 2007	10/1	서울	코엑스
제1회 국제폭풍해일심포지엄	10/2-10/6	서울	코엑스
제2회 AOAA 아시아 지역 심포지엄	10/3-10/6	제주	라마다프라자
UN국제탐색구조자문단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10/3-10/5	서울	엠배서더호텔
세계건축사연맹건축실무위원회회의	10/3-10/6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
제11차독일아태경제회의	10/4-10/7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
200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제학술회의	10/5-10/6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인디고서원 국제세미나	10/6-10/7	부산	누리마루APEC 하우스 /백스코
제11차 아시아 태평양 성의학 국제학술대회	10/6-10/10	제주	신라호텔
제6차 인간프로테오믹스구조정기학술대회	10/6-10/10	서울	코엑스
국제재료가공기술학술대회	10/7-10/11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
제14회 산화물 전자공학 국제회의	10/7-10/10	제주	라마다프라자
ICEMS 2007	10/8-10/11	서울	올림픽 파크텔
제23차 세계실내건축가연맹총회 & 세계실내디자인대회	10/8-10/12	부산	백스코
물리적 피임기구 국제표준화회의	10/8-10/12	제주	샤인빌리조트
ASTA국제소프트웨어테스팅컨퍼런스	10/8-10/12	서울	코엑스
IUCN 국제 수달 총회	10/10-10/16	강원도	화천군 청소년수련관
인하대/르아브르국제학술대회	10/10-10/11	인천	인하대학교



행사명(국문)	개최기간	개최도시	개최장소
세계공영방송대회서울총회	10/10-10/12	서울	밀레니엄서울힐튼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및 Civil Expo	10/11-10/12	대구	엑스코
2007 선박평형수 위해도 관리 국제워크숍	10/11-10/12	부산	부산롯데호텔
제주민속 국제학술대회	10/11-10/13	제주	크라운프라자
IPC & FBIT	10/11-10/13	제주	라마다프라자
제1차 한미 해양관측 패널회의 개최	10/11-10/12	제주	그랜드호텔
아이엠에스국제운영위원회회의	10/11-10/12	서울	르네상스호텔
유럽공연예술회의 IETM 서울회의	10/11-10/14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제46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 대회	10/12-10/15	대구	대구월드컵경기장
제11회 국제무아학회	10/12-10/15	전북	원광대학교
제11회 한중 한의사회 학술대회	10/13-10/14	제주	라마다프라자
2007 아시아영상위원회네트워크 총회, 세미나	10/15-10/18	부산	노보텔엠버서더호텔
제23차 DBCP 회의 및 제27차 JTA 회의	10/15-10/19	제주	그랜드호텔
국제회전익기학술대회	10/15-10/17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ARF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사이버 테러리즘 세미나	10/16-10/19	부산	누리마루APEC 하우스 /백스코
2007 제6차 아시아지역 지질공학 지질재해 국제학술대회	10/16-10/19	서울	서울대학교
제9회 아시아 유체기계 국제회의	10/16-10/19	제주	라마다프라자
NML 연구를 위한 국제전문가회의	10/16-10/19	제주	제주대학교
OECD/KERIS NML 연구를 위한 국제전문가회의	10/16-10/19	제주	제주대학교
제8회 세계지식포럼	10/16-10/18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제22차 세계교회성장대회	10/16-10/22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제2차 첨단비파괴평가기술 국제학술대회	10/17-10/19	부산	백스코
국제자동제어학술대회	10/17-10/20	서울	코엑스
한국물리학회 2007 가을 학술대회	10/17-10/19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7 국제 해양에너지 국제표준 워크숍	10/17-10/19	제주	라마다프라자
ISRLE 2007	10/17-10/20	제주	제주오리엔탈호텔
2007 아시아 품질경영 네트워크	10/17-10/18	인천	인천 하얏트리젠시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대회	10/18-10/19	대구	인터볼고 호텔
대한화학회 제100회 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10/18-10/20	대구	엑스코
제6회 동아시아서복문화 국제학술대회	10/18-10/19	제주	서귀포칼호텔
The 2nd Pan/Pacific Continence Society (PPCS) Meeting	10/18-10/19	서울	서울서울아산병원
서울대간호대학100주년기념국제학술대회	10/18-10/19	서울	서울대학교
2007 유네스코 체어 심포지움	10/20	서울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
제13회 YABEC 아시아지역 생물공학분야 학술교류대회	10/20-10/22	서울	고려대학교
아시아광고대회	10/21-10/24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행사명(국문)	개최기간	개최도시	개최장소
인간친화복지 로봇시스템 국제학술회의	10/21-10/23	대전	카이스트, 유성 리베라호텔
2007 제2차 BK21 화학물질 국제심포지움 & 워크샵	10/21-10/22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제7회 국제전력전자 학술회의	10/22-10/26	대구	엑스코
한·중·일 거주문제 국제회의	10/22-10/24	서울	서울교육문화회관
ICSW 동북아시아지역 사회복지대회	10/22-10/24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 파라다이스호텔
환태평양변호사협의회회의	10/22-10/24	서울	웨스턴조선호텔
코덱스항생제내성국제심포지움	10/22-10/26	서울	코엑스
2007 ASPA/IASP연차총회	10/23-10/26	경기도	경기테크노파크 및 한양대 게스트하우스
국제VTS 세미나 2007	10/23-10/24	부산	벡스코
2007 탱크선체구조안전협의회의	10/23-10/26	부산	파라다이스호텔부산
미래도시주택글로벌컨퍼런스	10/23-10/28	서울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포럼 2007	10/23-10/25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국제물류컨퍼런스	10/24	부산	벡스코
2007 누리항만물류사업단 국제항만물류 심포지움	10/24	부산	벡스코
2007 한국마린엔지니어링 국제학술회의	10/24-10/26	부산	벡스코
탱커구조협조포럼	10/24-10/25	부산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제88차 OECD과학기술정책위원회총회	10/25-10/27	서울	롯데호텔서울
아시아지역 기독교대학 연합회	10/25-10/27	대구	계명대학교
국제프로폴리스 사이언스 포럼	10/25-10/26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UK Naval Industrial Technology Seminar	10/25	부산	벡스코
2007 아시아 태평양 기업가 서밋	10/25-10/26	부산	벡스코
제7회 서울국제경제자문단총회	10/25-10/26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한중일 여성교류대회	10/25-10/27	서울	서울교육문화회관
제6회 서울역사박물관 국제 심포지엄	10/25-10/26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세계유방암학술회의	10/25-10/27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2007 ICLEI 세계집행위원회	10/26-10/29	제주	라마다프라자
2007 세계평화회의 (세계평화헌장회의, 세계평화의 종 공원 착공기념식, 종교간 세계평화위원회)	10/26-11/2	강원도	종합사회복지회관, 아쿠아티리조트, 세계평화의 종 공원
제15회 아시아생활환경회의	10/26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회 세계게임문화컨퍼런스	10/26	대구	엑스코
8차 세계지도자 워크샵/세계여성대회	10/28-11/1	경기도	청심청소년수련원/ 금강산문화회관
UCLG 제주세계총회	10/28-10/31	제주	ICC제주
2007 습지보전 국제심포지엄	10/30-10/31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동아시아경제 교류추진기구 도시협력포럼 및 집행위원회	10/30-11/1	울산	현대호텔
제48차 대한진단검사의학회	10/30-10/31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행사명(국문)	개최기간	개최도시	개최장소
제6차 세계한상대회	10/31-11/2	부산	벡스코
제4차 IRN 국제학술대회	10/31-11/2	제주	제주소위트호텔
RFID/USN KOREA 국제전시회 및 컨퍼런스	10/31-11/1	서울	코엑스
제14차 GNSS(위성항법시스템) 워크숍	11/1-11/2	제주	라마다프라자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11/1-11/2	충청북도	청주라마다플라자호텔
2007 과학교육 국제 컨퍼런스	11/1-11/3	서울	서울대학교
PALIC 2007	11/1-11/3	서울	서울대학교
동아시아문화유산보전심포지엄	11/1-11/2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국제대학교수초대전 및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 학회 정기 학술대회	11/2-11/6	경기도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
동아시아 대수적 위상수학 국제학술대회	11/2-11/6	서울	서울대학교
대한안과학회 제98회 학술대회	11/2-11/4	경기도	킨텍스
제1차 소화기인터벤션의학회 학술대회	11/2-11/3	서울	서울아산병원
제2차 한중신경중재치료의학 학술대회	11/2-11/3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제9회 아시아분석과학회총회	11/4-11/9	제주	라마다프라자
2007 대한금속 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11/4-11/9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6회 아시아태평양 금속재료학회총회	11/4-11/9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7 세계해양포럼	11/5-11/7	부산	누리마루APEC 하우스 / 벡스코
2007 지구촌 자연 농업대회	11/5-11/9	제주	서귀포 농기센터
제11회 메카트로닉스 테크놀로지 국제 학술대회	11/5-11/9	울산	울산 롯데호텔
녹색생산성과 환경디자인 워크숍	11/5-11/9	서울	코리어나호텔
제11회 아시아페인트공업협의회국제심포지엄	11/5-11/7	서울	르네상스호텔
약물오남용 및 에이즈 예방교육을위한 국제세미나	11/6-11/10	제주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세플러코리아 INT Seminar	11/6-11/8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2007아시아정밀공학및나노기술심포지엄	11/6-11/9	광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2007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전문가회의	11/6-11/8	부산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제35차 국제병원연맹총회	11/6-11/8	서울	코엑스
제13회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 국제 심포지엄 대회	11/6-11/7	서울	서울대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
제6차 국제간호학술대회	11/6-11/8	서울	코엑스
아시아태평양양카본블랙대회	11/6-11/9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태평양연안국재료국제회의	11/6-11/9	제주	ICC제주
2007 국제나노기술컨퍼런스	11/8-11/9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아시아 바이오하이드로젠 심포지엄	11/8-11/10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
대한당뇨병학회 추계학술대회	11/8-11/10	부산	누리마루APEC 하우스 / 벡스코
2007 농업생명과학 국제심포지엄 "농업생명과학의 전망 및 새로운 도전"	11/9	부산	동아대학교 교수회관 회의실

행사명(국문)	개최기간	개최도시	개최장소
제8차 국제이해교육 학술대회	11/10-11/11	경상남도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2007 제6회 국제 차문화 축제 심포지엄	11/10-11/11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수성화산필드 워크샵	11/10-11/18	제주	오리엔탈
2007 서울 아시아&오세아니아 탁구선수권 대회 및 A & O 총회	11/10-11/15	서울	서울 올림픽파크텔
람사르 과학기술검토위원회 회의	11/11-11/13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2007 세계시맨텍웍스 학술대회	11/11-11/15	부산	벅스코
2007 제2회 아시아시맨텍웍스 컨퍼런스	11/11-11/15	부산	벅스코
제3회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국제심포지움	11/12-11/14	부산	누리마루APEC 하우스 /벅스코
아시아 반도체화로 국제학술대회	11/12-11/14	제주	라마다프라자
태평양 혈관 임파관 신생학회	11/12-11/14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중일건축사협의회	11/12-11/15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APEC e/LEARNING 국제세미나	11/14-11/16	부산	누리마루APEC 하우스 /벅스코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11/14-11/15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제2회해양정책포럼	11/14-11/15	서울	르네상스호텔
제47차대한신경외과학회추계학술대회	11/14-11/17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아시아문화포럼	11/15-11/16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07 한국섬유공학회 추계학술발표회	11/15-11/16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국제건축문화심포지엄	11/15	서울	코엑스
한중일 수산무역 자유화 대응방안 국제심포지엄	11/16	부산	벅스코
2007 제8차 세계문화관광학술대회	11/16-11/18	부산	영산대/해운대센텀 호텔
2007 아시아여성학회 창립식 및 국제학술대회	11/16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제6차 ASEM 이민고위급회의	11/19-11/22	서울	서울 그랜드 하얏트
국제소화기병 학술대회	11/20-11/22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국제통계ELITE 그룹 워크샵	11/21-11/22	대전	대전정부청사
세계화장실협회창립총회	11/21-11/25	서울	코엑스
대한조선학회 정기총회	11/22-11/23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7 식품안전광주포럼	11/23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07 제1회 동북아 도시발전 포럼	11/23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2007 부산시치과의사회 전시회 및 학술대회	11/24-11/25	부산	벅스코
서울당뇨병포럼	11/24	서울	신라호텔
국제장애인올림픽(IPC)정기총회	11/24-11/27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2007 폐기물 관리 및 처리기술 발표회	11/27	경기도	고양시 일산
아시아 저널리즘 2007 KPF 저널리즘 회의	11/27-11/28	제주	서귀포칼호텔
APT	11/27-11/30	서울	리츠칼튼호텔
AVAR	11/28-11/30	서울	서울프라자호텔



행사명(국문)	개최기간	개최도시	개최장소
국제증권감독기구아태지역위원회회의	11/28	서울	롯데호텔서울
제1회 노인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국제세미나	11/29-11/3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07 수환경에서 신종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제어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11/29	부산	부산대학교/ 인덕관
제2회 세계실버산업현황 및 진출전략세미나	11/3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국제화학공학컨퍼런스	11/30-12/3	대전	한밭대학교
제6회 동북아코리안네트워크국제회의	11/30-12/1	서울	올림픽파크텔
제9차 항돌연변이 항암 기전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12/1-12/5	제주	제주대학교
제6차 국제군축비확산회의	12/3-12/5	서울	신라호텔
한EU국제공동워크숍	12/3-12/4	서울	서울교육문화회관
2007 울트라프로그래프 종합워크숍	12/5-12/6	제주	신라호텔
제4차 동아시아지역 적조전문가 협의회 국제심포지엄	12/6-12/8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FGCN 2007	12/6-12/8	제주	라마다프라자
제4회 미래 원자력 시스템 및 핵연료주기 국제 워크숍	12/7-12/8	제주	라마다프라자
동북아시아 에너지협력 정부간 협의체 에너지정책실무그룹 (WG/EPP)회의	12/11-12/14	제주	신라호텔
제5회 첨단신소재 및 신소재 과학기술 국제회의	12/12-12/14	제주	라마다프라자
중소기업의 전략적 지식재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IP 파노라마 활용 아시아 지역 세미나	12/13-12/14	제주	라마다프라자

<부록 2> 연계 논문 발간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¹⁵⁾

김 철 원

I. 서 론

국제회의산업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국제회의 유치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국제회의 건수는 305건¹⁶⁾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국제회의 참가자의 1인당 소비지출액도 일반관광객 소비 지출액의 2.4배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제회의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회의 개최증가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제회의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의 부재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규모와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기초 자료가 부족하여 국제회의산업을 국가의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를 통하여 창출된 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제회의산업을 국가산업의 성장 동력(growth engine)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특히 국제회의산업이 타 산업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여 향후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 자료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조사의 목적은 2004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참가자의 소비실태와 주최자의 지출액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국제회의산업이 국가 경제에 생산, 부가가치, 고용, 소득 창출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15) 본 논문은 '2005 국제회의의 경제적파급효과 분석'을 토대로 제출한 논문으로, 무역전시연구 제1권 제1호 2006년 4월에 발간되었음

16) 본 건수는 한국관광공사의 통계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개최된 회의 중 참가자가 3개국이상, 외국인 참가자수가 10명이상인 회의를 집계한 것임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함의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국제회의를 정부회의, 협회회의, 학회회의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의 국제회의가 산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제회의산업을 국가산업의 성장 동력(growth engine)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특히 국제회의산업이 타 산업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향후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문헌연구

2.1.1 해외 연구

미국 CIC(Convention Industry Council)는 1995년 미국의 국제회의 개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하였다. CIC에 의하면, 국제회의는 기구나 단체의 모든 회원에게 참가 기회가 주어지는 회의라 정의하였으며, 전시회는 특정부분의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라고 규정하였고, 회의(meetings)는 국제회의 이외의 회의로 단체나 기업이 사무실 밖의 회의장에서 1일 이상 개최하는 집회, 행사, 회의로 구분하였으며, 인센티브관광(incentive travels)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한 직원이나 대리점에 대해 보상으로 제공하는 여행 프로그램이라 정의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회의, 전시회, 회의 및 인센티브여행 참가자, 단체, 전시자, 기업의 직접소비지출은 미화 828억불로 산업부문별 순위에서 22위를 차지하였으며, 직접소비액에 의해 15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직접 세수효과는 미화 123억불로 나타났다. 직접소비지출은 주최자, 참가자, 전시자로 구분되지 않고, 호텔 및 회의장업, 항공업, 식당업, 육상교통업, 소매업, 사업서비스업, 문화/오락업, 장비임대업, 유람선업, 판촉업, 광고업, 부대경비, 기타로 세분화하였다.

한편, 일본 컨그레스·컨벤션뷰로, 일본관광진흥회가 1996년 공동으로 발표한 국제

회의에 의한 경제효과 측정에 따르면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게 시설 건설 효과와 회의 개최 효과로 구분되고 있다. 즉 국제회의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대형시설로서 건설 공사발주 그 자체가 지역경제를 윤택하게 한다. 도시권에서 백억엔이 투자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생산유발액은 216억 8천만엔, 고용창출 효과는 전국적으로 2,50명, 현 차원에서는 1,570명, 세수 효과는 국세 5억 2천만엔, 시세 7억 3천만엔 등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제회의 개최 효과 측정에서는 국제회의 개최에 관련된 경비와 참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비로 구분하였다.

Braun(1992)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국제회의의 경제적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소비지출의 형태를 참가자, 협회, 전시자로 구분하였으며, 참가자의 총 소비지출을 숙박, 음식점, 소매점, 문화오락과 현지 교통으로 세분화하였고, 협회의 소비지출은 연회/케이더링, 회의장/전시공간/기자재 임차 및 서비스, 직원 인건비, 연사료/엔터테인먼트/동반자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전시자 지출은 판촉식음료서비스, 호텔리더티 룸 운영, 계약서비스, 기타로 분류하였다.

국제회의 소비지출은 미화12억불로 65,000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이외에도 4.6억불 소득, 23억불 생산, 88백만불 지방세 및 15백만불 주세의 경제적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올랜도지역 특성상 국제회의 지출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건강서비스, 수리서비스,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총 경제적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은행, 법률서비스, 보험, 운송 및 창고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32개 부분을 고려함으로써 경제 효과가 과다 평가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Kim, Chon and Chung, 2003).

Mistils and Dwyer(1999)는 MICE산업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와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에서 국제회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모형 (framework for regional economic impact assessment)을 개발하고, 호주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측정모형은 총직접지출, 총직접고용, 지출원별 총직접지출, 순주입직접지출(지역내), 직접고용(지역내), 경제승수, 총부가가치, 총고용 등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총직접지출액(gross direct expenditure)은 방문객과 주최자/전시자로 구분하고, 산업 부문별로 숙박, 회의장, 국내선 항공, 기타 지상교통, 식당, 쇼핑, 엔터테인먼트, 사업

서비스, 기타 등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총직접 지출액을 지출원(origin of expenditure)에 따라 지역, 자국내 타지역, 해외로 세분하였다. 특히 방문객의 경우는 지역내에서 지출된 금액과 지역밖에서 지출된 금액을 구별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전/후와 기간중 지출 구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순주입 직접소비지출(net injected direct expenditure within region)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는 국제회의관련 지출에 의해 발생하는 지역내 경제활동에 대한 순 추가분이다. 지역으로의 수입에 대한 지출은 새로운 산출로 타지역에 수입(income)을 발생시키므로 수입 누수(leakage of income)로 간주하며, 국제회의의 경우 세금을 지역에서 소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누수로 간주하였다.

한편 호주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사례연구에서는 각 주의 도시 등 관광관문인 도시와 외곽 도시간 방문객 체재일수와 총 직접지출액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호주 관광조사국(Bureau of Tourism Research)의 국내관광 조사(Domestic Tourism Monitor, 1994-1995)와 국제방문객 설문조사(International Visitor Survey, 1995) 결과를 활용하였다. 국내관광 조사는 호주 전국에 걸쳐 650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설문조사 결과이며, 국제방문객 설문조사는 호주의 주요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12000명의 국제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따라서 동 연구의 국제회의 방문객은 방문의 주목적이 국제회의 참가이거나 여행 중 국제회의에 직접 참가하거나 동반하였다고 응답한 자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 호주의 관문도시(gateways)와 비관문도시(non-gateways)간 방문객 체재일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외래 국제회의방문객은 국내 국제회의방문객에 비해 비관문도시에서의 체재일수가 적으며, 외래 국제회의방문객의 관문도시에서의 체재일수는 비관문도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와 해외의 국제회의방문객은 다른 방문객보다 관문도시에서의 체재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 지출면에서는 국내 국제회의 참가자의 총직접 소비지출이 해외 국제회의참가자보다 많으며, 호주의 관문도시에서의 국제회의 관련 총 직접 소비지출은 비관문도시보다 많다. 국내 국제회의 참가자의 소비지출은 관문도시와 비관문도시간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관문도시에서의 국제회의 참가자의 소비지출은 비관문도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의관련 소비지출의 60%인 호주화 12억달러가 국제회의 개최지 외부로부터 창출된 것으로, 호주내 다른 지역으로부터 8억9천달러, 그리고 해외로부터 3억 5천달러가 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1.2 국내 연구사례

한국관광연구원(1998)에서 발간한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가 전체적으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포함하는 국제회의산업에 의한 지출액은 2001년 13,279억원, 2003년 14,972억원, 2005년 16,730억원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 지출과 주최측 지출을 나누어 향후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측치를 제시하였다.

<표 1> 국제회의 개최관련 지출액 추정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3년	2005년
국제회의	참가자지출	2,418	2,789	3,160
	주최측지출	1,036	1,195	1,354
전시회	참가자지출	9,521	10,648	11,838
	주최측지출	304	340	378
계		13,279	14,972	16,730

주: 한국관광연구원(1998),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안)」의 내용을 재구성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지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국제회의 개최로 인해 2005년 6,048억원의 생산유발, 1,128억원의 소득창출, 151억원의 조세증대, 7,676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시회 개최로 인해 2005년 16,369억원의 생산유발, 4,092억원의 소득창출, 4091억원의 조세증대, 20,775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지적한 바처럼,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한 연구로 수요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 예측된 경제적 파급효과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후 몇몇 연구자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상기 연구의 예측은 약간 과다 평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2> 국제회의 개최관련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억원, 명)

구 분		2001년	2003년	2005년
국제회의	생산유발효과	4,628	5,338	6,048
	소득창출효과	863	996	1,128
	세수증대효과	116	133	151
	고용창출효과	5,874	6,775	7,676
전시회	생산유발효과	13,165	14,724	16,369
	소득창출효과	3,291	3,681	4,092
	세수증대효과	329	368	409
	고용창출효과	16,708	18,687	20,775

주: 한국관광연구원(1998),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안)」의 내용을 재구성

김성섭·이강욱(2002)과 Kim, Chon & Chung(2003)의 연구는 한국의 국제회의산업업을 사례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수입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한국은행(2001)이 발간한 1998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관련 승수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405개 기본 부문을 39개 부문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중 국제회의산업은 인쇄/출판, 영상/음향,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교통, 여행업, 통신/방송, 사업서비스, 문화오락, 개인서비스, 가계외 소비지출 등 12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였다.

최종소비액 추정은 참가자 지출은 2000년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최자 지출은 10개 국제회의 예산 조사와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건당 3억원으로 추산하였다. 분석 결과 총 생산파급액은 2,659억원으로 나타났다으며, 이외에 총 고용파급효과는 13,702명, 소득 파급효과는 58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372억원, 수입유발효과는 193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상기 연구의 한계는 참가자의 소비 지출액이 외국인 참가자의 소비 지출액만 계상하여, 국내 참가자의 소비지출액을 간과한 점과 주최자의 지출액을 간단한 인터뷰를 통하여 일률적으로 3억원으로 추산하여, 주최자측의 지출액을 산업연관분석표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소평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용파급효과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여 연구결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2.2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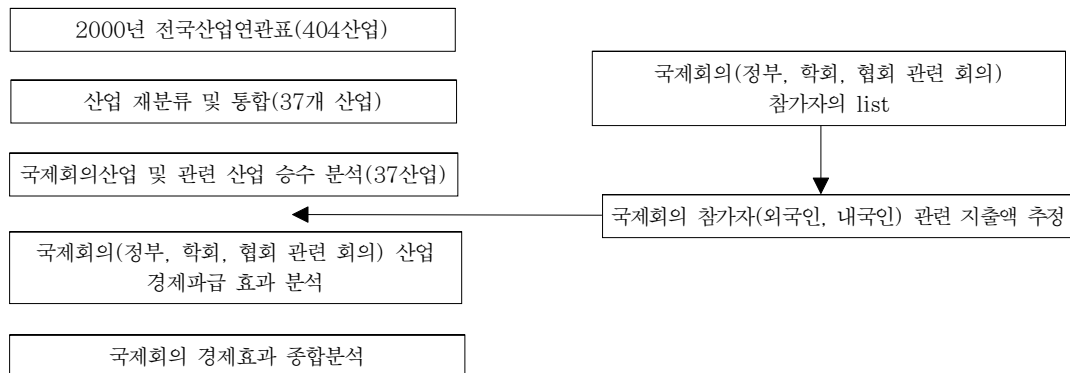
2.2.1 산업연관분석 체계

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체계

경제 내에 주입된 국제회의와 관련한 지출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승수효과 분석이 널리 쓰여 지는데, 산업연관분석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산업연관분석은 특정 시점에서 산업부문간의 산업간 경제영향을 비교 평가하는데 유용한 기법으로 이용된다. 케인지언의 계량경제모형 및 경제기반모형 등 경제주체의 소비성향에 의한 승수효과분석을 들 수 있으나, 시계열 자료 등 관광부문에 서의 관련 자료의 부재로 제약요인이 많다.

산업연관분석은 일국의 경제구조분석, 경제정책의 파급효과 측정과 더불어 경제계획수립의 기초자료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관광산업과 관련이 높은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등의 경제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승수효과는 경제 내에서 주요지표라 할 수 있는 생산승수, 소득승수, 고용승수, 조세승수 등의 주요 경제지표 분석에 효과적이다. <그림 1>은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과 타 산업간 경제파급효과의 분석체계이다.

<그림 1> 산업연관분석 체계도



본 연구에서는 경제효과 분석의 기초 자료로 한국은행의 『2000년 기준 산업연관표』 중에 개방모형,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분하여 작성한 비경쟁수입형표를 활용한다. 국제회의산업의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선 연구 목적에 적합한 산업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차적으로 한국은행의 전국 산업연관표를 국제회의산업과 관련

이 높은 관광산업 포함 37개 산업으로 재분류·통합하기로 한다. 또한 국제회의산업과 연관이 높은 관광산업을 10개의 산업으로 분류하여 세부적인 관련 자료를 분석하기로 한다. 전국투입계수를 이용하여 생산·소득·고용·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등을 도출하여 국제회의 관련 지출액을 산업연관분석에 적용하여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나. 경제파급효과 분석방법

산업연관분석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기록한 산업연관표로부터 투입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도출되는 생산유발승수 등 각종 분석승수를 이용한 경제분석 방법으로써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유발승수들은 최종수요로부터 파생되는 파급효과 나타내고 있어 승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케인즈의 투자승수와 구별하여 다부문승수(multi-sector multiplier) 혹은 레온티에프 승수(Leontief multiplier)라 하는데, 각 산업부문의 원재료 투입구성비를 나타내는 투입계수의 산출로부터 산업연관분석이 시작되며 그 투입구조가 일정기간 안정적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고, 생산유발승수는 최종수요의 변동에 따른 각 부문의 직·간접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산업연관분석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한국은행 산업연관해설 1987).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가 증가했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학적인 방법인 역행렬을 이용해 구한다 하여 역행렬계수라고도 한다(이강욱·류광훈, 1999). 생산유발계수도출과정을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으며, 수식에서의 (I-A)-1행렬이 생산유발계수 행렬이다.

$$AX+Y-M=X$$

$$X-AX=Y-M$$

$$(I-A)X=Y-M$$

$$X=(I-A)^{-1}(Y-M)$$

단, A: 투입계수행렬, X: 총산출액 벡터, Y: 최종수요 벡터, M: 수입액 벡터, I: 항등행렬, (I-A)⁻¹: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다음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이때, $\hat{A}^V (I - A^d)^{-1}$ 이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이다.

$$\hat{A}^V X = V \text{에}$$

$$(I - A^d)^{-1} Y^d = X \text{를 대입,}$$

$$\hat{A}^V (I - A^d)^{-1} Y^d = V$$

단, $\hat{A}^V$ 는 부가가치합계 대각행렬, V 부가가치합계의 벡터

노동유발계수 또는 고용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경우 각 산업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인 노동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도출한다. 이때 노동유발계수에서 노동계수를 제한 나머지가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간접노동유발을 의미하며, 노동계수는 1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며, 노동계수식은 다음과 같다.

$$l = \frac{L}{X}$$

단, l 은 노동계수, L 은 투입노동량, X 는 총산출액

앞에서의 노동계수를 생산유발계수에 대입하여 노동유발계수를 도출하였고, 식은 다음과 같으며, $\hat{l} (I - A^d)^{-1}$ 가 노동유발계수 행렬이다.

$$l = \frac{L}{X} \text{을 풀면 } L = l \cdot X \text{가 되며, 여기에}$$

$$X = (I - A^d)^{-1} Y^d \text{를 대입하여 풀면}$$

$$L = \hat{l} (I - A^d)^{-1} Y^d$$

국제회의 참가자의 관련 지출액과 주최자의 지출액을 국제회의산업의 최종수요로 보고 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된 유발계수행렬에 적용함으로써 타 산업에 파급되는 경제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¹⁷⁾ 국제회의산업 부문의 관련 지출에 의하여 유발된 생산유발액을 측정하기 위해 국제회의의 관련 지출액을 최종수요에 대입한 후 타산업의 최종수요를 “0”으로 처리하여 생산유발계수행렬에 최종수요의 열행렬을 곱하게 되면

17) 본 절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은행(1987)에서 출간한 『산업연관분석 해설』을 참조바람.

국제회의산업의 지출액에 의한 생산유발액을 계산할 수 있다(이강욱, 1997, pp. 60-61).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I-A)^{-1} \times C = O$$

단, $(I-A)^{-1}$: 생산유발계수행렬

C : 국제회의 관련 지출액의 열행렬

O: 생산유발효과의 열행렬

유사한 방법으로 고용효과·소득효과·부가가치 효과도 위의 식에 고용유발계수, 소득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등을 적용하면 국제회의산업에 의한 타 산업으로서 이들 분야의 경제파급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2.2.2 산업연관분석표상의 국제회의산업의 분류

국제회의산업은 산업연관표상에서 관광관련 산업의 분류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분석 목적상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의 분류체계는 관광관련 산업의 분류체계와 유사한 것으로 전제한다. 따라서 세계관광기구(WTO)의 SICTA(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Tourism Activities) 항목 중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분류에 적합한 항목들을 도출하고, 도출항목과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항목을 조정하여 관광산업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에 포함되는 숙박, 식음료, 교통, 차량임대, 문화공연, 운동·경기, 오락·유흥, 소매(쇼핑) 부문을 관광산업으로 분류하는데, 다만 교통부문은 여객운송, 운수보조, 여행업으로 세분화하여 관광산업을 10개의 세부산업으로 구성된 산업으로 분류한다.

국제회의산업은 산업연관표상에서 존재하지 않음으로 관광관련 산업을 ‘국제회의 관련 산업’으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한다. 따라서 2000년 기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산업연관표 404부문 중에 국제회의산업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관광관련 산업을 “국제회의 관련 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이상의 국내외 선행연구의 국제회의 관련 소비지출의 산업별 세분화 사례를 살펴보면 숙박업, 음식점업, 관광교통업, 소매업(쇼핑), 문화오락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분류방식에 차이가 있다.

상기의 문헌 연구를 볼 때 본 연구에서 채택할 수 있는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참가자 지출에 의하여 도출된 항목을 관광산업 분류에 적용하여 운수 및 보관업, 숙박업, 음식점업, 여행업, 문화공연업, 운동경기업, 오락유흥업, 소매업, 기타 등 9개 부문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주최자 측에서 지출한 항목과 부합되는 인쇄, 출판 및 복제, 통신 및 방송,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회의산업의 분류는 관광부문과 관광이외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관광부문

<표 3> 관광관련 산업 분류

관광부문	산업연관표(2000년 기준)		
숙박	332. 숙박		
식음료	331. 음식점		
여객운송	333. 철도여객운송 338. 외항운송	335. 도로여객운송 339. 항공운송	337. 연안 및 내륙 수상운송
운수보조	340. 육상운수 보조서비스	341. 수상운수 보조서비스	342. 항공운수 보조서비스
차량 임대	366.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여행업	345. 기타 운수관련 서비스		
운동·경기	392. 운동 및 경기관련 서비스		
문화공연	388. 문화서비스(국공립) 391.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389. 문화서비스(기타)	390. 영화
오락·유흥(국제회의)	393. 기타 오락 서비스		
소매	330. 소매		

주: 두 번째 열의 개별 산업 앞의 숫자는 한국은행 2000년 기준 산업 연관표의 404부문 산업 분류 번호임

나. 관광이외 부문

선행 연구의 국제회의산업 세분화 사례를 살펴보면 숙박업, 음식점업, 관광교통업, 소매업(쇼핑), 문화오락서비스업 등의 관광산업 분류이외의 사업서비스업에 대해서만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분류방식에 차이가 많다. 종합하여 분류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관광이외 부문 산업 분류

국제회의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부동산 및 임대업	70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70112.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712.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21. 출판업	22139. 기타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22190. 기타 출판업
	222.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22211. 경인쇄업 22221. 제판 및 조판업 222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223. 기록매체 복제업	22300. 기록매체 복제업
건설/전문직별 공사업	463. 전기 통신 공사업	46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6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464. 건축 마무리 공사업	46412.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사업 서비스	72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209.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72310. 자료처리업
	72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40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45. 광고업	74593. 광고물 작성업 74599. 그 외 기타 광고업
	746. 전문 디자인업	74603. 시각디자인업 74911. 인물사진 촬영업 74913. 사진 처리업
	74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121 인력공급업
	751.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74911.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59.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75941 문서작성업 75942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4 전시 및 행사대행업

III. 연구방법론

3.1 표본의 추출 및 조사

본 연구의 범위는 내용적으로 2004년 국제회의 참가자의 소비 지출액을 조사하며, 이는 2004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부가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지출액을 파악하였다. 또한 UIA(Union of Association) 기준을 감안하여 전체 참가자가 300명 이상인 국제회의를 조사하여 국

제회의 주최자의 지출액을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총 산출액을 도출하기 위하여 2004년에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를 전수 조사하여 참가자의 규모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2000년 기준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대체효과, 간접세효과 등)를 심층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표 자료인 2000년부터 본 연구의 정책적 유효성을 가질 2007년까지이며, 본 연구의 수행기간은 2004년 12월 말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이다.

3.2 분석의 방법

본 연구는 국제회의산업의 분류체계 정립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도출하고, 참가자의 소비 지출액과 주최자의 소비 지출액을 조사하였다. 소비 지출액의 내역은 한국관광공사(2004)에서 출판한 국제회의참가자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를 list하여 UIA(Union of Association) 기준에 부합되는 20개의 국제회의 선정하여 참가자를 조사하고, 국제회의 참가자에게 소비 지출액(세부항목별로 구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내역을 보완하기 위하여 web-based survey를 통하여 2004년 국제회의에 참가한 참가자의 소비 지출액을 조사하여 한국관광공사(2004) 자료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통계를 도출하였다.

2004년에 개최한 국제회의 주최자들이 지출 금액과 수입금액을 조사하였으며, 본 조사는 1차적으로 2004년 국제회의 행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2차적으로는 담당 국제회의 기획업체와 접촉하여 추가적으로 세부자료를 조사하였다.

2004년도에 우리나라 국제회의에 참가한 총인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를 전수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소비 지출액을 계상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2000년 기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을 토대로 input-output model (투입산출 모형)를 통하여 분석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생산유발효과, 소득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수입대체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간접세 유발효과를 측정하였다.

IV.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4.1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

직접소비지출 중 국제회의 참가자 1인당 지출 경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2004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해외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2004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를 전수 조사하여 UIA(Union of Association) 기준에 부합되는 17개의 국제회의를 선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2개 국제회의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조사대상인 국제회의는 2004년 3월부터 11월까지 고루 분포되고(회의가 집중되는 10월은 각 5개회의 선정), 지역적으로는 서울 16개, 제주 2개, 대구 2개, 부산 1개(2개 대회 동시 개최), 경기도 1개로 분류하며, 회의 종류(정부, 분야별 학회 회의)를 세분화하여 자료 도출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선정하였다. 조사는 회의기간(최소 3일)에 국제회의 현장에서 훈련된 조사원의 안내를 받아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2000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 설문지를 참고하였고, 본 조사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을 개발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국제회의산업 관련 최종수요를 산출하기 위해서 산업연관표 상의 항목과 일치 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여 국제회의산업 이용객의 지출항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참가자가 실제로 국제회의에서 지출하는 소비액과 국제회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객이 체류하는 동안의 관광 관련 소비 지출형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산업연관표 적용에 용이하기 위해서 가능한 산업연관표 산업분류체계와 동일하게 국제회의 관련 지출항목을 구성하고 통합하여 이용한다(<표 5>)

<표 5> 국제회의 관련 지출 항목 구성

구 분	내 용
국제회의 비용	- 국제회의에서 지출한 금액 등
숙박비	- 호텔, 여관, 민박, 펜션 등
식음료비	- 음식비, 음료비
교통비	- 육상, 해상, 국내선 항공비
카렌트	- 카렌탈 등
여행사 지불금액	- 여행사 지불 및 관련 정보 비용
문화서비스업	- 입장료 등
운동 및 경기	- 골프 스키 수영 스포츠 등 비용
오락서비스	- 유흥, 놀이 공원 국제회의 등 기타 유흥비
소매업(기념품 및 쇼핑비용)	- 농산물, 기념품 등
기타 비용	- 여행보험 수상스키, 스키 등 임대 - 회의 참가비(등록비)

4.2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4.2.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04년 기준 국제회의와 관련된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액 규모와 국제회의 관련 지출을 최종 수요로 하여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간접세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주요 승수효과를 기준으로 정부 관련 회의, 학회 관련 회의 및 협회 관련 회의 국제회의 참가자(외국인 및 내국인 포함)의 지출금액과 주최자가 지출한 금액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개별 관련 회의의 지출한 금액은 개별 참가자의 평균 지출 금액을 총 참가수를 고려하여 관련 총 지출액을 산출하여 승수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참가자수는 외국인 참가자 수에 총 국내참가자 수의 15%를 가산하여 결정하였다. 국제회의가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우, 우리나라 국내 참가자가 해외로 나가는 비율을 전문가 의견조사를 수렴한 결과 약 15%~20% 정도로 조사되었고, 한국관광연구원(1999) 연구에 의하면 국내참가자의 지출액은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액에 1/4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수입대체 효과라는 측면에서 국내참가자의 15%를 외국인 평균지출액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연구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순수 외국인 참가자가 지출한 금액만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한편 주최자의 평균 지출금액은 2004년에 개최된 총 회의건수 중에서 참가자 300명 이상의 회의만을 고려하여 총 지출액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승수효과를 복합적으로 산출하였다. 전체 참가자 300명 이상의 국제회의는 총 124건으로 주최자의 총 지출금액이 과소평가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조사된 국제회의 및 주최자의 지출액이 300명 이상의 회의인 관계로 평균지출액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305건 전체 회의에 평균지출액(약 6억4천만원)을 적용하면 전체적인 총 지출액이 과다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평균지출액에 300명 이상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인 124건을 적용하여 최종수요 규모를 추정하였다.

4.2.2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가. 국제회의산업의 승수효과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국제회의산업과 관련한 부문은 15개 부문이며, 인쇄, 출판 및 복제,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사회 및 기타 서비스, 기타, 숙박, 식음료, 운수보조, 차량임대, 여행업, 문화공연, 운동·경기, 오락·유흥, 그리고 소매업 부문이다. 이와 관련한 경제적 승수효과는 아래와 같다.

생산유발 승수는 투입계수 행렬의 역행렬 계수의 합에 의해서 도출되며 우리나라 전산업의 평균은 1.802113으로 이는 최종수요 1백만원이 주어졌을 때 약 1,802,113원의 직·간접 산출효과를 국민경제에 파급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별로 보면 기타부문의 승수(2.560933)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송장비업(2.363750), 인쇄출판 및 복제(2.232723) 순으로 분석된다. 국제회의산업의 분류 체계 내에서 생산유발승수가 높은 산업은 기타(2.560933), 인쇄출판 및 복제(2.232723), 식음료(2.018380), 사업 및 기타서비스(1.961604), 문화공연(1.8145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회의산업이 최종 수요형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소득승수는 산업연관표상의 “비용자보수”부문은 개인의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이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발생에 따라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소득승수를 도출할 수 있다.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도출한 소득승수를 보면, 교육 및 보건이 0.64975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공행정 및 국방은

0.564969, 금융 및 보험의 0.506024 순으로 분석된다. 국제회의 관련 산업 내에서 소득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은 여행업(0.471912), 운수 및 보관(0.460444), 문화공연(0.454884)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소득유발효과가 낮은 부문은 차량임대(0.233572), 부동산 및 임대사업 서비스(0.264457), 운수보조(0.311675)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유발승수는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내는 고용승수는 최종수요 100만원이 주어졌을 때 각 산업이 발생시킨 직·간접 고용효과를 의미한다. 2000년 기준 37개 전산업의 평균 고용승수는 0.022995로 분석되었으며, 산업 부문별로는 농림수산품이 가장 높은 0.067719이며, 다음은 국제회의 관련산업인 소매업(0.055992), 식음료(0.051204) 순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의 경우 고용승수효과 0.055992로서 37개 산업 중 2위로 전 산업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1억원에 해당하는 최종수요가 있을 경우, 약 5.6명의 고용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회의산업 내에서 고용유발승수가 높은 부문은 소매업(0.055992), 식음료(0.051204), 사업 및 기타서비스(0.046313), 오락유흥(0.046134), 숙박업(0.03834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산업 평균보다 높은 고용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운수보조, 차량임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유발승수를 보이고 있다.

부가가치 유발 승수는 산업연관표에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간접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가가치 승수는 최종수요 발생에 따라 각 산업에 파급된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의미한다. 전산업 평균 부가가치승수는 0.788961이며 부가가치 승수가 높은 부문은 운수보조업(0.955640), 다음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0.950016), 금융 및 보험업(0.9479410) 등의 순으로 주로 서비스 산업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회의 관련 산업 분류부문에서 부가가치승수가 크게 나타난 산업은 운수보조(0.955640)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0.950016), 차량임대(0.934993), 여행업(0.933803), 소매업(0.927839), 오락·유흥(0.9188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회의산업의 부가가치유발승수 효과는 전반적으로 타산업에 비하여 부가가치 승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국제회의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입증하고 있다.

순 간접세 유발승수는 2000년 기준 전산업 평균 0.067993으로, 순 간접세 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운동·경기(0.306985), 석유 및 석탄제품(0.228906), 음식료업(0.1333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회의산업 분류체계 내에서 간접세를 가장 크게 유발하는 산업부문은 운동 및 경기관련 부문(0.306985)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운



동 및 경기관련 산업에 대한 100만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할 경우 최종수요의 약 30.6%의 간접세가 유발됨을 의미한다. 운동 및 경기관련 산업 다음으로는 식음료(0.11164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조세승수가 낮은 부문은 운수보조(0.021552), 여행업(0.039485), 차량임대(0.040423) 등으로 분석되었다.

수입(import)유발승수는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체산업 생산 활동에 중간재로서 국산품과 수입품이 투입되며, 이때 유발되는 수입을 나타내는 수입유발승수는 전체산업 평균 0.211039로 나타났다. 이는 1백만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할 경우 211,039원의 수입이 유발됨을 의미한다. 산업부문별로 보면 석유 및 석탄제품(0.615155), 여객운송(0.469241), 전기 및 전자기기(0.458671) 등의 순으로 높은 수입승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산업이 타산업에 비하여 원자재의 수입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회의산업 부문 내에서 인쇄, 출판 및 복제(0.215048), 기타(0.298705)부문을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의 수입유발승수가 전 산업 평균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국산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6> 전국 산업별 생산·소득·고용·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영향력계수·감응도계수유발승수(37부문)

구분	생산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		고용유발승수		부가가치유발승수		순간접세유발승수		수입유발승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기 본 산 업 분 류	농림수산물	1.643640	23	0.171607	35	0.067719	1	0.893371	13	0.044801	25	0.106629	25	0.912063	23	1.123127	13
	광산물	1.595032	26	0.313359	24	0.012065	28	0.900385	10	0.038519	30	0.099615	28	0.885090	26	0.660943	28
	음식료품	2.106431	7	0.215814	32	0.035885	8	0.806080	21	0.133340	3	0.193920	17	1.168867	7	1.196701	9
	섬유 및 가죽제품	2.070134	8	0.335365	17	0.021438	15	0.686088	29	0.039592	28	0.313912	9	1.148726	8	0.908287	18
	목재 및 종이제품	1.947457	16	0.255429	29	0.014656	25	0.619224	33	0.035629	31	0.380776	5	1.080652	16	1.327209	7
	석유 및 석탄제품	1.137026	37	0.044933	37	0.001377	37	0.384845	37	0.228906	2	0.615155	1	0.630941	37	1.505336	5
	화학제품	2.024156	10	0.241030	30	0.011264	30	0.620895	32	0.046005	23	0.379105	6	1.123212	10	2.087962	2
	비금속광물제품	2.026427	9	0.327371	20	0.014498	26	0.782963	23	0.048741	21	0.217037	15	1.124472	9	0.863216	21
	제1차 금속	2.195221	4	0.202528	33	0.007690	34	0.582406	34	0.030959	33	0.417594	4	1.218137	4	1.846623	3
	금속제품	2.152687	5	0.345203	16	0.018375	21	0.721879	24	0.032456	32	0.278121	14	1.194535	5	0.884945	19
	일반기계	2.141935	6	0.323175	22	0.015951	23	0.705191	26	0.056744	16	0.294809	12	1.188569	6	0.938322	16
	정밀기기	2.012946	12	0.323470	21	0.018844	19	0.661901	31	0.051538	18	0.338099	7	1.116992	12	0.650572	30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991316	14	0.333224	18	0.022362	14	0.710696	25	0.046551	22	0.289304	13	1.104990	14	0.653091	29
	전력, 가스 및 수도	1.500100	31	0.153869	36	0.005668	36	0.675084	30	0.056656	17	0.324916	8	0.832411	31	1.248996	8
	건설	1.995537	13	0.424767	8	0.020782	16	0.837169	18	0.067187	14	0.162831	20	1.107332	13	0.756253	24
	도소매	1.476819	33	0.371401	12	0.035946	7	0.885009	15	0.050958	19	0.114991	23	0.819493	33	0.938959	15
	여객운송	1.465506	35	0.271619	26	0.019104	18	0.530759	36	0.050805	20	0.469241	2	0.813215	35	0.737171	25
	금융 및 보험	1.486683	32	0.506024	3	0.015907	24	0.947941	3	0.086156	6	0.052059	35	0.824967	32	1.572408	4
	공공행정 및 국방	1.523670	30	0.564969	2	0.020689	17	0.885546	14	0.021312	37	0.114454	24	0.845491	30	0.554904	37
	교육 및 보건	1.564408	29	0.649759	1	0.026688	11	0.896884	11	0.024344	35	0.103116	27	0.868096	29	0.874099	20
수출 산업	전기 및 전자기기(반도체)	1.712327	19	0.200408	34	0.009916	32	0.541329	35	0.028448	34	0.458671	3	0.950177	19	1.125772	12
	수송장비(승용차)	2.363750	2	0.319359	23	0.014019	27	0.694465	28	0.074885	11	0.305535	10	1.311655	2	0.997047	14
국 제 회 의 관 련 산 업	인쇄, 출판 및 복제	2.232723	3	0.403617	11	0.024890	12	0.784952	22	0.045436	24	0.215048	16	1.238947	3	0.805235	23
	운수 및 보관	1.710403	20	0.460444	5	0.023944	13	0.833088	20	0.080000	7	0.166912	18	0.949110	20	0.705889	27
	통신 및 방송	1.667469	22	0.329643	19	0.009626	33	0.895204	12	0.075637	10	0.104796	26	0.925286	22	1.165423	10
	부동산 및 임대사업 서비스	1.474615	34	0.264457	28	0.010824	31	0.950016	2	0.095904	5	0.049984	36	0.818270	34	2.264813	1
	사업 및 기타 서비스	1.961604	15	0.415765	10	0.046313	4	0.862563	17	0.077086	9	0.137437	21	1.088502	15	0.632326	32
	기타	2.560933	1	0.268480	27	0.032225	9	0.701295	27	0.073894	12	0.298705	11	1.421072	1	1.393756	6
	숙박	1.569644	28	0.422209	9	0.038346	6	0.904513	9	0.059978	15	0.095487	29	0.871002	28	0.604553	33
	식음료	2.018380	11	0.360286	13	0.051204	3	0.833631	19	0.111642	4	0.166369	19	1.120007	11	1.144924	11
	운수보조	1.286126	36	0.311675	25	0.006880	35	0.955640	1	0.021552	36	0.044360	37	0.713677	36	0.640898	31
	차량임대	1.676418	21	0.233572	31	0.011601	29	0.934993	4	0.040423	27	0.065007	34	0.930251	21	0.918932	17
	여행업	1.575402	27	0.471912	4	0.015992	22	0.933803	5	0.039485	29	0.066197	33	0.874197	27	0.575705	34
	문화공연	1.814506	17	0.454884	6	0.018390	20	0.866878	16	0.042278	26	0.133122	22	1.006877	17	0.706291	26
	운동·경기	1.631582	24	0.357188	14	0.027600	10	0.918197	8	0.306985	1	0.081803	30	0.905372	24	0.564951	35
	오락·유흥	1.752862	18	0.425305	7	0.046134	5	0.918844	7	0.071260	13	0.081156	31	0.972670	18	0.564235	36
	소매	1.612312	25	0.351674	15	0.055992	2	0.927839	6	0.079652	8	0.072161	32	0.894679	25	0.860127	22
	전산업 평균	1.802113	-	0.335832	-	0.022995	-	0.788961	-	0.067993	-	0.211039	-				

영향력 계수 및 감응도 계수는 한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해 단위량의 최종수요가 발생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 산업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각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열 합계

를 전 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 값으로, 타 산업에 미치는 후방연쇄효과를 의미하며, 생산유발계수가 클수록 영향력 계수도 크게 나타난다. 전체 산업 중에서 영향력 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으로는 기타 부문(1.421072), 수송 장비(1.311655), 인쇄, 출판 및 복제(1.238947) 등으로 “1”보다 크게 나타나 산업 간의 연계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제회의 관련산업의 경우 기타, 인쇄, 출판 및 복제업, 식음료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영향력 계수가 “1”보다 낮게 나타났다.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할 때 특정 산업이 받는 영향을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는 전방연관효과를 의미한다. 즉, 타산업의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서 투입되는 상대적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 및 임대사업 서비스(2.264813), 화학제품(2.087962) 부문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국제회의 관련 산업의 경우 대부분이 “1”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국제회의산업 관련 산업 중 관광 부문에서는 식음료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은 감응도계수를 보이고 있어 관광 관련 산업의 대부분이 중간재로서 활용되는 부문이 낮은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으며, 국제회의 관련 산업은 최종 수요형 서비스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 생산·고용·소득·부가가치·수입·순간접세 유발효과 분석

생산·고용·소득 유발효과 분석은 국제회의 참가자와 주최자 지출에 의한 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한 결과 국제회의 전체(정부, 학회, 협회관련 회의의 통합된 자료 분석의 결과)의 지출규모는 236,671.0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승수효과에 의하여 이를 산업연관분석에서 국제회의 전체산업의 최종수요(final demand)로 대입하여 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국제회의 전체(정부, 학회, 협회관련 회의) 지출에 의한 관련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발생시킨 총 생산과금액은 약 440,786.2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직접효과는 249,266.1백만원, 간접효과는 191,520.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산유발효과에 따른 승수효과는 1.7683이며, 이는 국제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최종수요 1단위가 발생했을 때 각 산업이 국제회의산업에 대한 1단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체 산업에 파급시킨 직·간접 및 파급 효과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수입·순간접세 유발효과 분석은 외국인과 내국인 참가자의 지출에 의한 부가가치부문의 총 효과는 201,408.7백만원의 부가가치를 국내경제에 파급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는 109,219.5백만원으로 54.2%에 해당하며 간접효과는

92,189.2백만원으로 4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유발효과에 따른 승수효과는 1.8441로 나타났다. 숙박업 부문에서 전체 부가가치 유발효과 18.5%에 해당하는 37,293.1백만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7> 국제회의 전체(정부, 학회, 협회관련 회의) 생산·고용·소득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 명)

구 분	생산유발효과	비율 (%)	고용유발효과	비율 (%)	소득유발효과	비율 (%)	부가가치유발효과	비율 (%)	수입유발효과	비율 (%)	간접세유발효과	비율 (%)
1. 농림수산물	12153.9	2.8	708	8.8	1042.7	1.2	7587.0	3.8	306.7	0.9	144.5	0.8
2. 광산물	278.3	0.1	2	0.0	60.9	0.1	176.5	0.1	2.3	0.0	1.4	0.0
3. 음식료품	22114.0	5.0	106	1.3	1712.0	1.9	5974.0	3.0	2115.7	6.0	2033.6	11.3
4. 섬유 및 가죽제품	3355.5	0.8	37	0.5	560.0	0.6	997.0	0.5	511.2	1.4	31.8	0.2
5. 목재 및 종이제품	8165.6	1.9	51	0.6	936.4	1.1	2169.5	1.1	1786.5	5.1	61.8	0.3
6. 인쇄, 출판 및 복제	9611.4	2.2	127	1.6	2009.7	2.3	3000.6	1.5	375.9	1.1	96.9	0.5
7. 석유 및 석탄제품	14317.6	3.2	5	0.1	353.0	0.4	4694.7	2.3	8396.6	23.8	3140.4	17.4
8. 화학제품	11412.8	2.6	42	0.5	1107.5	1.2	2806.0	1.4	2207.2	6.3	74.6	0.4
9. 비금속광물제품	1395.8	0.3	9	0.1	220.3	0.2	474.0	0.2	96.9	0.3	6.7	0.0
10. 제1차 금속	2252.8	0.5	4	0.1	157.7	0.2	475.2	0.2	443.7	1.3	5.6	0.0
11. 금속제품	1822.5	0.4	19	0.2	359.2	0.4	627.9	0.3	162.5	0.5	10.7	0.1
12. 일반기계	1573.5	0.4	11	0.1	244.5	0.3	483.3	0.2	184.2	0.5	42.1	0.2
13. 전기 및 전자기기	3416.2	0.8	13	0.2	308.7	0.3	933.2	0.5	1105.3	3.1	37.1	0.2
14. 정밀기기	375.6	0.1	3	0.0	53.5	0.1	96.4	0.0	65.8	0.2	9.0	0.0
15. 수송장비	3011.2	0.7	13	0.2	364.8	0.4	721.4	0.4	326.2	0.9	104.8	0.6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958.2	0.4	26	0.3	362.1	0.4	665.9	0.3	265.7	0.8	35.2	0.2
17. 전력, 가스 및 수도	8843.4	2.0	20	0.3	683.8	0.8	4032.7	2.0	2007.3	5.7	250.7	1.4
18. 건설	2903.8	0.7	37	0.5	779.9	0.9	1276.5	0.6	89.6	0.3	110.2	0.6
19. 도소매	3804.3	0.9	118	1.5	1084.3	1.2	2469.2	1.2	237.2	0.7	99.9	0.6
20. 운수 및 보관	31343.0	7.1	587	7.3	11217.8	12.7	16383.0	8.1	389.0	1.1	697.1	3.9
21. 통신 및 방송	14791.3	3.4	55	0.7	3129.1	3.5	8648.1	4.3	639.9	1.8	714.8	4.0
22. 금융 및 보험	10208.2	2.3	112	1.4	4012.9	4.5	7020.7	3.5	165.6	0.5	630.5	3.5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34222.6	7.8	212	2.6	5671.9	6.4	24702.6	12.3	276.8	0.8	2583.4	14.3
24. 공공행정 및 국방	0.0	0.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5. 교육 및 보건	2805.9	0.6	60	0.7	1571.8	1.8	1881.9	0.9	69.6	0.2	10.7	0.1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4095.7	0.9	155	1.9	1115.1	1.3	1931.7	1.0	59.4	0.2	149.2	0.8
27. 기타	49688.9	11.3	0	0.0	0.0	0.0	2793.5	1.4	6821.5	19.3	0.0	0.0
28. 숙박업	57862.4	13.1	1935	24.1	19178.5	21.6	37293.1	18.5	502.1	1.4	1701.7	9.4
29. 음식점업	57567.0	13.1	1916	23.8	13181.9	14.9	22060.8	11.0	3694.4	10.5	2999.6	16.6
30. 운수업	2261.3	0.5	35	0.4	450.5	0.5	734.9	0.4	829.5	2.4	26.5	0.1
31. 운수보조업	3512.8	0.8	14	0.2	910.5	1.0	2921.7	1.5	17.5	0.0	24.7	0.1
32. 차량 임대업	9117.2	2.1	55	0.7	1183.0	1.3	5421.4	2.7	68.7	0.2	113.4	0.6
33. 여행사업	13244.8	3.0	143	1.8	4865.2	5.5	8445.2	4.2	154.3	0.4	120.7	0.7
34. 문화공연업	9095.0	2.1	92	1.1	2703.1	3.0	4450.7	2.2	449.7	1.3	93.1	0.5
35. 운동경기업	2521.9	0.6	55	0.7	642.1	0.7	1535.9	0.8	52.6	0.1	690.2	3.8
36. 오락유흥업	3632.3	0.8	140	1.7	1087.7	1.2	2011.0	1.0	60.3	0.2	127.8	0.7
37. 소매업	22049.5	5.0	1120	13.9	5331.2	6.0	13511.4	6.7	325.1	0.9	1056.3	5.9
총효과	440786.2	100.0	8039	100.0	88653.4	100.0	201408.7	100.0	35262.3	100.0	18036.5	100.0
직접효과	249266.1	56.6	6023	74.9	58658.2	66.2	109219.5	54.2	13278.6	37.7	7512.8	41.7
간접효과	191520.2	43.4	2016	25.1	29995.2	33.8	92189.2	45.8	21983.7	62.3	10523.6	58.3
승수효과	1.7683		1.3346		1.5114		1.8441		2.6556		2.4008	

총 수입유발효과는 전 산업에서 35,262.3백만원이며, 이중 직접파급효과는 국제회의 관련 자체 부문에서의 37.7%에 해당하는 13,278.6백만원, 간접파급효과는 21,983.7백만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석유 및 석탄제품 부문에서 수입유발효과의 23.8%에 해당하는 8,396.6백만원의 효과가 발생되었으며, 기타부문은 6,821.5백만원으로 19.3%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총 순간접세 파급효과는 18,036.5백만원의 파급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가운데 음식점이 16.6%에 해당하는 2,999.6백만원이 정부 세수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석유 및 석탄 부문에서 17.4%인 3,140.4백만원의 파급효과가 발생되었고 부동산 및 임대사업서비스 부문은 14.3%인 2,583.4백만원의 파급효과가 발생되었다.

V. 결론 및 연구과제

5.1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표 8>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총효과(A+B+C)	정부회의관련(A)	학회관련(B)	협회관련 회의(C)
생산유발효과	440,786.2	224,148.1	236,965.4	217,529.8
고용유발효과(명)	8,039	3,929	4,086	3,801
소득유발효과	88,653.4	42,856.6	44,803.4	40,533.3
부가가치유발효과	201,408.7	101,738.7	106,338.9	97,498.9
수입유발효과	35,162.3	17,632.7	18,782.0	17,206.3
간접세유발효과	18,035.5	9,283.6	9,743.0	9,002.1

2004년 국제회의 참가자의 지출에 의한 총 생산유발효과는 440,786.2백만원으로 분석되었으며, 3개 관련 회의의 총 소득 파급효과의 합계는 88,653.4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 3개 관련 회의의 고용 파급효과의 합계는 8,039명으로 정부관련 회의 3,929명, 학회관련 회의 4,086명, 협회회의 3,80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회의

의 개별효과를 합산한 총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1,408.7백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순간접세 유발효과의 합계는 18,036.5백만원으로 추정된다. 총 수입(import)유발효과는 35,262.3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학회회의 관련 부문에서 수입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5.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자료 수집에서 한국은행에서 제공되는 산업연관표의 자료시점이 2000년 기준이며, 국제회의산업 관련 자료의 조사시점은 2004년으로 비교시점의 혼재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연관표 활용에서 투입계수가 불변이라는 전제조건을 적용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 의사결정에 적용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둘째, 산업연관표에서 제공되는 산업분류체계 내에서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산업분류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며, 실증분석에서 연구목적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기존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산업연관표상에서 관련성이 높은 산업과 일치 시키고 있으나, 본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는 제한적인 목적을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하여 매년 국제회의 참가자의 지출을 외국인과 내국인을 분리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국제회의 주최자의 지출을 표준화된 지출항목 내역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내국인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실태와 이에 따른 소비 지출액을 조사하여 수입대체효과의 크기를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상기와 같이 제시된 국제회의산업의 기초자료 생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연구원, 대학교 등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조사 및 분석을 해야 할 것임

책임연구원

김 철 원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사)한국호텔관광학회 부회장
컨벤션전시정책연구소 소장

연구원

김 봉 석

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사) 한국호텔관광학회 총무

이 태 숙

순천제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허준·윤 혜 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연구 보조

정 병 준

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연구 자문

이 강 옥 (경제학 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국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발 행 일 : 2008년 4월

발 행 인 : 오 지 철

발 행 처 :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다동 10)

연 구 자 : 김철원(경희대학교 교수)

담 당 부 서 : 코리아컨벤션뷰로(TEL. 02-7299-5553)

인 쇄 : 카피플러스 (TEL. 02-957-7744)

<비매품>

연구기관: (사) 한국호텔관광학회